

임희웅 제7대 포교사단장
"물이 아래로 흐르듯
포교도 하심 갖고 해야"
16 · 17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10월 4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965호 2013년 11월 6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화엄경〉

신심은 도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미니이다.
의심을 끊어야 도를 열 수 있다.

권한도 조직도 없는 신도회 조계종 신도 정책 변화 필요



이기흥 회장 간담회서
신도 조직 문제 제기

교구 9곳 신도회 미결성
사찰 신도회는 파악 안돼
"출재가 의식 개혁 필요"

교구신도회 결성

직할교구, 2교구 용주사, 4교구 월정사, 7교구 수덕사, 9교구 동화사, 10교구 은해사, 11교구 불국사, 15교구 통도사, 16교구 고운사, 17교구 금산사, 21교구 송광사, 22교구 대흥사, 23교구 관음사, 25교구 봉선사

교구신도회 미결성

3교구 신흥사, 5교구 법주사, 6교구 마곡사, 8교구 직지사, 12교구 해인사, 13교구 쌍계사, 14교구 범어사, 18교구 백양사, 19교구 화엄사, 24교구 선운사

사찰 운영에 있어서 신도의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반 신도를 대변할 수 있는 신도회의 역량과 권한이 제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신도 조직과 정책에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제 제기의 포문은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이 10월 28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열었다.〈사진〉

이 회장은 "종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종단이 직접 신도회 구성과 활동에 관심을 둬야 한다"며 "중앙신도회가 할 수 있는 기능이나 권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일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어 "일선 사찰의 신도회가 교구신도회로 이어져 중앙신도회의 토대가 돼야 하는 데 연결고리가 없다"며 "축사만 하러 다니는 회장이 되는 것은 사양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1995년 조계종 신도등록을 시작하며 신도법을 정비해왔다. 1994년 중앙신도회 관련 신도법이 공포되고 1997년 중앙신도회가 창립됐다.

조계종 신도법에 따르면 사찰과 교구신도회, 중앙신도회에 관련한 조항들이 명시돼 있으나 역할의 범위가 광의적이고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사찰 불사와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지 알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구호로만 신도 조직화

문제는 하위조직에 대한 권한이 없는 조직을 위한 조직으로 중앙신도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종단에서도 꾸준히 신도 조직화를 외쳤지만 행정단위와 교구단위의 불일치 등의 이유로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

실제 현재 교구신도회가 구성된 사찰은 15곳. 전체 24개 본사 중 아직까지 신도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은 9개 교구본사에 달한다. 하지만 일선 사찰의 신도회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고명석 포교원 신도팀장은 "지역 신도회에 관한 신도법 조항을 없애고 교구신도회로 단일화했지만 아직 구성이 되지 않은 곳이 있다. 지역별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점차 구성되고 있다. 무엇보다 스님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포교원 담당자도 "교구신도회와 주요사찰 신도회는 파악이 되지만 말사 신도회의 상황을 모두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구성된 사찰 중에서도 교구 신도회로서 제 역할을 하는 곳이 소수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신도회 한 관계자는 "모 사찰의 경우 교구 신도회장과 본사 주지 스님 간 사이가 틀어지며 교구신도회 활동이 파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2010년 교구신도회 활성화를 위한 종단 세미나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하기도 한 민학기 제2교구 신도회장은 "최근 힘이 많이 빠졌다"고 털어놨다.

민 회장은 "제2교구 용주사 말사가 84곳이다. 출범 당시 48개 사찰 대표들이 참여했는데 일부는 사찰 대표자격으로 스님들이 지정했다"며 "일선 사찰에 사찰신도회가 꾸려진 곳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교구신도회의 영향이 일반 신도들까지 전해지기는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신도교무금 활용 등 권한달라"

서울권역을 총괄하는 직할교구의 경우에는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이다. 직할교구는 운영회비를 거둬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했으며 상근인력을 채용하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앙신도회가 조계종 포교원에 신도교무금을 비롯해 신도회비와 관련된 권한을 이양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윤재우 중앙신도회 대변인은 "중앙신도회 한해 예산이 1억 2000만원에 불과하다. 이런 예산으로는 교구신도회를 지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중앙신도회 뿐만 아니라 교구신도회, 더 아래로 사찰 신도회에도 의무 외에도 권한이 주어져야 서로 관심을 갖고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가 무관심도 개혁돼야

일부에서는 스님들이 신도들의 역량이 강화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출재가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손안식 前중앙신도회 상임부회장은 "승가가 재가를 불교를 구성하는 한 축으로 존중하지 않는다. 재가도 승가를 진심으로 존경하는지 성찰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권역별 교수불자모임을 구성하고 있는 최용준 교수불자연합회 회장은 "지역에서 핵심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하다면 과감히 권한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출재가 의식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출가자 탓도 있지만 재가자의 무관심 문제가 크다"며 "재가자들이 기복에서 탈피해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각 사찰에서 신도회를 건강한 체질로 바꾸는 것이 출발이다. 재가자는 출가자의 보조자로 머무른다면 불교 발전의 원동력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10월 31일 재임 임기를 시작한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첫 공식 행보로 서울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쌀, 연탄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 사진= 박재완 기자

조계종 34대 집행부 첫 시작은 '나눔'

자승 스님 · 종무원, 홍제동 개미마을서 봉사활동

10월 31일 임기를 시작한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첫 행보는 '나눔 · 실천' 이었다.

자승 스님과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단체 교역직 · 일반직 종무원 200여 명은 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쌀 · 연탄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

이날 자승 스님과 종무원들은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정 등에 쌀 290포대와 연탄 2만 4천 장 등 총 4000여 만원 상당의 물품을 직접 전달했다.

봉사에 앞서 자승 스님은 "2년 전에도 이곳에도 자비나눔 봉사를 진행한 바 있다"면서 "자비 희사의 정신을 되새기며 종무행정에 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자. 다치지 않고 봉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자승 스님은 오전 9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공연장에서 열린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 일반직 종무원 대상 전체 조회에서 권위 의식을 탈피한 총무원이 될 것을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34대 집행부는 33대보다 더 강한 의지와 결집력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어떠한 고난과 난제가 닥쳐도 한마음 한 뜻으로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정진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총무원 전체 종무원들에게 권위 의식을 탈피할 것을 주문했다. 자승 스님은 "선거 기간동안 24개 교구본사를 다니며 이야기를 들어보니 총무원이 권위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면서 "교역직 · 일반직 종무원들에게 봉사는 기본이다. 본사의 민원들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봉사와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에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 추대

조계종 중앙종회 제196차 정기회서 만장일치로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에 지선 스님〈사진〉이 추대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 1일 열린 제196차 정기회에서 첫 안건으로 상정된 제18교구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에 지선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에 앞서 백양사는 8월 30일 산중총회를 열고 참석 인원 만장 일치로 지선 스님을 선출했다. 총림법 제6조 3항에 의하면 총림 방장은 산중총회에서 추천해 중앙종회에서 추대하도록 명시돼 있다.

지선스님은 전남 장성에서 태어나 1961년 석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64년 경남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와 보살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제주 관음사, 영광 불갑사, 장성 백양사 주지와 조계종 종정 사서실장,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의장, 고불총림 백양사 유나, 백양사 수좌 등을 역임했다.

이와 함께 중앙종회는 법계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대종사 특별전형 심사 대상자로 결정된 원로회의 의원 대원, 지성, 성파, 성우 스님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또한 호법부장으로 임명된 원명 스님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동의할 것을 결의했다.



신중일 기자 종회 관련기사 2면

965호 INDEX

시방세계 5
조계종 승가고시 현장 첫 공개



신행 6
외국어 가능 인재 템플스테이

학술 · 문화재 9
"불교 실크로드 해양 순환로로 전래"

테마로 읽는 사찰 기행 12
단풍이 있는 절 청평사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자승스님 취임 법회

일시 불기2557(2013)년 11월 8일(금) 오후 2시

장소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 축하 화환은 정중히 사절합니다.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대승을 수행하는 것은
마치 여의주처럼 소중하나니
다시 발견하기는 매우 어려우리라.

여의주라 불리는 기적적인 보석은 바라는 모든 것을 성취시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온 나라의 고통을 없애 주기도 하지요. 이것은 대승의 가르침을 표현하기 위한 용어입니다. 여의주는 모든 존재들의 고통을 달래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삶에서 당신은 신뢰하는 스승이 계시고,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고 대승의 수행을 합니다. 이러한 법연은 단순이 이생에서 기회를 잡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생을 통해 불법을 수행한 인연의 끈에 의해 생긴 결과입니다.

붓다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고 다르마의 법륜을 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아직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법을 지닌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고 그것들을 수행에 옮길 준비가 돼 있습니다.

덧없고 헛됨을 쫓아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당신의 행운에 감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모든 노력을 기울여 스승의 가르침을 수행하십시오. 한 순간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없도록 말입니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조계종 내년 예산 다룰 중앙종회 개회

11월 1일 제196차 정기회 시작… 15일간 회기

조계종 2014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중앙종회 정기회가 개회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향적)는 11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96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는 80명중 69명의 의원 스님들이 참석해 개회됐다.

이날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임기를 보내고 새롭게 출범한 34대 총무원장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우리 모두가 한국불교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다시 한 몸이 돼 함께 해쳐 나가야 할 때이다. 집행부가 먼저 차별없는 종무행정 실천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제안했던 교구 중심의 종단 운영을 포함해 종단 구석 구석의 낡은 것들을 드러내 새롭게 설계하고자 한다"면서 "지난 1994년 이후 고정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운영구조와 조직체계, 중앙과 교구, 사찰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겠다. 이러한 내용들을 아울러 오는 1월에 제34대 집행부의 발전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종회의장 향적 스님은 개회사에서 이번 종회가 본연의 기능을 세울 수 있게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향적 스님은 "제34대 총무원장 선거는 끝났다. 당선과 낙선의 결과에 얽매이지 말고, 종회 구성원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며 "이번 종회가 종회 본연의 기능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종회에서는 △제18교구 고불총림 방장 추대 △대종사 특별전형 동의 △호법부장 임명 동의 등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으며, 종정감사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종정(종무행정) 감사를 위해 휴회했다.

자승 스님 차별 없는 행정 강조
향적 스님 불교방송 등 현안 언급
인사안 처리 후 '종정' 감사 휴회
날선 종책 질의 다수 험로 예상

조계종 제34대 집행부 출범 이후 첫 종회이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지난 선거에서 대척점에 있던 3자연대(구 무량, 무차회, 백상도량)가 총무원 독주 견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3자 연대는 종회 개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원칙인 3권 분립의 취지도 견제와 균형에 있다"면서 "중앙종회의 본연의 역할은 종도들에게 유익한 법안을 만드는 것과 총무원의 독주를 막는 것이다. 향후 3자연대는 종책모임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 3자연대 소속 종회의원들이 내놓은 종책질의들을 살펴보면 상당 부분 현 집행부를 겨냥하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 제196차 정기회에 개원에 앞서 참석의원 스님들이 삼귀의례를 하고있다.

장적 스님은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예산이 3억 원대로 삭감된 이유와 향후 결사추진본부의 운영 계획 등을 질의했다.

특히 장적 스님은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예산이 3억원 대로 대폭 삭감된 것을 지적하고 "조계종 기획실 내년도 예산 편성 기조가 미진한 사업을 과감히 삭감하고 차기 사업에 집한다고 했다"며 "이번 예산안은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의 성과가 미진한 사업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내년도 예산 중 예비비 명목으로 19억 원을 편성한 부분에 대한 종책질의도 상정됐다. 일문 스님은 "예년의 경우 일반 회계 비의 5%를 예비비로 편성했다"면서 "내년도 예비비를 12억 원 이하로 편성해야 한다. 각 부서별 예산은 줄이면서 예비비를 늘려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한 도정 스님은 장주 스님과 자승 스님의 밀약서에 대한 질의를 제출했으며, 오심 스님은 고운사 국고보조금 불사 중 공사업자 횡령에 대해 질의했으며 고운사의 지난 4년 간의 보조금 불사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회는 종정 감사를 마친 후 11월 11일 속개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제34대 집행부 인선 완료

10월 29일 부실장 임명장 수여
총무부장 · 사서실장은 유임

10월 31일 새 임기를 시작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제34대 집행부 인선을 완료했다.

자승 스님은 10월 29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부실장 교역직 인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기획실장에 일감 스님, 재무부장에 보경 스님(니), 문화부장에 혜일 스님, 사회부장에 보화 스님, 호법부장 서리에 원명 스님, 종책특보단장에 정념 스님이 각각 임명했다.

또한 나머지 국장단 인사들도 이뤄졌다. 감사국장에는 보운 스님이, 재무국장에는 명선 스님이, 문화국장에는 각밀 스님이, 호법국장에는 설암 스님이, 호법부 상임감찰에는 도민 스님(니)이 임명됐다.

총무부장 종훈 스님, 사서실장 심경 스님과 총무국장 광전 스님, 기획국장 남전 스님은 유임됐다.


총무부장 종훈 스님


기획실장 일감 스님


재무부장 보경 스님


문화부장 혜일 스님


사회부장 보화 스님


호법부장 원명 스님


사서실장 심경 스님


종책특보단장 정념 스님

이번 인선에서는 비구니 스님들이 문화부가 아닌 재무부 책임자로 임명됐다는 점이 가장 눈길을 끈다. 다는 점이 특이할만한 점이다. 또한 자승 스님 측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참여했던 스님들이 부실장 인선에 이름을 상당 수 올린 점도 눈길을 끈다.

임명 직후 자승 스님은 "제34대 집행부 출범을 앞두고 인사를 진행했다. 중앙종회 등이 예정돼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파악해달라"면서 "바로 내려가서 인수인계를 철저히 진행하고 종무행정에 빈틈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신중일 기자

"비상경영체제 운영 난관 타개해 나갈 터"

위덕대 김정기 총장 취임식

진각종 종립 위덕대 제 6대 총장에 김정기 前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실 교육비서관이 취임했다. 위덕대는 10월 30일 정진관에서 김정기 총장 취임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지방이기 때문에, 학생수가 적고 지역 사회가 도움을 주지 않아서 할 수 없다는 패배의식서 벗어나야 한다"며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대학구성원 모두 하나가 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진각종립 위덕대는 10월 30일 6대 김정기 총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주)마루티에스와 함께하는 불교성지 순례 프로그램"

도반기행 "道伴紀行"

"道伴紀行" 불교성지 순례일정

1.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8일 (인도항공)

▶ 인도 / 네팔 불교 7대성지를 따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델리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인천

2.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12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인도 / 네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뭄바이 – 엘로라 / 아잔타(불교석굴군) – 델리(국립박물관 – 진신사리)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보드가야(성도지)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쿠시나가르(열반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인천

3. 인도 / 네팔 / 스리랑카 불교성지 순례 15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네팔 / 인도 / 스리랑카의 불교성지와 핵심지역을 순례하는 대장정 일정 ◀

: 인천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룸비니(탄생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콜롬보 – 아누라다푸라(스투파 / 보리수) – 시기리야(시기리야성채) – 플론나루와(고대불교도시) – 담불라(불교석굴군) – 캔디(불치사 – 부처님 치사리) – 누와라엘리야 – 콜롬보 – 인천

상기일정은 항공사 및 현지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도반기행 포함 및 특전사항

1. 국제선 / 국내선 항공권 포함 / 유류할증료 / TAX
2. 구간별 한식조리팀 동행 및 한식 제공
3. 전일정 가이드/기사/한식주방팀 팁 포함
4. 인도/네팔/스리랑카 비자 대행서비스 포함
5. 전일정 4성 혹은 5성급 호텔 이용
6. 전일정 불교성지 전문 가이드 동행
7. 인도 다르질링 차(茶) 1인 1팩 증정
8. 전일정 매일 1인 2병 생수 증정
9. 바라나시 갠지스강 꽃등(燈) 제공
10. 여행자보험 포함

* 개인경비는 (전화, 개인적인 팁, 카메라 등) 불포함 *

◀ 8대 佛教聖地 지역 안내 ▶

❶ **보드가야(Bodhgaya)** : 불교 제1성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成道地

❷ **사르나트(Sarnath)** : '초전법륜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나서,첫 설법을 하신 곳, 佛 · 法 · 僧 불교의 三寶가 시작된 곳.

❸ **스라바스티(Sravasti)** : 부처가 24회 안거를 보낸 '기원정사'가 있는 곳으로, 금강경 / 능엄경 / 원각경 등을 설법하신 곳.

❹ **라즈기르(Rajgir)** : 불교 교단 최초의 절(寺) '죽림정사'와 부처가 법화경을 설법하셨던 영축산(영취산)이 있는 곳.

❺ **바이샬리(Vaishali)** : 부처가 반야사상 '유마경'을 설법하신 곳, 원왕봉밀(猿王奉蜜)장소에 아쇼카왕(전륜성왕)이 석주를 세운 곳.

❻ **쿠시나가르(Kushnagar)** : 부처가 열반에 든 곳. '모든 현상은 변천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 할 것이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긴 곳.

❼ **룸비니(Lumbini)** : 부처 탄생지. 마야데비 부인 사원과 구룡못이 있는 곳.

❽ **상카시아(Sankasya)** :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 어머니 마야데비를 위해 법을 설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곳.



INDIA

Find what you seek
Incredible India

마루 티에스 Maru Tour Service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청계천로 55, 1002호 (110-111)
대표이사 : 김영곤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8540
전화 02)733-3155 / 팩스 02)6008-0096
이메일 : maru@maruts.co.kr

국내외 이어 승가대학원까지 장학제도 '안착'

조계종 교육원, 2014 장학승 선발 요강 발표

2010년부터 시행된 조계종 장학승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다. 국내외 대학에서 수학하는 스님에 대한 정기적 지원에 이어 내년부터는 사찰승가대학원의 스님들에게도 장학금 혜택이 주어진다.

조계종 장학위원회(위원장 보광)는 10월 29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14년도 종단 장학승 선발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에 종단 장학승 선발 분야는 응용불교학, 불교문화, 불교사, 언어학이 새롭게 추가됐으며, 종단 내 연구가 부족한 계율과 근현대 한국불교사, 종교법인에 대한 연구자를 우대한다. 종단 장학승 선발 대상도 국내 장학생 6명, 해외 장학승 4명에 사찰승가대학원 장학승 20명이 추가됐다.

국내 · 외 장학승은 불교학(초기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계율)과 불교사(한국불교사,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일본불교사), 불교문화(불교 문화, 예술, 건축, 콘텐츠), 응용불교학(불교윤리학, 종교법무, 불교사회학, 비교종교학, 철학일반, 불교심리학, 사회복지정책), 언어학(불전언어, 일반언어) 등의 분야에서 선발한다.

또한 사찰 승가대학원 장학승은 율학과 선학, 한문불전, 초기불전, 중관유식, 특정교학(능엄, 화엄) 등에서 선발한다.

국내 · 외 장학승은 해당 과정 수료 시까지 최대 4학기동안 등록금과 연구비를 지원하며, 사찰 승가대학원 장학승은 1년 단위로 연구비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 같은 장학승 제도는 2010년 6월 '장학금 지급 및 관리에 관한 령'이 제정되면서 본격화됐다. 그간 조계종 차원의 장학승 선발은 해외에서 수학하는 스님들에게만 한정돼 있었고, 지급인원과 금액이 불규칙해 일회성 지원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하지만 '장학금 지급 및 관리에 관한 령'의 제정으로 종단 인재양성에 새 전기를 맞게 됐다.

이에 따라 이제 해외 유학승 중 미국과 유럽에서 공부하는 스님들은 연간 3000만원, 일본은 1200만원, 중국은 1000만원, 인도와 동남아는 8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국내에서 수학하는 스님은 일반대학의

승가대학원 포함 30명 선발
근현대사, 법무 분야 가산점

종단 內 연구 인력 양성 목적
2010년 法 제정… 14명 혜택
최대 3000만원까지 학비 지원
"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해야"

경우 석사 과정은 연간 900만원, 박사과정은 연간 1000만원을 지급한다. 종립대학은 각각 석사 과정 450만원과 박사 과정 500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또한 학업을 마치고 나서 일정 시간을 종단에서 활동하게 해 인재 활용의 기회도 열어 놓게 했다.

장학제도 1기생인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사무국장 석중 스님은 "안정적으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 또한 종단 장학승이라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학제도는 인재 양성의 중요한 매개체"라면서 "종단 장학승 선발 대상과 분야를 확대해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 이를 통해 배출된 인원들은 모두 종단의 큰 동냥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4년 종단 장학승 희망자는 오는 11월 4일부터 26일까지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한 뒤 수학계획서와 지도교수 추천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조계종 교육원으로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오는 12월 중순 경 조계종 홈페이지 공고와 더불어 개별통지된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쿠르트 코흐 추기경은 11월 1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예방했다.

"종교 간 대화로 세계를 평화롭게"

코흐 추기경,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예방

로마 교황청의 쿠르트 코흐 추기경이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예방하고 종교가 이뤄낼 수 있는 평화의 가치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

로마 교황청을 대표해 세계교회협의회(WCC) 부산 총회에 참석한 코흐 추기경은 11월 1일 해운정사를 방문해 진제 스님을 예방했다.

이날 자리에서 진제 스님은 "종교 간 대화와 화해를 통해 여러 이유로 고통 받고 있는 인류를 위해 종교가 앞장서야 한다"며 "해운정사는 평화의 불을 모신 평화탑이 있는 곳으로 남북의 평화 통일을 발원하고 있다. 종교인들이 함께 평화를 위해 나아가자"고 밝혔다.

코흐 추기경은 "종교를 넘어 모든 이들이 평화와 행복을 찾기 바란다"며 "베네딕트 16세 교황 역시 종교 간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항상 설파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예방에는 7대 종단 한국종교협의회 공동 회장을 맡고 있는 김희중(광주대교구 교구장) 대주교와 아시아 주교회의 교회 일치와 종교 간 대화 위원장인 마차도 대주교 등이 함께 했다. 신중일 기자

사찰 화재 예방 지원 활동 활성화

문화사업단, 소방학회와 MOU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은 10월 29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에서 한국화재소방학회와 화재예방에 관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문화사업단장 정산 스님과 백동현 소방학회장이 참석해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문화사업단 측은 소방학회의 자문을 받아 사찰에 대한 화재 예방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소방학회 또한 템플스테이 참여 기회를 제공받아 전통목조건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화재예방 캠페인 및 연구를 하게 된다.

정산 스님은 "(이번 업무협약은) 단순 템플스테이 사업 제휴와는 다르다"며 "사찰들이 소방방재에 관한 무지함에서 벗어나 불교문화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업무협약 의의를 평가했다.

백동현 소방학회장 또한 "사찰에 가보니 소방과 관련해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앞으로 소방 점검 및 자문 협조를 통해 숭례문 화재 같은 문화재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체결 이후 문화사업단은 소정의 선물을 소방학회 측에 전달했고 학회 또한 단독경보형화재감시기를 전달했다. 배현진 기자


한마음선원 전국 지원장 스님과 신도 임원이 시삽을 하고 있다. 이날 기공식에는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해 대작불사의 원만회향을 기원했다.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새 도량 '첫삽'

10월 26일 기공식…어린이법당 · 해수관음상 등 2015년 완공

통영시민들이 대행 스님의 가르침과 마음공부를 배울 수 있는 새도량이 건립된다.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지원장 혜연)은 10월 26일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새도량 기공식'을 거행했다. 기공식에는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혜월 스님(광주지원장), 혜도 스님(부산지원장), 혜솔 스님(대구지원장), 청백 스님(광명선원 지원장) 등 각 지역 지원장 스님과 신도 등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행사는 삼귀의, 불교도의 노래, 뜻으로 푼 반야심경, 경과보고, 화합재, 시삽, 주지스님 말씀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주지 혜원 스님의 인사말을 대독했다. 혜수 스님은 "통영지원은 1990년대 초에 마산, 진주에서 공부하던 통영 불자 몇 분이 신실한 마음으로 개원을 발원해오다 대행 스님께 청을 드려 1997년 개원하게 됐다"며 "통영 신도님들은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승과 속을 따로 두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 이곳이 꽉찬 도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마음선원 통영 지원은 1997년 3월 경남 통영시 도천동에 개원, 2004년 8월부터 통영시 광도면에 2만9752㎡의 불사터 매입을 시작했다. 이후 6차에 걸쳐 현재까지 9만2561㎡(2만 8000여평)를 매입했다.

통영지원은 대지 9917㎡ 법당 두동을 건립할 예정이며, 도량탑, 해수 관음상을 모시고 어린이 법당도 건립할 예정이다.

통영지원장 혜연 스님은 "100여명의 통영지원 신도들과 각 지원장 스님 및 신도들의 지극 정성한 발원으로 불사금을 조성해 도량터를 매입할 수 있었다"며 "새도량이 건립되는 이곳은 많은 등산객들이 다니는 발암산이 둘러싸고 있는 곳이다. 또한 1만여 시민이 거주하게 될 죽림신도시와 가까워 통영시민들이 오갈 수 있는 마음도량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영=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유영익 국편위원장 종교편향적 사고 문제"

주호영 의원, 31일 교육부 국정감사서 지적

기독교 편향적 역사관으로 임명 전부터 불교계 안팎으로 문제가 된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의 종교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소속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10월 3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유 위원장에게 "개인 종교로서 신앙을 가지는 것과 공직자로서 직무를 행함에 있어 그걸 표출하는 것은 다르다"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든 것이 업적이라는 생각을 가진 분이 제대로 우리나라 역사를 기록하고 평가하겠냐"고 질책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정치, 사회, 외교, 경제, 군사 등등 여러 면으로 분류해서 따질 때 종교 분야 등에서…"라고 해명하자 주 의원은 "구구한 해명을 듣고 싶지 않다"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주 의원은 "본인이 한 것을 돌아보고, 그것이 공직자의 자세로 맞는지 점검해보라"고 힐난했다.

유 위원장은 인선부터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종교 편향적 인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불교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임명을 철회하라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10월 24일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의 자승스님 예방에서도 前 기획실장 주경 스님이 "유 위원장의 임명에 대해 불교계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신중일 기자

자정센터 직선제 제안

10월 선언…좋은 보시 운동도

참여불교 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원장 김종규)가 '재가불자 10월 선언'을 했다. 교단자정센터는 10월 3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거법의 직선제 도입을 제안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조계종 34대 총무원장 선거는 민의의 왜곡, 사부대중의 소외, 종법 위반으로 치러졌다"며 "종단의 대표성이 부재하고 신뢰성을 상실한 현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은, 총무원장 직선제를 위한 종헌개정을 완수하고 임기와 상관없이 물러나는 길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교단자정센터는 청정한 교단문화를 만들기 위해 △좋은 보시 운동 △재가자 법회와 정진 전개 등을 펼친다. 이를 위해 교단자정센터는 범계 행위에 연루된 사찰에 보시하지 않기 · 관람료 내지 않기 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日江 스님께서 정리하신 알기쉬운 상용의식과 신간저서 안내

책을 내면서…

지금까지 갖가지 의식에 대한 절차나 예법을 기록한 책이 많이 나와 있으나 초심자가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번에 소개하는 각종의식 집은 조예가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의식진행 순서대로 작성하였다. 아무쪼록 본 의법이 법요의식을 진정한 염불로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많이 활용되어 중생계에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

편집인 日江 합장

사용하기가 간편하여 스님들에게 최고인기 판매 중!


예경 · 권공의식집

예불에서부터 불공에 이르기까지 목탁, 요령, 합장표시와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의식순서대로 되어있어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18쪽 | 값 15,000원


불상 점안 의식집

부처님을 모신 후 불상점안 의식은 이 책 한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

46배판 | 59쪽 | 값 9,000원


천도(49)재 의식집

천도재, 구병시식, 지장불공, 관음시식 등 재의식을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순서별로 되어있다.

46배판 | 123쪽 | 값 12,000원


고사의식집

가택 평안을 위하여 사용되는 고사의식 집이 알기 쉽게 편집되었다.

46배판 | 130쪽 | 값 13,000원


다비의식집 (2010신간)

누구나 간절히 기다리던 의식 집, 승가다비편과 재가다비편이 입적 후 처음으로 시신을 대하는 순서부터 화장, 매장 등 의식절차가 순서대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하고 세밀한 설명으로 누구나 당황하지 않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58쪽 | 값 15,000원

● 구입문의 : 일강 출판사 02)2237-8543
● 4권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입니다.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67-017536-04-024 사단법인 천우종

신간 행복한 운명을 만드는 비결
운명을 지배하는 조상 靈



- 종교지도자들이 이 책을 읽고 신도들에게 권해주면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값 : 12,000원 | 사찰 다량주문 환영

신간 고사와 치성



고사와 치성은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의식 순서대로 되어 있으며 상차림, 준비물, 방법까지도 알기 쉽게 쓰여있어 초보자들도 한번 읽어보면 바로 의식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자신감도 생기고 사암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46배판 | 144쪽 | 값 13,000원

구입문의 : 일강출판사 02)2233-5286, 2237-8543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67-017536-04-024 사단법인 천우종

일 주 문



승려시집 작품 모집

승려시인회 회장 진관 스님은 11월 9일까지 승려 시인들을 대상으로 〈승려시집 6권〉에 게재할 작품을 모집한다. (02)737-7872



금동삼존불 점안법회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은 11월 10일 오전 10시 열린선원 법당서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등 금동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관세음보살상 봉안법회

'세계일화 능엄지장도량' 능엄선원 능화사 주지 혜강 스님은 10월 27일 지장보살상 · 관세음보살상 봉안 법회를 봉행했다.



반송 원오사, 삼성각 낙성식

반송 원오사 주지 정관 스님은 10월 27일 삼성각 낙성식 및 점안법회를 개최했다.

울산불교방송 사장에 오심 스님



울산불교방송 3대 사장에 오심 스님(울산 월봉사 주지)이 임명됐다.

오심 스님의 임기는 2016년 6월 22일까지로 취임식은 12월 16일 오후6시 울산MBC 컨벤션에서 열린다. **신중일 기자**

18회 명원차문화대상 박래부 · 윤석관 회장



박래부 회장



윤석관 회장

제18회 국제 명원차문화대상에 공로상 박래부 새언론포럼 회장, 학술상 윤석관 죽로다문화회 회장이 선정됐다. **노덕현 기자**

군불총 11대 회장에 김현집 합참 차장



국군불교총신도회(이하 군불총) 제11대 회장에 김현집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추대됐다. 김현집 회장은 육사 36기로 육군 5군단장, 제3야전군사령부 작전차장, 제28보병사단장 등을 거쳤으며 현재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맡고 있다. **노덕현 기자**

주간불교 사무실 이전

주간불교는 두산 위브 파빌리온 1038호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대중과 거리 좁혀 최고의 연수시설로"

시설명 개명한 한국문화연수원장 초격 스님



지난 9월 전통불교문화원을 '한국문화연수원' 으로 바꿔 외부단체 시설 이용률 높여

"이제는 부처님의 자비 구현을 좀 더 폭넓게 생각해야 합니다. '불교' 로 고정화하기 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화산 전통문화원의 명칭을 '한국문화연수원' 으로 명칭을 변경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조계종 한국문화연수원장 초격 스님은 10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종단 연수시설인 전통불교문화원의 명칭을 한국문화연수원으로 바꾼 이유에 대해 이 같이 설명하며 말머리를 풀었다.

조계종 총무원은 문화원 명칭 변경을 위해 지난 9월 11일 종무회의에서 '한국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7월 23일 전통불교문화원은 9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한국문화연수원' 명칭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명칭 변경에 따라 전통불교문화원 본부장 역시 연수원장으로 호칭을 바꿨다.

스님은 명칭 변경으로 기업체와 단체 등 일반 이용률이 높아지고, 불교문화프로그램연수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외부 단체의 경우 연수 유치 과정에서 종교색을 이유로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개원 후 4년 동안 이용률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안정된 운영을 위해서는 명칭 변경을 고려했어야 했다.

"세종시로 정부 청사와 산하 기관이 옮겨오면서 워크숍과 각종 회의를 할 장소를 찾는 문의가 많지만, 특정 종교 명칭으로 인해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종교색을 보이지 않으면서 종교적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교육과 교육장 등 주변 환경에서 불교적 가치를 충분히 녹여낼 수 있도록 운영할 것입니다."

연수원은 명칭 변경으로 내년 이용객 목표를 최대 4만 명으로 잡고 있다. 이는 올해 대비 25% 이상 늘어날 수치다. 내년 수입액 역시 21억 원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연수 매출 확대로 시설 개선 예산을 확보하고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만들 것입니다. 인문과 문화 등을 접목한 프로그램부터 불교적 명상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종단 연수를 무료로 전환하고, 종단에 이바지하는 조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불교' 라는 명칭은 없어지지만, 불교적 가치를 추구하는 한국 대표 연수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정우 스님, 해인승가대학 총동문회장 연임

10월 29일 동문회 정기총회서… 해인승가상 시상식도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장에 정우 스님(조계종 군종교구장 · 사진)이 연임됐다.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는 10월 29일 합천 해인사 관음전에서 '2013년도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 정기총회' 를 열고 2013년 결산 및 2014년 예산 승인의 건, 제17대 임원 선출의 건, 동문회 활성화 방안의 건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기 총회에서 동참 동문 스님들은 만장일치로 정우 스님의 연임에 결의했으며, 정우 스님은 동문회 발전을 위해 기금 1,000만 원을 쾌척했다.

해인동문회 제17대 총동문회장에 재임된 정우 스님은 "해인동문회장에 연임하게 되어 선후배 스님께 감사하다" 며 "열심히 정진해 해인동문의 응집된 기운들이 종단과 불교 발전에 이바지하는 초석이 되고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올 한해 각 활동 분야에서 뚜렷한 업적과 공로가 인정되는 동문을 선정해 해인승가상을 전달했다. 해인승가상 대상에는 인환 스님(동국대 명예교수)이 선정됐으며, 학술부문에 종림 스님(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복지부문에 오심 스님(월봉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포교부문에 성원 스님(약천사 주지)이 각각 수상했다.



이와 함께 (재)해인동문장학회 이사장 보광 스님은 2013년도 장학승 57명에게 5,400만 원과 해인사승가대학 교수 연구비로 500만 원 등 총 5,900만 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신중일 기자**

혜명당 무진장 스님 49재 봉행

10월 27일 조계사서… 사부대중 1천여 명 참석

조계종 원로의원 무진장 스님의 49재가 10월 2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원로회의 의장 밀운스님과 총무원장 자승스님, 원로의원 도문스님, 정관스님, 세민스님, 포교원장 지원스님, 수덕사 방장 설정스님, 백양사 수좌 지선스님, 범어사 주지 수불스님 등 60여명 스님을 포함 사부대중 1,500여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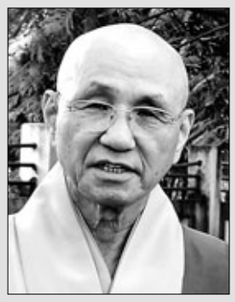
원로의장 밀운스님은 법어를 통해 "한 생각을 일으키니 해와 달이 다 무너져 없어져 버리고, 또 한 생각을 쉬니 우주가 생기더라. 낳고 죽음이 오는 원리" 라고 설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스님의 법향은 수많은 중생들에게 고귀한 불법 인연을 맺어 주셨다. 이제 큰스님의 법문을 다시 들을 수 없다고 여기니 불자들은 가슴 깊은 아쉬움을 가눌 길이 없다" 고 추모했다.



신중일 기자

제11회 대원상 대상에 월주 스님



제11회 대원상(포교대상 부문) 출가부문 대상 수상자로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사진〉이 선정됐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은 2013년 10월 29일~30일 제11회 대원상 심사위원회의를 개최 수상자를 선정했다.

포교대상 출가 부문에는 대상에 국제구호단체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을 선정 · 추대했고 특별상에는 풍경소리(대표 혜자)를, 장려상에는 남장 스님(김갑영 군법사, 법웅사 주지)을 선정했다.

재가 부문에는 대상 수상자는 없으며, 특별상에 법보신문사(대표 남배현)와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를, 장려상에 현익채 대불련총동문회 고문을 각각 수상자로 선정했다.

불교진흥원은 "월주 스님은 불교계 원로로 불교 발전을 향한 원력과 경륜을 바탕으로 사회, 복지, 경제, 통일 등 포교 일선에서 사회활동에 불교계의 참여를 주도해 불교 위상을 고양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 전했다.

콘텐츠대상에는 대상 수상작이 없으며, 장려상에 사유진씨의 다큐멘터리 'Peace in Tibet' 와 청보리회의 다큐멘터리 '대열반' (대석가 10부작 중 제10부)을 각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시상식은 11월 19일(화) 오후 3시 다보빌딩 3층 법당(다보원)에서 열린다. **정혜숙 기자**

불교조계종 여주 백화사 창종법회



여주시 승격을 축하하는 '보금산 백화사 산사음악회' 가 10월 27일 오후 1시 백화사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불자가수 이지영씨가 사회를 맡은 이날 백화사 산사음악회에는 가수 장미화, 진시몬, 한세일과 탤런트 정영금, 소리꾼 자명스님 등이 무대에 올라 신명나는 무대를 선사했다. **노덕현 기자**

고운사 청소년문화예술제



의성 고운사가 10월 26일 제 6회 '천년 솔향 아동 · 청소년문화예술제' 를 경내에서 실시했다. 대중 700여 명이 참가한 이날 예술제에는 백일장(운문 · 산문), 사생대회(주제: 풍경)에 이어 음악공연대회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고운사는 이날 행사에서 사찰음식 도시락을 제공해 눈길을 끌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조계종 교육원은 10월 30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실시하는 2급 승가고시 현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올해 2급 승가고시에는 비구 79명, 비구니 82명 등 총161명의 스님이 응시했다.



2급 승가고시 면접 현장. 2급에 합격하면 대덕과 혜덕 법계를 품수한다.



논술고사를 마치고 진행된 면접고사 장면. 이날 면접위원은 비구와 비구니 스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출가 20년, 법계 품수 시험 "떨리네요"

조계종 교육원 2급 승가고시 현장… 언론 최초 공개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10월 30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승가고시를 실시했다. 조계종 고시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 2급, 3급 승가고시는 10월 30일~11월 2일까지 4일간 치러졌다.

이에 교육원은 2급 승가고시 시험 현장과 면접 모습을 언론에 최초 공개했다. 올해 2급 승가고시에는 비구 81명, 비구니 85명 등 총 166명의 스님이 응시했으며, 이 중 비구 2명과 비구니 3명이 결시해 총 161명이 시험을 치렀다. 2급 고시는 출가한지 20년 이상 된 스님들이 볼 수 있다.

이날 고시는 오전 10시부터 논술로 진행된 필기고시 부터 진행됐다. 하루 전날 입교한 스님들은 그간 공부한 내용을 최종 정리해 시험을 치렀다. 제 1고사장에서는 비구 스님들이 시험을 봤으며, 혜명 스님(불학연구소장)과 남전 스님(기획국장)이 감독 위원을 맡았다. 제 2고시장에서도 정도 스님(교육부장)과 광전 스님(총무국장)이 감독 위원을 맡고 비구니 스님들이 시험을 치렀다.

논술은 수행(선 · 교 · 율)과 전법 · 사찰운영으로 크게 나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원 사무국장 석중 스님은 "수행과 전법 · 사찰운영 분야에서 각각 사전에 6개의 예상 주제를 미리 공개했으며, 이 중 3개 문제가 출제 됐고 응시자들은 그 중 택일해 2000자 이내로 논술하도록 했다"고 설명한다.

수행(선 · 교 · 율) 분야는 ①〈육조단경〉에 나타난 선 정신의 구현 ②조사선과 일상수행 ③여래장사상과 선종의 성립 ④〈화엄경〉 '십회향품'과 대승불교정신의 구현 ⑤대승계와 현대사회 ⑥ 현대사회의 승가상 등이 예시 문제로 올라왔다.

또 전법 · 사찰운영 분야에서는 ①사찰재정확보와 공정한 관리 방안 ②지역사회에서 사찰과 주지의 역할 ③다종교사회의 종교 갈등 해소 방안 ④ 현대사회에 맞는 다양한 법회의 형식과 내용의 제안 ⑤현대인의 생활문화(도시생활, 주5일 근무)에 맞는 전법포교 방안 ⑥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과 연계한 지역사회 역할과 포교 등이 예시로 포함됐다.

스님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 논술 시험에 응했다. 필기 고사를 마친 스님들은 6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면접 시험을 치렀다. 이번 2급 승가고시 면접시험은 비구니 스님들의 요청에 따라 비구와 비구니로 면접위원이 나뉘어 진행됐다. 비구 스님 면접위원으로는 지안 스님(고시위원장)을 비롯해 고시위원인 원철 스님, 보각 스님, 대전 스님, 재연 스님, 지현 스님, 본각 스님, 일운 스님 등이 참여했다. 비구니 스님은 지형 스님(청암사승가대학장), 진광 스님(운문사승가대학장) 진명 스님(前 문화부장) 행오 스님(동학사승가대학장) 등이 면접위원으로 나섰다.

필기고사는 종덕 대덕 이상의 교수 아사리 및 교육교역자 10명이 채점 하며, 면접시험과 합쳐 총300점 만점에 전체 합산 점수 180점 이상이 돼야 합격한다. 단 필기고사 점수가 40점 미만일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된다.

시험을 마친 동학사 승가대 교수 명오 스님의 표정은 밝았다. 제자들에게 합격발원 떡까지 선물 받았다는 스님은 시험은 항상 떨리는 거 같다는 말로 말문을 열었다. "시험을 보기로 마음 먹고 수행 이력을 정리하다 보니 기분이 새로워졌어요. 승가대서 소임을 맡고 있다보니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늘 미리 제출된 주제어를 책상 앞에 걸어 놓고 보면서 공부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음이 가는 한 문제에 집중 했는데 그 문제는 안 나왔네요(웃음). 면접에서는 평소 가슴에 담고 있는 부처님 말씀에 대해 자신있게 얘기했지요."

2급 총 161명, 3급은 435명 응시
10월 30일부터 한국문화연수원서
합격자는 주요 소임 자격 부여

명오 스님은 10년전 1주일간 치러졌던 3급 승가고시에 비해 1박 2일은 짧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한다. 스님은 이어 "교육원 방침에 따라 어제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도반들과 지난 얘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물론 이렇게 회포를 풀다가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고시 준비를 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1박 2일은 좀 짧다는 생각이 들어요. 10년 전 치렀던 3급 고시는 개방을 앞둔 화엄사 선방서 1주일간 진행돼 너무 신심이 났어요. 또 당시는 각 강원 특강 프로그램을 들으며 충분하게 연습할 시간이 있었는데 이번에 시간이 짧다는 느낌이 들어 아쉽네요."

경남 고성 무위사 주지 명조 스님은 전법포교 분야를 택했다. 스님은 오랫동안 글을 안 썼는데 논술 형태로 시험을 치르니 힘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스님은 종단 발전을 위해 이런 제도는 반드시 필요다고 강조한다. 스님은 "94년도에 300여 도반들이 함께 계를 받았는데 이번에 참여율이 적어 안타까웠어요. 저는 종단이 늘 콩나물에 물 주듯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승가고시가 많이 알려져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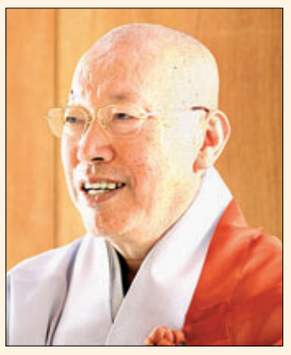
3급 승가고시는 비구 267명, 비구니 168명 등 총 435명의 스님이 응시했다. 비구 1차 시험은 10월 31일에, 비구 2차는 11월 1일 치러졌으며 비구니 고시는 11월 2일에 각각 진행됐다. 한편, 2급 승가고시에 합격하면 대덕과 혜덕 법계를, 3급 승가고시에 합격하면 중덕과 정덕 법계를 각각 품수하게 된다. 대덕과 혜덕 법계를 품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고시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위원과 칠증사, 중앙종무기관 부 · 실장, 종정예경실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의 소임을 맡을 수 있다.

또한 중덕과 정덕 법계를 품수하면 말사 주지와 본사 국장, 중앙종무기관 국장, 교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소임을 맡을 수 있으며 상좌를 둘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결과발표는 2급과 3급 모두 11월 6일에 한다.

공주=정혜숙 기자

"수행자도 자질 향상 위해선 고시 꼭 필요"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 인터뷰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스님들도 안목을 높여야 합니다. 불교가 이 시대에 현실과 사회적 실천을 적용할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고시를 통해 자각심을 일깨우고 전문화된 분야에 원력을 세워 실천해 나갔으면 합니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사진〉은 승가고시의 취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수행자가 무슨 고시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종단은 조직사회이고 교단 전체를 본다면 구성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고시제도가 꼭 필요합니다. 고시제도를 통해 승가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수행정신을 새롭게 해 수행자의 품위와 학덕을 갖추고자 하는 차원에서 고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급 승가고시는 승납 20년 이상 스님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주로 점검한다. "보통 고시를 기피하려는 경향도 있었고 불평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시가 실시된 지 10년이 넘으면서 이제 고시는 당연히 거쳐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승가고시는 스님들의 사회적 안목과 식견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고 스님은 강조한다.

"올해는 작년에 불합격자가 많이 나왔다는 여론이 있어 쉽게 출제했습니다. 종교인들이 사회적인 안목과 식견을 가져야 한다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묻는 문제를 주로 출제했습니다. 필기시험인 논술 채점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교차채점으로 공정성을 기했습니다"

고시제도가 정착화 되면서 고시에 임하는 스님들의 자세도 많이 달라지고 답안 작성 수준도 많이 높아졌다고 스님은 평가한다. "올해 채점을 해보니 답안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고시제도가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고시를 치러 스님들 스스로도 의식이 새롭게 트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스님은 앞으로 스님들이 고시제도에 대해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불교가 한국인의 정신을 이끌어가는 종교로 성장하기 위해 우리의 식견도 높아져야 하고 지적 향상도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높이도 높아져야죠. 결국 이런 식견을 넓히기 위한 방편으로 고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혜숙 기자

봉 대법사 창건 기념 철야정진기도 행

약사기도도량 대법사
창건을 봉축하며
중생구제의 서원으로 철야정진기도를
봉행합니다.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불자님들의 수희 동참 바랍니다.







몸 아픈자 몸 치유하고
마음 아픈자 마음 치유하고
실패한 자 다시 일어 납시다.

일 정 | 매주 토요일 철야기도
오전 11시 시작

입 제 | 첫 철야기도 2013년 11월 2일

문의 및 접수 | 033)342-3372
070-4155-3372

700고지 정상 약사기도도량 대 법 사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오원 2리 109-1번지

"행복한 가정 되려면 지혜롭게 소통해야"

이근후 명예교수, 포교연찬회서 발제

가족 간 소통을 통한 갈등을 극복해 행복한 불자 가정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포교원 포교연구실과 공동으로 10월 31일 '2013년 세미나 및 연찬회'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근후 이화여대 명예교수(가족아카데미아 원장)의 '불자가정의 가족 간 대화법'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비롯해, 이경애 청소년심리상담사 원장의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법', 서진숙 교수(이화여대 교육대학원)의 '부부 및 고부간 대화와 소통'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근후 이화여대 명예교수.

이근후 명예교수는 불자가정의 가족 간 대화법에 대해 "우선 상대에게 귀를 여는 자세를 가져야하며 발심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다. 입[口]과 귀[耳]를 조화롭게 하는 사람이야 말로 성인(聖人)"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명예교수는 가족 간 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자세로 팔정도와 무재칠보시를 제시하며 "지식보다 지혜로써 대화를 풀어나가야 하며, 불성이 열리면 곧 지혜가 열린다. 지혜로운 마음으로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경애 소장은 "부모의 유형에는 자애로운 부모, 엄격한 부모, 자애롭지도 엄격하지도 않는 부모, 자애로우면서도 엄격한 부모의 4가지 유형이 있다"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양육과 훈육이 다 들어가 있는 자애로우면서도 엄격한 부모다. 자녀의 성장을 도우려면 부모교육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나은 기자

불교여성개발원 이인자 前원장, 국무총리 표창

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정경연)은 지난 10월 28일 법무부 주최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 68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이인자 초대원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인자 원장은 불교여성개발원 교정교화센터 위원이자 경기대학교 디자인공예학부 명예교수로서 2004년에 서울구치소 교정위원에 위촉된 이래 총 112회 사형수 교화상담시행 및 미술교육지도, 간식, 그림도구 지원, 불우수용자 영치금 지원, 수용자종교집회 등의 활동을 통해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불교여성개발원 이인자 前원장

특히 사형수(724 이ㅇㅇ) 종교상담 및 그림 지도를 성실하게 이끌어, 2012년 10월 제41회 교정작품전시회 문예부문에서 대상을 타도록 한 공적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인자 원장은 "이 상을 제 개인이 받는 상이 아니라 10년을 한결같이 재소자 상담을 해온 불교여성개발원전체가 받는 상"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불교여성개발원 교정교화센터는 서울구치소 최고수 상담. 고봉중고등학교 불교반 법회 및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 맨토링, 여름·겨울 수련회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교화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데 앞장서 왔다. 이나은 기자

충북 대성사, 인연맺기 행사 마련

11월 16일 경내서 20쌍 맞선 자리 마련

충북 옥천 대성사(주지 혜철)가 충남 청양군과 손잡고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펼친다.

대성사는 11월 16일 경내에서 청양지역 미혼남성 20명과 중매카페 여성회원이 맞선 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혜철 스님은 "11월 9일까지 중매카페 회원을 대상으로 맞선 볼 여성을 선착순 접수 하는 중"이라며 "미혼 남성 가운데는 청양군청 공무원과 지역 정부투자기관 직원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대성사는 2005년 인터넷 중매카페인 '따뜻한 만남(http://cafe.daum.net/dasungsa)'을 개설해 매달 한 차례 선남선녀 인연맺기 특별법회를 마련해 지금까지 1천여쌍의 인연을 맺어줬다. 또한 올초 충북도, 충북도교육청과도 선남선녀 인연 맺기 협약을 했다. 이나은 기자

불교세계화, 조계종이 묻고 외국인이 답하다

조계종 사회부 국제팀, 외국어 가능자 대상 템플스테이 열어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사찰음식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 참가자들이 주최측과 외국인 불교의식집 정비 사업 등 이날 안건에 대해 대중공사를 하고 있다〈사진 오른쪽〉.

조계종 사회부 국제팀은 10월 26일 서울 진관사에서 외국어 통·번역자 15명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그간 불교를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으로 번역, 외국인들에게 홍보해 왔다.

이날 행사는 템플스테이 체험을 통해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들과 친밀한 인적 네트워크를 성립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를 주최한 조계종 사회부 국제팀은 "한국 불교가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넓히기 위한 첫 단계는 불교 의식집 통일, 홍보 전략 마련에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불교 행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 의견을 듣고자 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진관사 기획국장 도운 스님의 친절한 사찰 소개로 일정을 시작한 참가자들은 이후 연잎밥과 더덕샐러드로 사찰음식 만들기 체험을 했다. 참가자들은 직접 만든 연잎밥을 먹으며 요리과정의 간소함에 놀라고 한국 사찰음식에 감탄했다. 대다수는 템플스테이 참가가 처음이었다.

연등축제 때 일어로 통역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재일교포 양정연 씨(41)는 "일본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불교를 믿기는 하지만 한국처럼 종교가 일반인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자리잡지 못했다"며 템플스테이 등 한국 불교의 대중적인 문화 콘텐츠화에 부러움을 표했다.

조계종 홈페이지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맡고 있는 이연(31.동국대 중국어과 박사과정)씨도 "오늘 두 살배기 딸과 남편이 함께 참여했는데 자연과 더불어서 오랜만에 힐링받는 느낌이었다"며 "아이가 커서도 함께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에 굉장한 매력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도운 스님은 이후 참가자들과의 차담에서 "부처님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써 설법하셨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부처님처럼 불교를 전달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말 이전에 좋은 기운이 먼저 전달되듯, 템플스테이를 통해 느낀 마음의 넉넉함으로 그리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날 행사의 핵심인 대중공가 진행됐다. 템플스테이를 참여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삼귀의 등을 번역할 때 어떤 방법이 좋을지에 관한 토론이 오갔다. 참가자들은 "한글을 발음대로 번역하고 그 뜻을 영어·중국어·일어로 풀어준다는 주최측의 의견이 합리적"이라며 동조의 뜻을 나타낸 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의식에 동참하며 일체감을 느끼는 것이다"고 첨언했다. 윤미경 씨도 "직지사에서는 외국인이 템플스테이 신청을 하면 입재 이전에 프로그램에 관한 기본 사항을 숙지하는 시간을 따로 갖는다"면서 "원활한 템플스테이 운영을 통해 외국인 참가자들의 몰입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템플 스테이 운영에 있어서 △예약 시스템의 통일화 △상시 체험 가능 △음식의 다양화를 제안했다.

주최 측은 참가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까지 삼귀의, 사홍서원, 반야심경 등의 의식집을 통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배현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불교세계화 첫 단추는 의식집 통일부터

영·중·일어는 기본…러시아어까지 고려해 주길

한국불교 세계화 위한 다양한 의견 교유

대한불교삼보회, 첫 지도법사 배출

10월 20일, 삼보법사·삼보포교사 품수식

"삼보법사들은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홀로 떠나셨던 부처님의 거룩하신 그 길을 따르려 합니다. 중생의 근기에 따라 법을 설해 가는 곳마다 신심이 견고하고 발심하는 불자가 한량없이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40여년간 법회·선원 등을 통해 도심포교를 하고 있는 재가불자 신행단체인 대한불교삼보회가 첫 지도법사를 배출했다.

대한불교삼보회(이사장 엄근용)는 10월 20일 서울 정릉 삼보정사에서 '삼보법사·삼보포교사 품수법회'를 봉행했다.



대한불교삼보회(이사장 엄근용)는 10월 20일 서울 정릉 삼보정사에서 '삼보법사·삼보포교사 품수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정병조 금강대 총장이 증명법사로 제1기 삼보법사 13명, 제6기 삼보포교사 10명이 품수됐다. 법사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처음으로 배출된 13명의 삼보법사는 향후 법사인력이 부족한 군·교도소·병원·직장 등 포교현장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대한불교삼보회는 2002년 설립한 삼보사이버불교대를 통해 현재까지 100여명의 포교사를 배출했다. 또한 군부대·병원·포교원 등을 개설해 여러 지역에서 포교활동을 해왔다.

대한불교삼보회는 "최근 포교활동의 체계적 지원과 지도법사 양성의 필요성을 느껴 별도의 법사과정을 개설해 2년 이상의 포교경력을 가진 포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왔다"고 전했다. 이나은 기자

조계사·직장직능전법단 11월 23~26일 바자회

소년소녀가장 학비 마련

서울 조계사(주지 도문)와 조계사 직장직능전법단(단장 이선묵)은 11월 23~26일 경내에서 '2013 나눔으로 행복한 동행'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제3세계 어린이들과 국내 소년소녀가장들의 학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바자회다.

행사에는 지난해 조계사 직장직능 전법단이 진행한 33인 CEO 초청강연회에서 강연을 펼친 대표기업들이 참여한다. 천호식품, 한경희 생활과학, 샘표식품, 블랙야크, 대성하이텍, 영도벨벳 등에서 후원한 물품을 만날 수 있다.

수익금 전액은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과 사단법인 로터스월드 등을 통해 종로구 소년소녀가장들의 학비와 국외 어려운 어린이들을 지원하는데 쓰인다. 이나은 기자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 창종 2주년 기념법회

종 정 명진 석법운 대종사


종 정 명진 석법운 대종사

귀의 삼보하옵고…

새로운 불교, 혁신적인 종지종풍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석가세존으로 부터 법맥을 이어온 저희 종단은 구태불교를 개혁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의 모습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불교 중흥과 불교세계를 염원하는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은 본 종단과 함께하실 제방의 청정승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원로의장 보 운
원로총무 송담 원로위원 월현
원로위원 월각 원로위원 정인
원로위원 수덕

총무원장 (대행)
행정원장 도경 사정원장 법륜 문화원장 진송
교육원장 청담 포교원장 동화
비구니원장 법화 청명 비구니부원장 설봉

총무원
총무부장 (대행) 재무부장 월산
교무부장 선각 문화부장 한담
규정부장 혜오 법규위원장 설산
환경위원장 혜득 신도회장 조태흠
사업부장 청명

종무원
경북1종무원장 월정 경북2종무원장 성덕
경북3종무원장 혜득 경북4종무원장 해산
대구1종무원장 광덕 대구2종무원장 해산
서울1종무원장 일휴 경기1종무원장 원담
충청1종무원장 계현 강원1종무원장 연정
전라1종무원장 법도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 창종 2주년 기념법회안내
◆ 일시 : 2557년 11월 11일 월요일(음 10.9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북 칠곡군 양목면 복성리 1095 동명사 054)974-2605

- 입종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등록 신청서 1부
● 반 명함판 사진 3매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총본산 (총무원)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1095 동명사 ☎ 054)974-2605 / fax 054)974-2705

호법봉사단원 모집

삼보에 귀의하옵고

본 대일불교조계종 종단 산하 선원에서 호법봉사단을 창립하여 그 동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제방에 계시는 종단 여러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미력하나마, **불법수호**와 **불교권익**을 지키는데 목적을 두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봉사단은 시봉자의 자세로 일선 '포교활동'과 '사회정화, 복지구호' 증진을 도모하고, '학술, 문화 교육' 사업을 위한 '출판물간행' 사업도 함께 병행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저희 봉사단에 제방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며 언제나 법향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대일불교조계종
호 법 봉 사 단
선원장 구룡 합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8-1번지 (KT사옥 2층)
전화 053)768-1339, 3173 / 전송 053)741-1346
핸드폰 010-5367-1340 (선원장)

건장사(建將寺)
◇ 척추,골반,관련 통풍 효과 입증 ◇ 웰강 상황 쑥뜸방 운영
◇ 효과가 입증된 훈증침대 (특허출원번호:제10-2011-011722호)
스님은 무보시로 모십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82-2000번지 건장사 주지 청진 합장
053)763-7510 / 011-572-4438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일불교"를 검색해 보세요.

광진구민 삶의 질 향상 힘써온 '장수' 기관

자양종합사회복지관 개관 20주년





자양종합사회복지관은 개관 20주년을 맞아 11월 14일 오후 3시 건대동문회관에서 '개관 20주년 기념 후원자, 자원봉사자의 밤'을 개최한다. 복지관 이용자들이 20주년을 기념하고 있다(사진 왼쪽). 자양종합사회복지관 전경과 장영심 관장(사진 오른쪽).

서울시내에 있는 100여개의 종합사회복지관 중 불교계 복지관은 15곳이다. 그 가운데 자양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장영심)은 20년 세월동안 광진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온 '장수' 기관이다.

자양종합사회복지관은 1993년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 최초 위탁운영을 해오다 1997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용인 대각사가 운영지원 사찰로 2013년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1993년 개관 당시 자양종합복지관은 저소득층의 주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자양 3동에 위치하고 있었다. 설립초기 복지관은 가족기능강화, 재가복지, 지역사회운동, 사회교육 등 사회복지 기본사업을 중심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경험을 쌓았다.

이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위탁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무료경로식당, 부설 효지어린이집 등을 개소했으며, 광진노인주간보호소, 이동목욕봉사센터 등을 개설해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뒀다.

복지관은 뉴타운개발 등의 변화로 주변의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혼재된 지역으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특성화 사업들을 개발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 사업을 확대해 서울시 교육청지정 대안교육위탁기관인 '나란타학교'를 2006년에 개교하고, 효지어린이집을 신축 확장해 이전했다.

나란타대안학교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최초 위탁형 대안학교다. 학교부적응으로 학교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불교적 가르침을 적용해 사회성과 자존감이 저하된 학생들을 위해 108배 수행, 명상교육을 특성화해 내적성숙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관은 자녀뿐 아니라 부모 및 가족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상담실 '해피마인드(Happy Mind)'를 운영하면서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거나 대인관계, 진로문제, 자녀양육, 가정문제 등 상담을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 가족 간 의사소통을 촉진해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심어주는 부모역량강화프로그램 '우리가족 뉴스타트(New Start)'도 진행 중이다. 사회성발달이 어려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위해 월 1회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스님이 직접 명상지도와 상담을 도와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안학교·가족관계증진 사업 등 불교적 마음철학 담아내

11월 14일 20주년 기념행사

이처럼 자양종합사회복지관이 가족·청소년 정서지원에 힘을 쓰는 데에는 장영심 관장의 복지마인드에서 비롯된다.

1980년대 독일서 13년간 청소년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장 관장은 국내의 복지환경이 물질적 지원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장 관장은 "한국인들은 물질만능주의, 일등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팍팍한 환경은 곧 가정을 무너뜨리고 아이들의 정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처럼 경제적 빈곤보다 정신적 빈곤이 더 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관은 불교적 마음철학이 들어간 프로그램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대외 지원사업에 선정돼 프로그램의 전문·다양화를 시도했다. 서울시공동모금회지원사업에 선정된 '위기가정지원 광진 SOS 구조대', '다문화가정 하나로 사업-우리는 UCC'를 비롯해 한국암웨이 뉴트리라이트 건강지킴이사업 '튼튼해가 뼜습니다!' 등을 실시해 저소득가정 및 소외이웃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했다.

이밖에 복지관은 2002년부터 광진푸드마켓·뱅크사업을 최초로 운영해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식품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결과 복지관은 '2001 서울시사회복지관 평가 우수복지관 선정' '2012년 서울시 희망온돌사업 추진 최우수기관선정' '광진푸드마켓 운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나란타 대안학교 2012년 컨설팅 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결실을 맺었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자양종합사회복지관은 개관 20주년을 맞아 11월 14일 오후 3시 건대동문회관에서 '개관 20주년 기념 후원자, 자원봉사자의 밤'을 개최해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간다.

장영심 관장은 "향후 복지관의 미션을 '나누는 기쁨, 누리는 행복'으로 삼았다. 그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겠다. 좋은 평가를 받은 프로그램은 더욱 발전시켜 광진구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신사종합사회복지관, 늘픔가족성장연구소 개소

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가족치료상담센터 열어



신사종합사회복지관은 가족상담치료센터 부설 '늘픔가족성장연구소'를 개소했다.

신사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련)은 가족상담치료센터 부설 '늘픔가족성장연구소'를 10월 30일 개소했다.

'늘픔가족성장연구소'는 관내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치료 활동을 펼쳐오던 기존의 치료센터를 노인·부부·가족 등 전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성장연구소로 탈바꿈한 것이다.

'늘픔가족성장연구소'는 심리검사, 언어·미술·음악·인지·가족치료, 진로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부모교육, 사회성향상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녀와 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신사종합사회복지관은 "'늘픔'은 '앞으로 좋게 발전할 가능성'이라는 의미를 가진 순 우리말로서 본 연구소가 지향하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며 "지역 내 다양한 마을공동체와 더불어 마을 안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사종합사회복지관장 보련 스님은 "올 해 마을지향복지관 사업을 전개하면서 협력적인 마을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늘픔가족성장연구소 또한 하나의 마을공동체로서 지역 안에서 성장해나가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활약을 기대했다.

한편 복지관은 같은 날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지역중심 복지생태계 조성사업'의 운영기관에 선정돼 서울시복지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역중심 복지생태계조성사업은 소규모 복지기반 취약지역의 지역주민과 지역 내 민관 네트워크 및 행정이 협력해 주민이 주도하는 복지공동체 조성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나은 기자

복지 단신

캄보디아, 사회적기업 미용실 개원

로터스월드 10월 26일 개원, 전문미용인 양성에 주안



캄보디아 빈곤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사회적기업 미용실이 열렸다.

캄보디아 빈곤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미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로터스월드(이장 성관)가 사회적기업 형태의 미용실을 10월 26일 개원했다.

이번에 개원된 미용실은 지난 2011년부터 함께일하는재단,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등의 지원으로 로터스희망미용센터 자립을 위해 마련됐다. 전문미용인 양성 및 수익금을 통한 사회적 환원을 목표로 캄보디아 유일의 한국인 미용직업교육기관의 성격을 지닌 사회적 기업형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미용실은 미용센터는 1층에 자리했으며 미용센터는 총 3층으로 이루어져 1층에는 미용실, 2층과 3층은 청소년 교육장 및 실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1층 미용실은 116㎡(35평) 규모이며, 최대 8명의 손님을 받을 수 있고, 샴푸실 등을 갖추고 있다.

로터스월드에서 운영하는 미용센터는 지난 2013년 3월 캄보디아 시엠립 교육부로부터 인증을 받았으며(시엠립 최초), 현재까지 약 7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여 현지 미용실 및 한국인 미용실에 취업해 빈곤해소를 위한 경제적 자립 기반에 도움을 주고 있다.

로터스월드는 "미용실 개원을 위해 시장조사를 진행해 손님들의 성향을 파악했으며, 라디오 광고 등 홍보활동을 진행했다"며 "또한 한국제품의 미용용품을 사용해 다른 미용실과 차별화를 두었으며, 한국인 미용사를 채용해 고급화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강북노인복지관, 전통한마당 개최

경로의 달 행사, 1400여 어르신 참석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개최한 축제에 참가한 주요내빈들이 어르신들께 점심으로 제공될 비빔밥을 만드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천태종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소지)은 10월 24일 강북구민운동장에서 '강북구 전통한마당,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제17회 경로의 달'을 맞이해 열린 것으로 14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는 식전공연으로 풍물동아리 공연, 포크댄스반 어르신들의 공연을 비롯해 방송댄스, 경기민요 등 문화공연 등이 펼쳐졌다. 또한 행사장에서는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어르신들이 동심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윷놀이, 투호, 구슬치기 등 옛추억 한마당이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관장 소지 스님은 "경로의 달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이나은 기자

교단자정센터 제안, 한국재가불자 10월 선언문

대한불교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선거는 민의의 왜곡, 사부대중의 소외, 종법 위반으로 치러진 선거이다. 금력, 권력, 폭력, 계율파괴에 철저히 대항하여 청정 교단의 횃불을 밝게 하자.

거의 모든 종도들이 소외된 상태에서 치러진 총무원장 선거가 끝난 지 20일이 경과하였다. 종도들이 선거에서 소외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교도라는 이유로 국민들로부터 함께 비난을 받고 있다. 국민의 기대와 불자의 희망은 안중에도 없는 작금 조계종단 상황에 대한 해석과 해결책을 내놓기 위하여, 그동안 교단자정센터 이사회는 수차례의 회의를 거치며 고민하였다.

그 결과 금력, 권력, 폭력, 계율파괴를 개의치 않는 현 종단 집권세력은 물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에서 눈멀게 하고 허망한 중도 화쟁의 구호로 혹세무민하는 '자성과 쇄신결사'에 대항하여 정견을 세우고 종도들의 적극적 참여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하여 제 34대 총무원장 선거 전반에 대한 전문가들의 법리적 검토와 우정국 공원에서 청정승가를 위한 41일 간의 정진을 하였던 대중들의 의견을 모아 10월 선언문을 준비하였고, 34대 총무원장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1. 법리적 관점에서 분석한 제 34대 총무원장 선거과정과 결과

자정센터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선거과정에서의 혼탁 상을 떠나 오로지 법리적 관점에서 제34대 총무원장 선거를 분석하였다.

먼저 교구종회에서 본사주지 등에게 선거인단 선출을 위임한 행위의 절차적 위법성을 살펴본다. 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인단은 교구종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선출은 어의상 선거를 뜻한다. 교구종회는 선출직 교구종회의원을 포함하고 있는 대의기관이므로 위임은 금지된다. 선거법 제7조는 교구본사 종무원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사주지 등이 선거인단을 지명하는 것은 불법이다. 선거인단 선출 후 후보등록이 이루어지던 과거와 달리, 현행법은 총무원장 후보자가 등록하여 확정된 이후에 선거인단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총무원장 후보자와 선거인단을 지명하는 구체적 위임이 아닌 본사주지 등에 대한 포괄적 위임은 가능하지 아니하다.

다음으로 교구종회에서 다수결로 본사주지 등에게 선거인단 선출을 위임한 행위의 실체적 위법성을 살펴본다. 현직 총무원장이 출마한 상황에서 총무원장이 임명권을 갖는 본사주지 등이 선거인단을 지명하는 행위는 위법하다.

끝으로 총무원장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의 실질적 위법성을 살펴본다. 자승총무원장은 6월 25일 중앙종회 개원식에서 '소임에 대한 마음을 비웠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에 고무되어 당일 불교광장 발기인대회가 개최되었으며, 7월 11일 불교광장 출범식에는 20개 교구본사 주지가 지도위원으로 참여하였고, 8월 5일 추대위원회 구성당시에는 18개 교구본사 주지가 추대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출마선언 당시인 9월 16일에는 16개 본사주지가 불교광장에 참여하였다.

이는 당시 총무원장 자신의 불출마를 전제로, 선거 관여가 금지된 본사주지를 포함하여 대다수를 규합한 단체를 새로이 급조함으로써, 다른 총무원장 후보자가 자유로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고, 결국 자신이 출마하여 불교광장 소속 본사주지들과의 타협으로 당선을 얻어냈다. 선거과정 자체가 기만적이고 선거관여가 금지된 본사주지를 이용한 위법이 있다. 또한, 승적관리를 맡은 총무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승적부 자료를 가지고 다른 후보자의 승적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반면에 자신의 지지기반이 될 수 있는 집행유예 중에 있는 승려에게는 종무원법상 주지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지로 임명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결론적으로 제34대 총무원장 선거는 조계종법이 정한 바의, 대중공사에 의한 선거를 치르지 않음으로써 대한불교조계종의 대표성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다. 즉 **자승총무원장은 대한불교조계종의 대표성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2. 종단의 대표성이 부재하고 신뢰성을 상실한 현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은, 자승총무원장이 스스로 2012년 6월 7일에 한 약속대로 총무원장 직선제를 위한 종헌개정을 완수하고 임기와 상관없이 물러나는 길 뿐이다.

종단 대표성이 부재한 총무원장체제의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길은, 현재로서는 그나마 민의의 왜곡이 적은 직선제로 선거를 하는 방안뿐이다. 우선은 10년 이상의 승랍을 가진 스님들이 모두 참여하고, 다음으로는 비율 범위 내에서 재가종도들이 참여함으로써, 순차적으로 명실상부하게 사부대중이 종단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추후에 종단의 대표성이 확보되고 자정활동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사부대중에 의한 총무원장 추대제로 선거규정이 전환되더라도 현재로서는 직선제가 유일한 해결책이다.

또한 금력과 권력 그리고 폭력이 난무한 계율파괴의 현 상황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와 비판도 행하지 아니하고, 추상적인 제도로 현 상황을 덮으려 하는 '자성과 쇄신결사'는 즉각 해체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사리분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종단을 만들어야 한다.

3. 교단자정센터는 청정한 출재가 종도들이 함께하고 대중공사가 가능한 새로운 교단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우선 재가불자 운동을 시작한다.

정법이 아닌 종단사태에 침묵하고 순응하는 재가자가 결국 거룩하지 못한 출가자를 만들어 낸다. 종단의 청정성을 전적으로 출가자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재가자 스스로 청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고, 지속적인 운동을 선언한다.

첫째, 부처님 법에 합당한 좋은 보시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사찰 구성원이 범계행위에 연루된 사찰에서부터 일정기간 보시하지 않기 운동을 펼칠 것이며, 만일 그곳이 관람료 사찰이라면 '관람료 내지 않기' 운동을 펼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문화재 관람료 사찰이 그 수입의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는다면, 그 전체 사찰에 대하여 '보시하지 않기' 운동을 펼칠 것이다. 아울러, 승가의 훌륭한 학인과 수좌들을 예경하고 청정한 포교당을 지원하기 위한 보시운동과, 지역사회와 불교계에 좋은 역할을 하는 사찰에 적극적으로 보시하기 운동을 펼칠 것이다.

사찰이 지금처럼 문화재 관람료 수입에 의지하는 상황하에서는, 스님들이 승가공동체 본연의 청정성을 다지고 포교에 전념하기 보다는 주지 임명권자에게 종속하게 된다. 또한 전법 대상이 되는 신도와 일반 국민들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걷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우선, 전통문화재 교육의 당연한 수혜자인 청소년에 대한 관람료 징수를 폐지하고, 관람료 수입의 재정공개 및 재정 투명화를 촉구할 것이다.

둘째, 자승총무원장이 작금의 시대적 사명을 도외시하고 지난 33대 집행부에서와 같은 처신을 한다면, 교단자정센터는 즉각 불복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교단자정센터는 현재 출가, 재가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조계종도들과 불자들의 정견을 모으고 있다. 변호사 불자모임인 통합다르마 법우회와 더불어 10인의 변호인단을 1차로 구성하였다. 만일 자승총무원장이 본연의 책무를 방기한다면 즉각 불복운동을 전개할 것과 아울러 제34대 집행부에 대한 불복운동을 하도록 법률적 지원을 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셋째, 재가자가 재가자답게 성장하는 법회와 정진을 시작할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더욱 자주 모여 법을 배우고 익혀서, 역사에 부끄럽지 않고 신실한 재가자운동의 당간을 세우고자 한다. 믿음과 수행 정진을 기본으로 하는 재가자 운동만이 오래도록 바르게 갈 수 있으며, 청정승가를 성취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법을 위해 정진해온 재가불자 단체와 지도자, 개인을 만나 의견을 모아 나갈 것이며, 한국재가불자의 수행과 청정교단을 위한 용맹정진을 다시 시작할 것을 선언한다.

2013년 10월 31일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02)2278-3671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501-13521 교단자정센터)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의 길을 가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해인사 법문

덕현 스님(전 길상사 주지)

마음을 깨닫는 길, 그리고 이를 잘 쓰는 일. 불법을 구하는 과정에서 참구해야할 대상은 오로지 마음이고 이를 위해 사라져가는 것에 스스로를 옭매지 마라고 덕현 스님은 말했다. 홀연히 가는 바람의 길 속에 이미 휴식이, 편안함이 있다고도 했다. 이방인으로서 해외에서 살아가는 교포들에게는 더욱 의미있게 다가왔을 말이다. 10월 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해인사에서, 덕현 스님은 불자로서 기댈 '참고향'이 어딘지 일러주었다. 배현진 기자

우리 일상은 무의미하고 지루하며 그저 하염없이 벌어지는 우연의 장난 같아 보일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 산다는 일은 그 시종이 성불을 향해서 나아가는 유장한 구도의 여정이며, 그것도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 시대와 터전을 살아가는 뭇 생명들이 모두 어울려 대승의 반야선을 함께 타고 저 구경열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기나긴 항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불자들에게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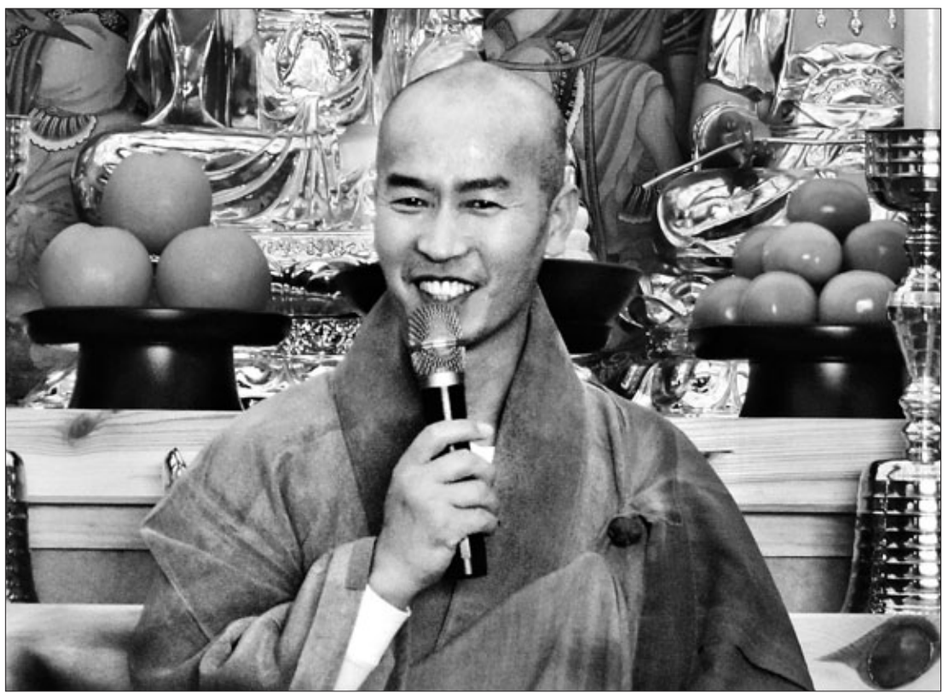
문명학자 토인비는 20세기의 가장 큰 사건은 원자폭탄의 발명도 아니고, 세계대전도 아니고, 컴퓨터의 대중화도 아니고, 바로 불교가 서양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부처님의 다르마가 인류의 정신문화 유산 가운데 가장 가치로운 것이고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이 위없는 진리이며 또 우리 모두를 이 현대의 문명적 혼란과 질곡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실다운 가르침이라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나 진정성 있는 믿음을 지니고 있습니까? 사실은, 동시대의 교육과 문화 속에서 성장하고 살아가는 많은 한국인들이, 우리의 전통문화 속에, 우리의 맥박 속에, 우리의 유전자 속에 숨 쉬며 살아있는 불교를, 그저 낡은 역사 속의 케케묵은 것, 첨단의 서구문명이나 현대과학에 비하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실용적이지 않은 어떤 사상체계나, 혹은 매우 비사회적이고 도피적이며 염세적인 종교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실천적 검증을 도외시하고 어떤 도그마나 계시 따위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복과 구원을 위하여 영웅적인 용기와 헌신으로 진리를 찾아냈던 옛 모범을 믿고 따라가, 스스로 그것을 증험하는 일입니다.

저는 근자에 가끔 서양 여러 나라들을 다니며 적지 않은 외국인들을 만나보는데 그들에게서 오히려 우리 불교의 현주소와 그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스티브잡스나 엘 고어 전 대통령 후보나 리차드 기어 같은 사람들이 불법에 귀의하고 불법과 선을 닦으며 우리 현대사의 주역들로서 시대의 문명적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동유럽 같은 데 가 보면 거의 대부분 번잡한 도심의 넓지도 않은 사무실이나 사옥 같은 공간들을 살려 선원을 만들고, 그런 데서 어렵사리 예불을 모시고 법회와 수행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진지함과 순수한 열정은 몹시 가슴을 뭉클하게 했고 우리의 처지를 냉정히 돌아보게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곳을 찾은 사람들 대부분이 젊은 사람, 사회의 엘리트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서의 이념적 대립구도를 막 벗어난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성인들이, 한창 삶의 현장에서 애써 일하는 젊은이들이, 그리고 남녀가 앞다투어 함께 와서, 전혀 익숙하지 않을 가부좌를 하고 앉아 참선시간을 배겨내고, 잘 되지도 않는 발음으로 반야심경이나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그 긴 중세유럽사회의 암흑기를 빠져나와 근현대 과학기술문명의 시초를 열었던 사람들이 왜 지금 불교에 심취하여 아픈 다리를 꼬고 앉아 한국말로 천수경을 외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사고하며 직접 자신이 해보고 경험해봐서 옳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불교가 케케묵은 것이고, 비논리적인 것이고, 실천해보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알 수 없는 가르침이 결코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누구든 믿고 실천해보면 그 결과를 스스로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진정한 과학이요,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여러분들에 힘주어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불법의 위대성이나 과학성, 진리성, 그리고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덕현 스님은 … 1989년 법정 스님을 은사로 송광사로 출가했으며 운문암, 수도암 등 제방 선원에서 선수행을 하고 여러 해를 산중의 수행처에서 홀로 정진했다. 법정 스님 입적을 전후하여 2년 정도 길상사 주지직에 있었으나 지금은 다시 산으로 돌아가 봉화와 음성에서 법화도량을 일구고 수행공동체 법화림을 꾸려가고 있다. 편역서로 〈법구경〉이 있다.

업식을 나로 여기고 꾸역꾸역 살지 않고

불교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누구신가요?

이런 질문 앞에서 머뭇거리고 답이 궁해지면 안 됩니다. 불법은 이 모든 것 속에 스며있고, 이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경전이나 고준한 법문 속에서나 있는 말이라고 치부하고 한 귀로 흘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기 법상 위에 시계가 하나 있지요? 그렇지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시계라고 하는 것은 이름, 말일 뿐입니다. 그러니, 또 묻거니와, 진짜 이것이 무엇입니까?

뜯어보면 쇠붙이나 플라스틱으로 요리조리 모양을 만들어내고 건전지를 붙여가지고 그 에너지로 바늘을 움직이게 한 물건이잖아요? 그런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만도 아닙니다. 더 나눠보면 분자, 원자들이고 미립자들이고 에너지들이고 결국은 텅 비어서 없는 것이고, 결국 모두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보지 않으면 이 형상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지 않으면 이 시계 소리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지지 않으면 이 물질은 인식되지도, 존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떠나서 이것이 있지 않습니다. 현대의 양자물리학은 물질은 그것을 보고 경험하는 자에 의해 창조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합니다.

2천 6백여 년 전, 부처님은 화엄경에서 모든 것이 다 마음으로 지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다 마음이고, 마음 안의 일이고, 마음 작용인 것이고, 마음의 기능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불교를 아는 것이고, 부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매일매일 부처님을 만나고 순간순간 부처님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매일 이별하는 삶에서 무상 꿰뚫어 바람처럼 살아가야

우리가 불자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을 바르게 쓰는 일입니다. 사실은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게 무엇이냐?' 했을 때 '시계'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이 이름 붙이는 것이고, 그저 말일 뿐입니다. 선禪은 불법의 정수이고, 말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그곳에서 활로를 엽니다. 심지어는 구경의 그것을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 부처라고 말하는 것, 법이라고 말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이 봅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눈을 감고 장미 한 송이를 떠올려보십시오. 눈을 감았음에도 장미 한 송이가 분명 보이잖아요? 그걸 눈이 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말은 육안으로 대상을 볼 때에도, 눈이라고 하는 창을 통해서 다른 무엇이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여러분이 하는 생각도 뇌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뇌를 통해서 다른 무엇인가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죽고 뇌가 썩어 없어져도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어도 썩거나 불타 없어지지도 않는 이것이 무엇이냐고요? 이 세상 이 모든 것들을 그 무엇이 하고 있느냐고요? 그것은 모양이 없어 볼 수도 없고 개념화하여 이름을 붙일 수도 없지만, 우리가 부득이 마음이라고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그저 '마음'이라고 이름붙일 줄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과연 그게 무엇인지 정말로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여실히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짜 불법의 반입니다.

나머지 반은 무엇인가? 그 깨달은 마음을 잘 쓰는 것입니다. 잘 쓴다는 것은 마음을 제대로, 지혜롭고 자비롭게 작용하도록 해서 중생을 생사의 괴로움으로부터 구제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본래 지닌 이 마음을 등지고 이토록 보잘 것 없는 육신, 업식을 나로 여기고 울며불며 꾸역꾸역 살아가는 것이 중생인데, 그 환상과 미망을 깨트리고 진짜 내가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보는 이 주인이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확철히 깨닫고 그것을 바로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얻은 소중한 인생을 어물어물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러다가는 불법의 정수 선이 살아있는 한국 땅에서 한국 사람들이 곧 서양 사람들에게서 불교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미래를 향해 가능성과 희망이 있는 종교는 불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제의 인구조사 결과로도 개신교 다음의 종교는 불교라고 합니다. 미국의 불교 인구는 천만입니다. 그들 대부분이 계를 받고 불교에 입문하여 실제로 수행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불교에 호감을 가지고 있다든지, 가끔 절에 가보기도 하기 때문에 불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불자란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법화경에서 말하듯이, 아직 깨닫지 못한 우리는 길 잃어버린, 집과 부모를 잃어버린, 자기가 억만장자의 아들인 줄도 모르고 정처없이 떠돌면서 허접한 것들을 비굴하게 구걸하고 다니는 거렁뱅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참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것이 무엇인지만 깨닫는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의 정체를 제대로 아는 일이고 참 부처님을 뵙는 일이고, 스스로 부처가 되는 일입니다. 참 불자가 부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살활자재(殺活自在)한 안목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 눈먼 중생을 눈뜨게 하는 그것이 정녕 이 세상에서 가장 고차원의 일이고 우리가 유일하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대장부의 소명입니다. 진짜 이 일을 믿고, 그 참 눈깔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참구하고 수행하는 사람이 불자입니다. 이름만, 무늬만 불자는 불자가 아닙니다.

하여, 지금 눈앞의 하찮은 것들, 잠시 있다가 사라져가는 것들에 얽매여 연연하지 마십시오.

삶이란 매일매일 이별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다 분명 무상하지만, 그 무상하다는 것이 허무하고 공허하다는 뜻으로 새겨져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만남을 향해서 낡고 사라져가는 것들을, 내가 의지하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으며 알고 있던 것들을 제때에 놓아버려야 하는 길입니다. 인생길에서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간다는 것은 그동안 묵었던 것들, 내가 딛고 있던, 알고 있던 것들을 뒷발로 박차 걸음걸음 이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만남과 이별은 순간순간 멈추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에 한 순간도 어딘가에 붙들려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당당하게, 활기차게 수행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상을 꿰뚫어 무상의 길을 닦아 가는 위대한 구도자이고 불자이고 부처님입니다.

아무도 자기의 고향땅에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누구도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고 한 옛 철인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은 다 변해가고 있고, 우리가 더듬을 수 있는 시공 속에서 어디멘가 하고 고향을 찾으려 한다면, 그런 고향은 없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 인생의 의미나 목적을, 고향 소식을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의 걸음걸음, 일거수일투족 속에서 찾아 누리면서 기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넘어 본질의 차원에서 보면, 꽃과 열매가 벌써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마십시오.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마십시오.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바람의 길을 가야합니다. 나약한 것들이 늘 어딘가에 안주하려고 하고 걸핏하면 그만 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휴식과 안락은 정지해버린 공허 속에 있지 않습니다. 바람은 쉬려고 하면 벌써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물에 걸린 것보다 더 부자유한 것입니다. 눌러 있던 자리를 즉시즉시 놓아버리고 어디에도 집착 없이, 걸림 없이 자유롭게 나아가야 합니다. 바람의 휴식은 그 속에 있습니다. 안락이 그 여로에 있습니다.

참고향의 길을 바람이 되어 가십시오. 여러분 모두 이 길에서 만나게 된 인연에 서로 감사하며 근본의 불심을 잃지 말고 가십시오. 이렇든 저렇든 스님들을 잘 믿고 의지하고 또 어떤 때는 스님들을 경책하여 정신차리게도 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대승승가를 이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자항(慈航)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최고 유망 전문자격증!

직업능력 개발원 등록 NO.2008-0538

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을 위한 특별과정

■ 주관 및 시행 : 한국심리상담협회
■ 수험자료제공 : 한빛자격교육원 「부설심리상담교육원」
■ 시 행 일 정 : 2013년 12월 14일(토요일) 오후 2:00~4:00
■ 시 험 장 소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춘천, 제주, 기타 「전국 동시실시」
■ 검정방법 및 합격기준

구분	시험과목	출제문항	합격기준
1차 시험	ƒ심리학개론 ƒ임상심리학 ƒ이상심리학 ƒ교육심리학	각 과목당 25문항 (총 100문항)	1, 2차 동시 시행 (절대평가)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2차 시험	ƒ심리상담 및 진단실무	단답형 및 O, X형 (20문항)	

☞종교지도자(스님)에게는 5% 가산점이 인정되며 합격 후 직무연수 교육은 재택으로도 가능합니다.

■ 등록대상 : 스님 및 불교관련 업무자로 심리상담사 1급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분

현대사회는 물질문명이 풍부해지면서 정신건강과 정신장애에 관련된 문제가 아동이나 청소년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성인부부, 직장문제, 가정문제, 노인문제는 물론 **종교단체(사찰, 교회)등에서도 가정사역, 치유사역 등 상담과 관련 된 프로그램이나 행사 등이 크게 확산되어 가는 추세이고 이에 심리상담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및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종교 지도자님 및 종교관련 분야 업무자들에게 크게 부합되는 자격증이라 사료됩니다.** 「합격을 위한 특수문제 별도 제공해 드립니다」

심리상담사 자격취득 등록문의 한빛 자격교육원 02)547-5346

통신판매 NO. 제2012-서울광진-0873호

Hwalbup Apitherapy Correct Master

벌(蜂)침관리사

일침 이구 삼약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

벌침(蜂)관리사란?

벌(蜂)꽁무니에 있는 침을 손과 핀셋으로 압통점 및 경혈에 직침과 자침을 하여 일침이구삼약(침/뜸/약)의 동시 효과로 밸런스가 무너진 몸의 균형을 신속히 회복되도록 하는 방법으로써 활법 교정술과 접목되면, 몸의 자연 치유력이 평생 유지되어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벌침관리 전문가다.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 바른자세와 근육론 / 경혈론 / 증상론 ● 벌(蜂)침의 척추신경 / 경락의 활용법 ● 척추와 아시혈 찾기 / 주의사항 ● 활법교정과 벌침의 직,자침 실기 ※ 특강 :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 교육기간 : 6주과정 (토) 오후 1시 ~ 5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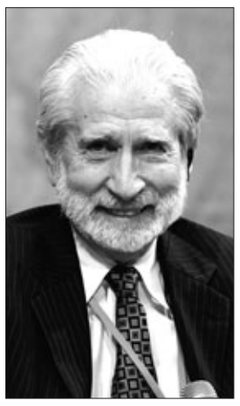
▶ 특별강사 : KBS / MBC출연 /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 평생건강에 관심과 질환으로 고생하는 자
▶ 특 전 : 봉산물 및 가축(봉침)용 양봉기술 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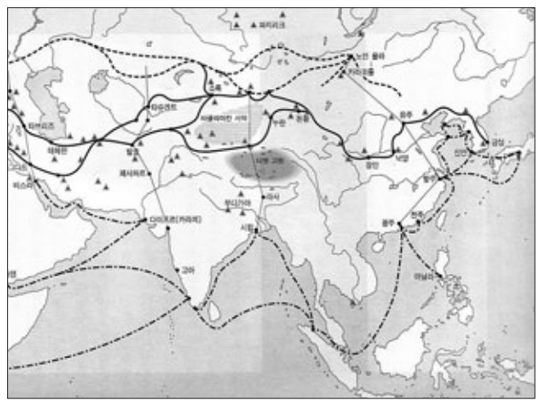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0-3685-1730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불교, 실크로드 순환로 따라 해상 전파”

실크로드 순환로 연구 중인 루이스 랭카스터 교수 주장





루이스 랭카스터 교수〈좌〉는 신라 경주가 실크로드 순환로 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밝혔다.

국제적인 학술대회에서 통설로 자리한 불교의 육로 전파 보다 해상을 통해 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계적인 불교학자인 루이스 랭카스터 미국 버클리대 명예교수는 10월 29일 호텔현대 경주에서 열린 ‘실크로드 위의 인문학, 어제와 오늘’ 국제인문 · 문화축제에서 “불교가 해상을 통해 주로 전래됐으며 현재 실크로드의 이미지는 상당부분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랭카스터 교수는 ‘실크로드와 불경의 전파 – 혜초의 구법여행과 대순환로’ 주제 발표에서 “혜초 스님이 인도와 중국을 여행한 기록을 보면 해상로를 따라 인도로 갔다가 내륙을 거쳐 중국으로 돌아온 것을 알 수 있다”며 “실크로드는 비단길과 해양로를 함께 묶어 동과 서를 잇는 유라시아의 ‘대순환로’ 였다”고 지적했다.

랭카스터 교수는 “혜초 스님이 한국에 돌아오지 않아 한국에서 해양불교가 알려지지 않았다”며 “당시 남중국에서는 해로를 통해 불교와 같은 새로운 문화와 문물이 다양하게 유입됐다”고 말했다.

랭카스터 교수는 “달마 대사 또한 전승 경로가 바닷길을 통했다”며 “달마대사는 카슈미르 태생이지만 중국 남단의 광저우(廣州)를 통해 맨 처음 중국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고 소개했다.

랭카스터 교수는 “이러한 남중국의 불교는 한국과 일본과 교류하는 이들을 통해 다시 전파됐다”며 “당시 국제 교역은 ‘해상’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며 “실크로드의 사실상 주거래 품목인 향료만 하더라도 육로 수송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불교 또한 육로와 해로 중 해로의 비중이 높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랭카스터 교수는 불교의 해상을 통한 유입으로 인한 변화의 예로 관음보살상의 여성성화와 비구니 교단의 동아시아 전파 등을 들었다.

랭카스터 교수는 “당시 광저우행 상선을 통해 불교가 유입됐는데 특히 비구니 교단

혜초 · 달마도 바닷길 이용해

광저우 비구니교단 등 증거

관음보살 여성화 등에 영향

이 시작된 사건이 있다. 중국에서 비구니 서품식에 필요한 10명 비구니 중 1명이 모자라자 해상 무역상을 스리랑카로 파견했으며 그가 광저우로 비구니 스님을 모셔와 교단이 만들어진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랭카스터 교수는 “성별이 없는 관음보살을 뱃사람들이 바다의 모신으로 인식하며 여성화가 진행돼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랭카스터 교수는 스리랑카 항구들에서 바다를 접한 관음보살상들이 발견되고 있음도 밝혔다. 랭카스터 교수는 불교전래 연구에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연안경로를 밝히는데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현재 UC버클리에서 ‘전자문화지도’(ECAI) 중 ‘해상불교지도(Atlas of Maritime Buddhism)’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며 실크로드 기점으로 경주를 재조명하려는 한국학계에도 긍정적인 말을 꺼냈다.

랭카스터 교수는 “실크로드는 대순환로이기에 순환로 상 어느 곳이나 기점이 된다”며 “하지만 이 대순환로의 중요한 일부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불교미술학 차원에서 분석한 임영애 교수(경주대, 중앙아시아학회장)는 “실크로드 미술에서 간다라미술이 서에서 동으로 유입된 것만이 아니라 동에서 서로의 유입도 있어 상호교류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실크로드의 중앙아시아는 단순 통과지가 아니라 독특한 양식의 생산지라는 새 개념을 말했다.

임 교수는 “통일신라에서 유행한 중앙아시아 불교 조각은 특유의 비사실적인 옷 주름이 형성되면서 과장된 신체표현과 밀착된 옷 및 독특한 양각주름 등을 지닌 특징을 보인다”며 “두꺼워진 허벅지와 U자형 옷 주름은 감산사 신라 아미타불입장에서도 나타난 중앙아시아 불교 미술의 독특한 특성”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문 · 문화축제에서는 린 메이춘 중국 베이징대 교수가 ‘실크로드와 중국’, 일버 오르타일리 터키 갈라타사라이대 교수가 ‘실크로드와 터키’, 최광식 고려대 교수가 ‘실크로드와 한국’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굴산산문터에서 통일신라 탑 부재 추가 확인

중원문화재연구소, 10월 29일 현장설명회 개최



굴산사지 전경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소장 김삼기)는 10월 29일 강릉 굴산사지(山寺址, 사적 제448호) 발굴조사 현장에서 관련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2013년도 발굴조사 성과를 공개했다.

신라 하대 구산선문(九山禪門) 중 굴산문(山門)의 본산인 굴산사는 강릉단오제(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의 주신(主神)인 범일국사가 신라 문성왕 13년(851)에 창건한 영동지역 선종의 중심 사찰이다.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2013년 발굴조사를 실시해 조사구역 내에서 총 10기의 건물지와 담장지, 계단 등 다양한 유구를 확인했다. 굴산사지는 건물지가 모두 인접해 배치돼 있었으며 스님들이 생활한 승방지(僧房址) 등이 발견돼 당시 가람 형태를 알수 있다.

특히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승탑(僧塔) 부재(部材)가 추가로 확인돼 주목된다. 현재 굴산사지에는 범일국사의 것으로 알려진 강릉 굴산사지 승탑(보물 제85호) 1기만이 존재했다. 이번 조사에서 승탑 부재가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굴산사에는 최소 2기 이상의 승탑이 존재했음이 확인됐다.

노덕현 기자

문화재청, 라오스 불교유적 복원 착수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10월 29일 라오스 팍세에서 라오스 참파삭 문화경관 내 홍낭시다 사원 유적에 대한 복원공사를 착수했다.

문화재청은 라오스 측과 지난 3월 ‘한–라오스 문화유산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11세기에 조성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참파삭 홍낭시다 사원은 2001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참파삭 문화 경관 내 왓푸사원과 고대주거지’에 있다. 홍낭시다는 캄보디아 앙코르유적으로 연결되는 고대길 중 있는 성지다.

문화재청은 “착수식을 시작으로 라오스 정보문화유산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참파삭 문화경관 내 세계유산의 보존복원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비롯해 무형 · 기록유산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착수식에는 박영대 문화재청 차장을 비롯한 문화재청 관계자와 사업시행주체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사장 김종진) 관계자, 라오스 참파삭주 부지사와 라오스 문화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명상과 접목한 심리 상담 개발해야”

박찬욱 밝은사람들 연구소장 ‘불교와 상담’ 제2회 학술세미나에서 관심 촉구



서양에서 적극적으로 심리치료에 활용되고 있는 불교 명상과 상담에 대한 현장의 실질적인 논의가 눈길을 끈다. 동방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연구소(소장 차차석)는 10월 29일 ‘불교와 상담’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동국대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불교상담을 교육하고 있는 박찬욱 밝은사람들연구소장(동국대 겸임교수 · 사진)이 ‘불교상담, 그 필요성과 적용 영역’을 통해 불교계의 불교상담 기법 개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박찬욱 연구소장은 “불교 명상은 현대 서구사회의 심리치료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며 불교 명상의 심리치료 활용 현황을 소개했다. 박 연구소장은 “데이비드 브레지어 같은 사람은 아예 불교명상을 주축으로 삼고, 심리치료가 보조적인 개념으로 활용되는 소위 선(禪) 치료라는 것도 소개하고 있다”며 “대부분 명상만으로 는 마음 치유의 한계를 알아, 상담치료가 병행돼야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들이 많다”고 말했다.

박 연구소장은 이어 “인간의 이고득락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온 불교와 상담심리학은 호혜적인 교류가 가능하다”며 2009년 암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상담 과정을 소개했다.

박 연구소장은 2009년 10월 암환자 15명을 대상으로 육지장사에서 3박 4일 동안 19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불교집단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박 연구소장은 “당시 실험집단에는 19개의 명상프로그램 이후 집단상담을 진행했으며 통제집단에는 명상프로그램만을 진행했다”며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결과 집단상담을 진행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과 비교해 마음챙김과 암에 대한 수용행동, 집착 수준에서 유의한 증진효과를 보았고 이러한 점이 프로그램 종료후 4주가 지난 시점에도 유지됨을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 연구소장은 “산사에서 명상과 함께하는 집단상담이 신체적인 고통을 감소시키지는 않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힘을 키움으로써 다양한 심리증상 완화에 기여함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집단행동을 통해 현재의 당면과제에 대한 적극적 참여의사를 증진시킴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 연구소장은 현재 불교계가 불교교학과 수행을 현대 상담심리학 등과 접목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소장은 “현대에는 전문 분야 간 교류가 활발한 시대”라며 “불교 또한 현대인의 상황과 취향에 맞춰 관련 전문분야 지식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소장은 끝으로 “현재 심리학자들과 불교학자들은 불교심리 · 상담을 접함에 있어 심리치료와 종교에 치우쳤다는 양극단 견해를 피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곧 심리치료의 한 형태라는 중도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며 “불교가 하나의 심리치료로서 현대 사회에 소개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올바르게 이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정미숙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의 ‘아유르베다상담과 불교상담의 상관성 연구’, 신승철 前연세대 의대교수의 ‘불교 상담치료에서 치료사의 자세’ 등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밀교의 수행법과 무드라’ 조명

‘밀교의 수행법과 무드라’를 조명하는 학술대회와 전시회가 11월 22일 오전 10시 진각문화전승원 강당에서 열린다.

진각종 교육원(원장 경당 정사)이 주최하는 학술대회는 티베트 게시쏘남 스님의 비밀도차제론 무드라 시연에 이어 △진각종 수행의 형성과 체계(시복심인당 주교 법경 정사) △미국불교의 현황을 통한 진각밀교의 미래 방향성 고찰(안산심인당 주교 보성 정사) △‘금강정경’에서 수행의 소연경에 대하여(진각대학원 김치온 교수) 등의 논문이 발표되고 논평이 이루어진다.

한편 11월 22~26일 5일간 한국불상의 수인 등 최성규 한국현대불교미술협회 이사장의 작품이 선보인다.

김주일 기자

문빈정사 불교의례집 광주 문화재로

문빈정사(주지 법선)에서 소장하고 있는 책이 11월 1일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로 지정예고 됐다. 현재 문빈정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11종으로 이 중 12책은 대부분 임진왜란 전에 간인된 판본으로 밝혀졌다. 문화재 11종은 간행지와 간행연도에 대한 기록이 정확하고, 대부분 책판을 판각한 이후 곧바로 찍어낸 초간본이다.

특히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는 불교의 야외법회의식 중 하나인 수륙재(水陸齋) 때 행하는 여러 의식절차를 정리한 책이다. 향후 문빈정사 소장 전적은 예고된 내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승가교육원 제2기 교육생 大모집

귀의 삼보하옵고
저희 한국불교 승가교육원은 한국불교전통을 자랑하는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사)부산영산재보존회 분원으로서 불제자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삭발염의한자나 승려가 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하여 체계적인 재반의식 및 수행법등을 보수, 교육, 하고자 범 종단을 초월한 한국불교 최초의 종합불교예술 승가교육원입니다.
최고의 교수진 구성으로 알찬 승가 재반 의식교육과 승려로서 갖추어야할 자질을 함양코자 본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교육생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사부대중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교육내용

구 분	강의내용	요일	기간	시간	모집인원
기초학과 12주	• 승가기본예절 • 조석예경편(사참), 불공편, 요령목탁법 • 불공편 • 관음시식 • 천수경강의 • 반야심경강의 • 발우공양작법	목	3개월	2시~5시	00명
수계 및 수료	• 사미율의 • 부처님생애 • 초발심자경문 • 발우공양(실습) • 자비도량참법 • 수계 및 수료식(수계증 및 수료증 수여)	2박 3일			
범음범패반	• 예경편(사참), 각단불공편, 권공편, 영반시식편, 점안편, 대령, 관욕편, 배송편, 범패기능연마, 사물타법, 수행경문	화	6개월	2시~5시	00명
작 법 무 반	• 바라작법무, 나비작법무	목	6개월	2시~5시	00명

■ 개원일시 : 불기 2557년 11월 7일 (목) 오후 2시부터
■ 회향기도 : 마지막 회향시 수계 및 수료법회 봉행
■ 준 비 물 : 반명함판사진 3장, 주민등록등본 1통, 가사, 장삼, 요령, 목탁, 필기구
(가사 및 장삼 미소지자는 별도 합동 주문제작)
※ 기타 자세한 내용문의는 본원 교학처로 문의 바랍니다.
■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159-1 백화도량 관음사내 한국불교 승가교육원
■ 접수연락처(교학처) : 051)327-5096 / 010-2314-1279
■ 성적우수한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우선추천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보존회 영남불교예술대학 한국불교승가교육원

제5회 원효학술상(元曉學術賞) 공모

(재)대한불교진흥원 원효학술상운영위원회에서는 “세계 속의 한국철학, 한국철학 속의 세계”라는 슬로건 아래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명과 한국철학의 세계화를 주도할 학자를 격려하고 인재를 육성하여 한국철학이 국제사회에서 세계 철학을 이끄는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효학술상 공모를 실시합니다. [상세는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 및 월간 『불교문화』의 공모 내용을 필히 참조 바람.]

- 공모 주제 –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명과 한국철학의 세계화를 위한 불교사상 연구 부문
– 서양사상의 관점에서 본 불교사상 연구 및 불교사상의 관점에서 본 서양사상 연구 부문
– 동양사상의 관점에서 본 불교사상 연구 및 불교사상의 관점에서 본 동양사상 연구 부문
(상기 부문 중 자유선택, 1인 1편 응모)
- 시상 부문 및 상금 – 교수(전임강사 이상 및 그에 준하는 자), 저술상 : 1,000만원 혹은 논문상 : 700만원
– 박사과정 후 비(非)전임교수 1인, 논문상(저서 포함) : 500만원
– 석 · 박사과정 학생 3인 이내 : 금상(300만원), 은상(250만원), 동상(200만원)
(모든 부문 공통 : 국내 및 재외국민, 외국인 포함/ 영어에 한함)
- 제출 자료 1) 지원서 1부(양식은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 www.kbpf.org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저서 2부, 논문(별쇄본) 3부
① 학생 논문의 경우 교수(전임강사 및 그에 준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할 것
② 심사 대상작품은 최근 5년 이내(2009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까지)에 발표된 것에 한함(저서는 ISBN 등록본).
3) 외국인의 경우 영어에 한하며, 한국어본 초록(A4 3매 내외)을 제출해야 함.
- 접수 1) 접수 기간 : 2014년 1월 2일(목) ~ 2014년 2월 28일(금)까지
2) 접수 방법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마감일 당일자 소인 유효)
3) 접수처 : 주소 121-714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15층 (재)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 원효학술상 담당자
전화 (02) 719-2606
• 자세한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해주십시오(kbpf@chol.com).

1) 심사 후 선정 및 통보 : 2014년 4월 중(선정자에 한해서 개별 통보)
•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 부문 또는 상금 내용에 변경이 있을 수도 있음.
2) 시상식 : 2014년 4월 중(추후 공지)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재)대한불교진흥원 원효학술상운영위원회 www.kbpf.org 문의: 02-719-2606

광주 지역 불교계 내홍 '이젠 끝'

11월 20일 광주불교연합회 창립…준비위원장 연광 스님

그동안 내홍을 앓던 광주지역 불교계를 이끌 광주불교연합회가 창립된다.

승가단체인 광주불교연합회(가칭)는 11월 20일 창립대회를 개최한다. 광주불교연합회는 현재 증심사 주지 연광 스님을 준비위원장으로 준비위를 구성하고 연합회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연광 스님은 "벌써 여러 해 승가단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부처님 오신 날 행사도 진행할 수 없었던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종단을 초월해 많은 사찰 스님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앞으로 지역불교의 중심적 역할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사실 광주불교계는 3년 동안 심한 내홍을 앓고 있었다. 기존 광주지역 불교계를 대표하던 광주불교사암연합회(이하 사암연합)가 파행을 거듭하며 2년 동안 봉축행사 마저도 치러지지 못했다. 여기에 2012년 봉축행사를 끝으로 회장을 맡았던 향림사 혜향 스님이 사퇴를 하고, 이후 집행부가 선출되지 않았다.

특히 기존 연합회 측의 몇몇 스님에 대한 불신으로 광주지역 주요사찰들의 협조가 미비했다. 전체 168개 회원사찰로 구성된 총회가 대다수 사찰들이 참여하지 않으며 성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사암연합회 사무실도 상근자 없이 방치되며 일반 불자들의 발길도 끊어져 버렸다.

이에 광주지역 주요사찰 주지 스님들은 회동을 갖고 광주지역 대표단체 설립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연광 스님은 "광주불교연합회는 세 가지의 중점사항을 지닌다"며 광주불교연합회의 세가지 방향을 밝혔다.

광주불교연합회의 방향 중 첫 번째는 '승가의 화합을 바탕으로 사부대중의 함께 만들어 가는 광주불교연합회' 이다. 이는 종단을 초월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실천하고자하는 많은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행공동체의 삶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광주불교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광주불교연합회' 로 호남불교를 대표해 한국사회의 변화에 큰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다.

특히 전통문화, 예술, NGO, 복지, 생명, 환경, 종교간 화합, 명상, 해외구호사업 등 이미 광주 불교계가 적극적 사업들을 발전시키는데 노력하며, 향후 지역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지원하는 단체를 만들 것을 천명했다.

이어서 마지막은 '지역과 함께하는 광주불교연합회' 로 광주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탈바꿈하고 다양한 문화콘텐츠 산업이 육성되는 만큼 광주불교연합회가 종교를 넘어 한국불교 1600년 전통문화 계승자로서 광주지역문화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함이다.

연광 스님은 "여기에 지역 지자체 및 사회단체와 적극적 연대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광주에는 주위의 도움 없이는 삶을 영위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존재한다. 광주불교연합회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작은 텃밭을 일궈 소외계층과 나눔의 삶을 일궈가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2년동안 파행을 거듭하며 봉축행사를 치르지 못했던 광주불교연합회는 이번 창립으로 지역전법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사암聯 파행으로 봉축행사 무산
광주 주요사찰 연합체 구성 결의
대중·수행·지역공동체 비전 밝혀

익산 불교 문화 정수 한 자리에

국립전주박물관 특별전 '전북의 역사문물전 익산' 개최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유병하)은 익산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는 특별전 '전북의 역사문물전 12, 익산' 을 개최한다.

국립전주박물관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고려시대부터 근대까지의 익산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해 익산지역 문화의 다양성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2014년 2월 9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특별전에는 1부 〈마한의 중심〉, 2부 〈백제의 고도〉, 3부 〈부흥의 터전〉, 4부 〈전라도의 첫 고을〉 등 구석기시대부터 근대까지 익산의 역사와 문화가 모두 소개된다.

특히 마한의 중심이자 백제의 고도로서 익산의 위상을 살펴보는데 많은 비중을 두고 백제 멸망 이후 부흥을 꿈꾸며 익산에 모여든 보덕국과 백제의 계승을 공언했던 후백제와 익산과의 관계에 대한 조사와 연구결과가 발표된다.

1부 〈마한의 중심〉에서는 고조선(古朝鮮) 준왕(準王)의 남천지(南遷地)가 금마(金馬), 즉 익산인가를 밝힐 수 있는 다양한 청동기와 철기를 살펴볼 수 있다.

2부 〈백제의 고도〉에서는 백제의 지방거점에서 새로운 왕도, 혹은 별도로 발전해가는 삼국시대 익산의 모습을 담았다.

특히 백제 무왕이 조성한 궁성인 왕궁리 유적, 왕실사찰 제석사(帝釋寺), 새로운 신앙이자 통치이념인 '미륵하생신앙(彌勒下生信仰)' 을 구현한 미륵사지, 무왕의 능으로 추정되는 쌍릉 출토품 등을 통해, 익산이 백제의 '계획도시' 이자 '또 다른 왕도' 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부 〈부흥의 터전〉은 익산을 근거로 재기를 꿈꾸며 보덕국을 세운 고구려 유민과 '금마산(익산)에 세워진 백제 의자왕의 숙분을 풀겠다.' 며 백제의 계승을 공언한 견훤(甄萱 867~936)의 후백제와 관계된 전시품을 살펴볼 수 있다.

4부 〈전라도의 첫 고을〉은 고려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익산지역의 문화를 살펴보는 코너다.

특히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국보 123호 왕궁리 오층석탑 출토 금강경판과 무왕의 치아로 추정되는 쌍릉 출토 치아 등도 선보인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이번 특별전을 기념하는 특별강연회와 심포지엄도 개최한다. 저명한 청동기 연구자인 이건무 前문화재청장이 '한국의 청동기문화—전북을 중심으로' 를 주제로 11월 6일 오후 2시 강연을 진행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김제 금산사 개산대재 및 주지 취임법회



1414주년을 맞은 이날 개산대제에는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등 대중 3000여 명이 동참했다.

대표적인 미륵성지인 김제 모악산 금산사(주지 성우)가 10월 26일 개산대재와 함께 제15대 주지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1414주년을 맞은 이날 개산대제에는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금산사 회주 도영 스님, 금산사 본말사 스님들과 박성일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등 사부대중 3000여 명이 동참했다.

개산대제는 조사전과 부도전에서의 다례재에 이어 육법공양, 예불, 축원, 삼귀의, 연혁 및 역대조사스님 행장소개, 제15대 주지 성우 스님의 대회사 및 취임사, 법어, 축사, 공로패 수여 등이 진행됐다.

이날 금산사 주지로 취임한 성우 스님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항상 함께하셨던 조사 스님, 태공 월주 대종사님, 그리고 선배 주지 스님께서 걸어갔던 길을 따라, 오늘 새로 내딛는 길이 험난하고 외롭더라도 '위법망구(爲法忘軀)' 의 정신으로 감내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실 월주 스님은 법어를 통해 "모든 이들의 발심 정진이 대한민국과 온 우주의 상생, 정토, 복지, 평화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설했다.

이어 전북지역의 불교발전과 포교에 앞장서 활동한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주정기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박중근 前익산불교신도회장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오후에는 보살계 수계식에 이어 관등법회가 봉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군산 흥천사 지환 스님, 라오스 초교 건립



흥천사 회주 지환 스님(사진 오른쪽)이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에게 초교 건립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군산 흥천사가 지구촌공생회와 손을 맞잡고 라오스에 초등학교를 건립한다. 대한불교보문종 흥천사(회주 지환)와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는 10월 26일 금산사에서 라오스 지환 던룸초등학교 건립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개교한지 20년이 된 던룸초등학교는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천정이 무너지고 서까래가 썩어가는 등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던룸초교에서 공부하는 77명의 학생들은 열악한 환경으로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다. 이러한 소식에 지환 스님의 상좌인 법송 스님과 법묵 스님이 지난 9월 현지를 방문해 실상을 파악하고 1억 5000만 원의 후원을 결정했다.

지구촌 공생회 사무처장 화평 스님은 "후원 협약 체결 이후 3년 동안 교실 7칸, 화장실 4칸, 샤워실 1칸, 물탱크, 도서관, 학교울타리와 교문을 건립할 예정"이라며 "건립 이후 사후관리까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라오스는 성인 문자해독률이 약 58%에 불과할 정도로 교육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나라로 지구촌공생회는 지난 2004년 지부를 개설한 이후 청소년센터 1곳, 초등학교 7곳, 유치원 1곳을 건립하고 이동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약 3,000여명의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계 주도로 고창에 어린이집 개관



고창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은 영유아들을 안심하고 편안하게 맡길 수 있는 24시간 시간제 보육서비스도 실시한다.

고창 선운사 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게 되는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 집' 이 10월 31일 문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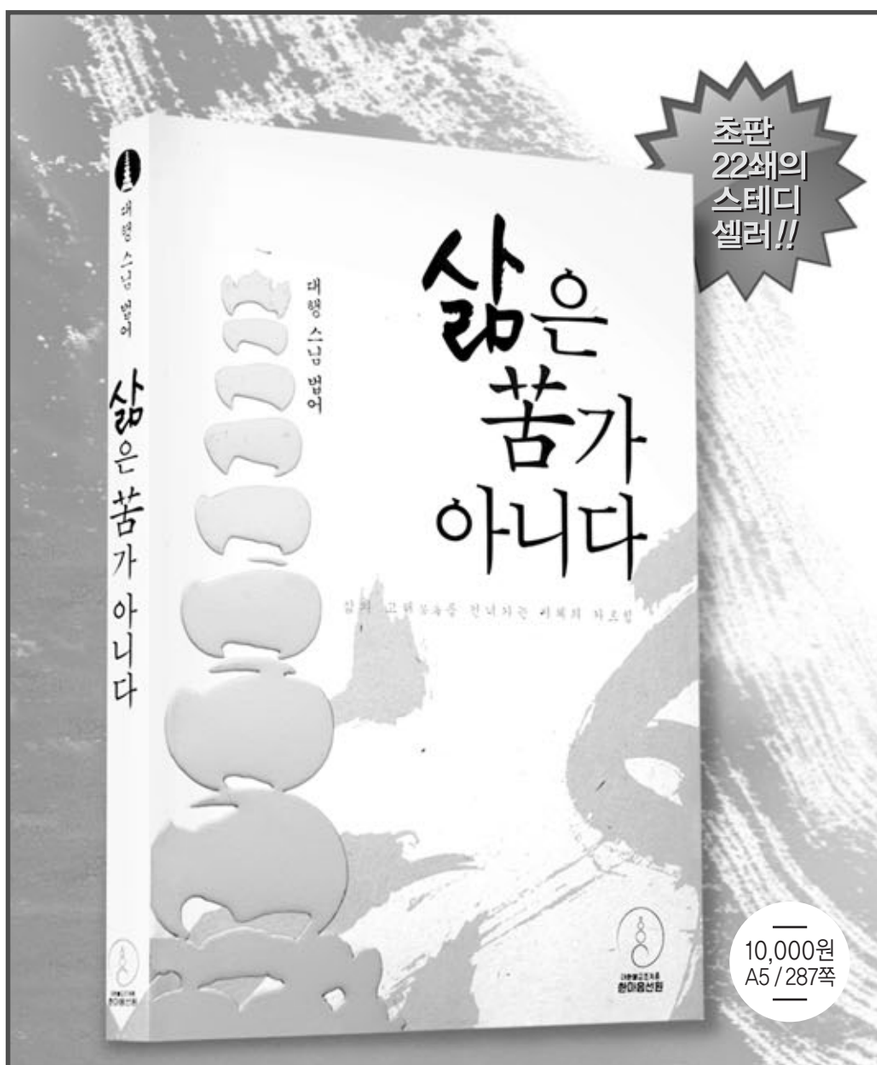
전북고창 뉴타운 내에 자리잡은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 집' 은 대지 6,735㎡에 연건축면적 674㎡으로 보육실, 유희실, 홀 및 야외놀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어린이집은 만5세 이하의 어린이 85명을 대상으로 표준교육과정과 누리과정을 실시한다. 경제계 보육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경련으로부터 6억 7000만 원을 지원받는 등 총 14억 7400만 원이 투입됐다.

법만 스님은 10월 24일 "아동들의 정서와 안전은 매우 중요하며 아이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한편 부모들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보육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개관하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고창군 내에 불교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했으며 향후 청소년동아리방, 공부방, 상담실, 문화교실 등 청소년의 여가와 공부 활용 공간은 물론 귀농 지원센터, 농특산물 홍보관, 북카페 등을 설립하여 영 · 유아부터 아동,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포교와 복지, 문화를 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운사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푸드뱅크 등 7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 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한글/영어)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독송용)

*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5~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케이블카 사업 즉각 백지화 해라"

통도사 영축환경위, 신불산 케이블카 반대 등반


통도사 영축환경위원회는 10월 26일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반대하는 등반대회를 개최했다.

사부대중 1천 명 참여
10월 26일 간월재 올라

통도사 영축환경위원회(위원장 도안)는 10월 26일 울산시와 울주군이 공동개발로 추진하는 신불산 로프웨이(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반대하는 등반대회를 개최했다. 영축환경위에서 주최한 이날 등반대회는 간월산장에서 집결해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 전면백지화 성명을 발표한 후 간월재에 오른 뒤 다시 간월산장으로 내려오는 등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통도사 승려 50여명과 환경단체, 시민, 불자 500여명이 참가했다.

영축환경위원회 위원장 도안 스님은 성명서를 통해 "교통시설도 아닌 신불산케이블카 사업을 공공개발이란 헛된 명분으로 지역민을 기만하지 말고 영남의 명산인 신불산을 보존위주로 관리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울산시와 울주군은 개발위주의 관리방안 등 무책임한 행적과 잘못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고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울산시와 울주군은 사업비(300억~500억원 추정)의 절반씩을 분담해 신불산 로프웨이를 내년에 착수하기로 했다. 노선은 등억온천단지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인근에서 신불산 서북측 방향의 정상부까지 2.2㎞ 구간으로 내년부터 기본계획과 기본설계,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뒤 2105년 실시설계와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16년 착공해 2017년 10월 준공할 계획이다.

영남 알프스 일원인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추진되자 통도사는 올해 발족한 영축환경위를 중심으로 반대의 입장을 제기해 오다 이번에는 스님과 시민, 불자, 환경단체들까지 합류하며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은 2000년과 2007년 민간 사업자에 의해 추진된 바 있으나 '고산습지보호와 경관훼손', '생태자연도 1등급 절대보전 경관' 등의 이유로 환경부가 반대한 사업으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최근 산악관광 활성화를 명분 삼아 이 사업을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통도사와 지역 사회의 거센 반발로 사업추진이 난항을 맞고 있다. 영축환경위는 "신불산은 지자체만의 것도 아니고 개발이권과 관련된 몇몇 사람의 것도 아니다. 수차례나 시도됐지만 경제성이 없어 무산되거나 생태계 훼손이 우려돼 반려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지자체의 지역환경 파괴이며, 무분별한 개발행위"라고 강조한 후 "역사문화자원과 자연유산이 어우러진 영남의 명산 신불산 보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부산 팔관회, 문화재 등록 추진 '박차'

10월24~26일 삼광사·범어사에서


팔관회 재현행사가 10월24~26일까지 부산 천태종 삼광사와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개최됐다.

부산시 지방무형문화재 등록을 추진 중인 고려 팔관회 재현행사가 10월24~26일까지 부산 천태종 삼광사와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개최됐다. 팔관회 재현 본행사는 삼광사(주지 무원)에서 양일간 진행됐다. 10월 24일에는 리허설과 비구니 선방의 일상을 다룬 다큐멘터리 '길 위에서'를 상영했다. 본대회일인 10월 25일은 호국영령 위령대재를 시작으로 국왕행렬재현, 호국기원법회, 대신조하의식, 백희가무 행사가 700여년의 시간을 넘어 진행됐다. 26일에는 장소를 바꾸어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팔관재계 수계법회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013팔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수불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 700년간 단절되었던 팔관회가 관계자들의 치밀한 고증과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최근 원형을 복원하고 재현행사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고불문을 통해 "팔관회 문화재 등록을 통해 우리 부산이 세계 속에 우뚝한 일류 선진 도시로 도약해 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직위는 "수차례의 학술적 고증을 통해 팔관회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고 전승가치를 확인해 왔다"면서 "국가적 축제였던 고려시대 팔관회가 문화재로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동대사, 수륙영산재 및 생전예수재


동대사서 봉행된 수륙영산재 및 생전예수재

천태종은 10월 29일~31일 수륙영산재 및 생전예수재를 대구 동대사(주지 김도산 스님)에서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운덕 원로원장, 변춘광 감사원장, 주정산 원로위원, 류화산 대구 대성사 주지스님을 비롯한 천태종 범음범패보존회 스님과 사부대중 500여명이 동참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부산사하불연 제 1회 불자의 밤 개최



사하불교연합회 회장 법인 스님 '꿈나무 장학금' 전달식

부산사하구불교연합회(회장 법인)는 10월 28일 감천 약수사 경내에서 지역민 소통과 화합의 자리인 '제1회 불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앞서 사하불교연합회는 사하구청에 장학금 5백만원, 사하경찰서에 다문화가정 후원금 5백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야외 기도 공간…환경 청정해야 발심

불자들은 사찰에 오면 산문을 지나면서 마음을 가라앉혀 부처님을 만날 준비를 한다. 법당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을 다스려 삿된 생각을 없앤 다음에 부처님을 만나야 본인이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찰의 기도공간은 그 사찰의 주불을 모신 법당을 비롯해 관음전, 지장전, 삼성각, 칠성각 등 다양하다. 이렇게 건물의 형식을 갖춘 실내 기도공간도 있지만 야외에 부처님을 모신 야외 기도공간도 적지 않다. 특히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던 큰 암반에 부처님을 새긴 마애불이 있는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특별한 기도공간으로 사랑을 받아왔다. 법당에 모신 불보살도 조성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엄청난 규모의 마애불을 조성하는 것은 더욱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야외기도공간은 야외에 조성된다는 환경적 특성 때문에 유지관리가 어렵다. 먼지도 많이 앉고, 지금 같은 가을철에는 낙엽도 많이 떨어지게 되며, 겨울에는 눈도 쌓인다. 그러나 야외기도공간은 자연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의 힘이 작용하여 기도력이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기도공간의 대부분이 자연에 노출된 야외법당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말의 뜻이 이해가 된다.

그러나 조금 유명하다고 하는 야외기도공간을 가본 사람이라면 너무나 복잡하고, 소란스럽고 청정하지 않은 환경에 놀라게 된다. 이러한 곳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나? 이러한 공간에서 기도를 해서 과연 내가 발원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방석이 너무 지저분하여 앉기가 민망한 경우도 있고, 바닥이 지저분하여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한 공양을 올린 촛불과 향이 무질서하고 지나치게 많이 꽂혀있어 자기 것을 꽂기가 어려울 때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연등을 달기 위해 설치된 철제 가설물이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걸어놓은 연등 때문에 마애불을 볼 수 없는 곳도 있다.

11월 7일은 수능시험이 치러지는 날이다. 모든 사찰에서는 아들, 딸 수능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어머니의 절절한 기도가 절정이다. 특히 영험이 있다는 부처님이 계신 야외기도공간은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어머니들의 기도가 이어진다. 이러한 야외기도공간이 조금 더 정갈하고, 질서 있고, 정돈이 잘 되어 있다면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행복할 듯싶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야외기도공간은 청정, 무염해야 신심이 난다. 하지만 대부분이 너무 소란스럽고 지저분하다. 사진은 서울시 ㅎ사찰의 야외 기도공간이다.


구인사 가을풍경

청소년과 이주노동자가 함께하는 전통문화 체험

이주노동자 20만 시대, 생산 현장에서 생활하는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의 전통문화와 역사 유적을 경험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에 대한 국민의 시선에도 다소의 편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은 이주노동자들과 청소년이 1박2일 동안 유쾌한 문화 탐방을 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청소년 불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행사참여 안내

★ **일 시** : 2013년 11월 16일(토) ~ 17일(일)
★ **주최주관** :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금강신문사
★ **탐방코스** : 안동하회마을 → 영주 선비촌 – 단양 구인사 – 불교천태중앙박물관 → 도담삼봉 → 서울 관문사 세계음식문화축제
★ **참가자격** : 중 고교생 및 대학생
★ **모집인원** : 선착순 20명
★ **접 수** : 2013년 11월 4일 ~ 8일
★ **문 의** : 대한불교천태종 서울사무소 Tel. **02) 723-1559**

청평사의 가을, 그 곳에선 너와 내가 모두 단풍

단풍이 아름다운 산사 - 춘천 오봉산 청평사

소양댐 생긴 후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청평사에도 가을 단풍이 이제 청평사가 있는 오봉산까지 남하했다. 청평사 오르는 길에 있는 오른쪽 계곡 안쪽으로 나뭇잎들이 울긋불긋 화려한 색깔로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청평사는 춘천서 가을 단풍이 아름답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곳이다. 그래서 이맘때는 평일에도 단풍 구경하러 온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청평사 절의 노오란 은행나무도 장관이지만, 소양강댐서 배 타고 청평사 선착장까지 가는 물길 위에서 바라보는 단풍은 무척 아름답다. 호수를 에워싸고 있는 산비탈 위로 나무들이 초대형 유화를 그려놓은 것 같다. 우리나라 가을의 국가대표급 풍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평사는 소양댐이 생긴 후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예전엔 배를 이용하지 않고는 드나들기 어려웠지만 몇 년 전 오봉산 동쪽 백치고개 군사도로가 확장 포장되면서 자동차로도 드나들기가 쉬워졌다. 그래도 '낭만'을 기억하려는 사람들 성향 때문인지, 배로 찾아오는이들이 더 많다.

청평사 볼거리, 얘깃거리 풍부… 공주굴, 공주탑 등

오봉산 기슭에 터를 잡은 청평사에는 얘깃거리가 특히 많다. 입구에 있는 시설지구에서 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계곡에 커다란 조형물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공주와 상사뱀의 전설이 얽혀진 조형물이다. 여기엔 짝사랑에 관한 전설이 하나 전해온다. 중국 당나라 때 공주를 짝사랑하던 총각이 있었다. 하지만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총각은 상사뱀으로 환생해 공주의 몸에 달라붙었다. 구렁이에 감겨 점점 야위어간 공주는 결국 이곳 오봉산 청평사까지 찾아오게 되었고, 공주가 구송 폭포에서 목욕재개하고 법당서 염불 하자 드디어 상사뱀이 떨어져 버렸다 한다.

전설은 그 끝에 공주가 불심을 발휘해 상사뱀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이 전설은 스토커나 다름이 없는 상사뱀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고통 받는 당나라 공주가 상사뱀을 떨쳐내기 위해, 이리저리 떠돌다 이곳 춘천에 있는 청평사까지 찾아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청평사와 청평사 계곡에는 회전문과 공주탕, 공주굴, 공주탑 등 공주설화와 관련이 있는 장소가 여러 군데 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억지로 꿰맞춰 놓지 않았나 의구심이 드는 장소도 있지만, 설화는 설화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자못 흥미롭다. 관광지에 이런 이야기 거리가 풍부하지 못하면 그만큼 매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구송폭포 아래에는 제법 깊은 소가 형성돼 있다. 그리고 그 곁에 '공주굴'이 있다. 그런데 그 굴이 굴답지 않게 너무 협소하다. 누가 그 작고 귀여운 바위굴에다 공주굴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이 좀 심했다. 길을 따라 올라가다 폭포가 보이면 청평사가 지척이다.

천년고찰 청평사는 지나온 시간만큼이나 굴곡진 세월을 견뎌 왔다. 고려 광종 24년(973)에 세워져 백암선원이라 칭했지만 얼마 안 있어 폐사됐다가 고려 때 세도가 이자겸의 아들인 이의가 중건해 보현암으로 이름을 바꿨다.

'회전문'은 전생 깨우치기 위한 마음의 문

청평사엔 많은 문화재가 있었지만 국보로 지정돼 있었던 극락전을 비롯한 유적들이 6·25전쟁 때 소실됐고 보물로 지정된 회전문(廻轉門)만이 이 절을 굳건히 지켜왔다고 한다. 회전문은 절에 들어설 때 만나게 되는 두 번째 문인 사천왕문을 대신하는 것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는 문이 아니고 중생들에게 윤회의 전생을 깨우치기 위한 마음의 문이다.

청평사, 춘천서 제일가는 단풍 관광명소
973년 백암선원으로 창건돼 1천년 이어와
공주와 상사뱀의 전설 오롯이 전해져

구송폭포 상류 쪽에는 작은 연못이 있다. 이곳은 바로 영지(影池)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고려정원(高麗庭園)의 흔적이다. 영지를 만든 이는 고려 때 학자인 이자현. 973년 이곳에 창건했던 백암선원이 폐허가 된 자리에 아버지 이의가 세운 보현원을 문수원이라 고쳐 머물면서 이 산자락을 대규모 정원으로 꾸몄다고 한다. 구송폭포에서 오봉산 정상 부근의 식암(息庵)까지 3㎞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다.

'공주탕' 놓치지 말아야 할 볼거리

청평사에서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공주탕'이다. 공주탕은 청평사 밖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절집 오른쪽 담장 밑으로 난 오봉산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면 된다. 그 거리가 채 100미터도 되지 않는다. 이곳서 바라보는 단풍 또한 가히 일품이다. **춘천 청평사=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청평사는 이제 완연한 가을이다. 경내에 있는 나무들 모두가 울긋불긋 화려한 색깔로 옷을 갈아입었다. 가히 국가대표급 풍광이다.


청평사를 세번째로 중창한 고려시대 이자현부도.


공주와 상사뱀의 전설을 표현한 공주상.

주변보기

먹거리



배후령 터널을 통과해 청평사로 진입할 때 관광지 상가 초입에 위치한 고려산장 왕바위(033-243-1188) 식당은 토속음식전문점이다.

산채비빔밥을 비롯해 산더덕백반, 왕닭갈비, 왕막국수, 감자전, 표고버섯, 약초동동주 등을 맛볼 수 있다.

인심좋은 주인은 주문한 음식말고도 밑반찬으로 푸짐하게 상을 차려 내놓는다.

시내로 나가면 남춘천역 근처에 위치한 퇴계막국수(033-255-3332)의 물막국수와 감자옹심이, 녹두전, 메밀 칼국수도 일품이다.

숙박

청평사계곡에 산장(민박)이 있으나 숙박시설이 많지 않다. 춘천시내로 다시 나와야 한다.

볼거리

¡ **소양강댐**=신북읍 소양강에 있는 높이 123m, 둑 길이 530m의 다목적댐으로 춘천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이다. 소양강댐 아래로는 예쁘고 낭만적인 분위기의 카페, 야외에서 숯불에 닭갈비를 구워먹을 수 있는 식당들이 자리하고 있다. 강을 가로지르는 세월교에서는 낚시를 즐기는 모습도 볼 수 있다.

¡ **국립춘천박물관**=볼거리 다양한 춘천에서 강원도의 역사와 문화를 알고 싶다면 강원도 최초의 국립박물관인 국립춘천박물관을 꼭 방문해야 한다. 박물관에 도착하면 우선 건물 외관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주변 야산의 수려한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깔끔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드러내는 건물로 2003년에는 '올해의 우수건축물'로 선정돼 한국건축가협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불상과 보살상, 나한상 등 강원도의 유명 사찰에서 발견된 다양한 불교문화 유물과 단종과 정순왕후의 도장, 태실 등 왕실 관련 유물이 전시돼 있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매주 월요일 휴관한다. (033)260-1500

가는길

청평사를 여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소양강 선착장서 배 타고 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자동차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다. 자동차를 타고 가면, 청평사 관광유원지 안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댈 수 있다. 하지만 유원지 주차장에 가닿기 전에, 대관령만큼이나 심하게 구불거리는 높고 긴 배치고개를 넘어가야 한다.

소양호 선착장에서 청평사까지 오전 9시30분부터 30분 간격으로 배가 출발한다. 오후 4시 배를 타야 청평사 돌아보고 청평사에서 소양호 선착장으로 나오는 마지막 배(오후 5시30분)를 탈 수 있다. 소양호선착장=(033)242-2455

약사여래부처님이 상주하시는 현지사 고성분원 약사성전!!!

중생의 고통중에 병고만한 것이 없습니다. 지중한 병고는 대부분 전생의 업장이 발현한 것으로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이런 불치병 난치병을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치유합니다. 의중대왕이신 약사여래 부처님께서 업장소멸과 병고치유로 병마에 신음하는 분들에게 희망을 열어드립니다.



동해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현지사 고성분원

약사여래부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의 치유사례 - 서울시 천호동 유길순 불자)

뼈속까지 전이된 유방암 말기, 고통으로 앉지도 눕지도 서지도 못하던 제가
약사여래부처님 가피로 지금은 앉고 눕고 서고
뛰어다니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 온몸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배를 바닥에 깔고 세수도 하고 밥도 먹고 했습니다.
이런 고통을 이겨내면서 한달 반쯤 지났을 때 약사여래부처님께서
알게 모르게 온 몸을 차례차례 치유해주시는 가피를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 (현지사 홈페이지 '신행담' 중에서)

약사재일 - 매월 음력 8일 (9시 30분) 봉행합니다.
약사여래부처님 공양·기도 접수받습니다.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대진항길 7 전화 033)681-5515
영산불교 현지사 고성분원 약사성전 팩스 033)681-5538
※ 약사재일에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에서 버스가 출발합니다.

부처님이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심을 선언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Ⅱ (영산불교 현지사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춘천본사 :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95 전화 033)243-1787, 팩스 033)243-4371, 이메일 hyunjigung@hanmail.net ,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불교와 미학
동자승

‘순진무구’라는 관념 덧 씌운 현대 동자승





대표 불교 영화 ‘동승’〈사진 왼쪽〉과 애니메이션 ‘오세암’〈사진 오른쪽〉. ‘동승’과 ‘오세암’ 모두 어머니에 대한 지독한 그리움을 기저에 가진다. 두 작품의 동자승은 ‘순진무구’의 상징으로 비쳐지는 데 이는 현대 동자승의 이미지로 굳어졌다.

불교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대중적인 상징은 연꽃이다. 그런데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아이콘이 있다. 바로 ‘동자승’이다.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면 불자 자녀들 중 대여섯 살 먹은 어린아이들을 모집하여 승복을 입히고 머리를 깎여 1~2주간 사찰에서 생활하도록 한다.

스님들처럼 이른 새벽, 어둠 속에서 올망졸망 줄을 지어 법당으로 가서 예불도 드리고 바루 공양도 한다. 하지만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기 그지없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절하는 것도 서툴다. 졸음을 못 이겨 예불 시간 중간에 법당 바닥에서 잠들기도 하고 삭발할 때는 무서워서 엉엉 울음을 터뜨리기도 한다. 모습은 스님이지만 하는 짓은 개구쟁이이다. 하지만 천진난만한 그 모습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랴! 어린아이들의 해맑고 순수한 그 모습은 그 모습 그대로 천진불이요, 잊어버린 동심이다.

동자승의 이미지가 이처럼 사랑스럽고 천진난만한 것이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출연하는 아이들도 실제 동자승이 아니라 행사의 하나로 기획된 단기출가 동자승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일종의 만들어진 이미지인데, 이런 이미지가 대중화되는 데에는 무엇보다 정채봉의 동화 〈오세암〉과 월북작가 함세덕의 희곡 〈동승〉의 역할이 크다.

정채봉의 〈오세암〉은 설악산 오세암에 얽힌 구전설화를 바탕으로 1984년 발표된 동화로서, 2003년 애니메이션 영화로 제작되어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기까지 했다. 〈동승〉은 월북작가 함세덕의 최고의 작품이며 한국 근대희곡사상 가장 탁월한 작품 중 하나로 평가되는데, 1939년 3월 동아일보사 주최 제2회 연극 경연대회에 〈도념(道念)〉 이라는 제목으로 출품하여 초연된 작품이다. 해방 이후 간행된 희곡집 〈동승〉에 수록되었으며 〈내 마음의 고향〉이라는 이름으로 영화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동승〉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월북 작가의 작품이 해금된 1988년 이후이다. 그 후 연우 무대 등 여러 극단에서 잇따라 공연 되어 호평을 받았으며 2003년에 영화로 제작되었다.

두 영화는 모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평론가 김방옥이 비판하듯이 이 영화는 ‘상투적인 감성에 의존하는 서정성이 짙은 작품’이며 영화의 대중적인 성공도 부분적으로 이러한 감성에 빚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영화들은 종교적인 구도, 다시 말해 자신의 근원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구도의 영화로 볼 수 있다.

두 영화에서 ‘어머니’는 산사에서 외롭게 자라는 동자승에게는 고독의 원인이자 그리움의 대상이다. 여기서 어머니 혹은 여성은 나 자신을 찾아가는 코드이다. 어머니는 나를 낳아준 존재이자 내가 돌아갈 고향이며, 칼 융이 말한 것처럼 나의 근원인 아니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그리워하는 동승의 그리움은 세속적인 정에 대한 굶주림이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고독과 소외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오세암〉과 〈동승〉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 어떻게 자신의 근원으로 회귀하는 종교적인 구도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구도자로서의 동자승의 이미지는 불교경전이나 설화에서 익숙한 것이다. 그런데 〈오세암〉이나 〈동승〉의 동자승의 이미지에는 구도자의 이미지보다 천진난만한 동심의 이미지가 더 강조되고 있다. 그것은 과거의 전통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것이다.

독경 소리보다 마을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더 좋아하거나 스님 몰래 토끼사냥에 정신을 파는 모습, 스님을 “스님 아저씨”라고 부르는 결례는 물론이고 이틀에 한번 이불에 오줌을 싸고 스님들 신발을 모조리 나무 가지에 매달아놓으며 장난을 치는 동자승은 이 영화들에서 동심의 상징이며 나아가 종교적인 순수성으로 해석되고 있다.

〈동승〉에서 동자승의 철부지 행동을 불교 계율의 입장에서 단죄하는 듯한 인상이 강하다면 〈오세암〉에서는 동자승의 천진무구함이 영화를 더욱 밝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지만, 두 영화는 모두 순진무구함을 동자승의 본질로서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동승〉 이후로 우리 주변에는 동자승의 이미지를 차용한 캐릭터 상품들이 많아졌다. 원성스님의 〈풍경〉에 그려진 동자승의 해맑은 모습과 눈물을 머금은 눈동자는 그의 개인적 경험과 맞물러 〈동승〉에서 형상화된 이미지를 극대화하였다. 그 밖에 기도하거나 참선하거나 또는 책 읽고 공양하는 등등 다양한 형태의 동자승 인형이 상품화되었고, 부처님 오신날 행사용으로 단기출가 하는 동자승에 이르기까지 동자승은 불교적인 감수성과 본질을 전하는 것으로 소비되고 있다.

불교에서 구도자로서의 동자승은 낯선 존재가 아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존재로 〈화엄경〉 입법계품의 선재동자가 있으며, 선재동자가 찾아간 53명의 선지식 중 51번째 선지식인 덕생동자와 유덕동녀가 있다. 이들은 보살의 해탈을 증득하여 청정한 지혜로 세상이 모두 환영과 같음을 깨달았지만 보살의 원력과 지혜 때문에 이 세계에 태어난 것이다.

잊어버린 동심 상징 ‘동자승’
영화 ‘오세암’·‘동승’ 영향 커
구도자보다 천진불로 이미지화

화엄경 선재동자, 덕생동자 등
전통적으로 구도자적 경향 강해
현대에 와서 불교 대표 캐릭터로

경전 속의 존재가 아닌, 실제 역사에서도 동자승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들 라훌라로부터 시작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아직 삭발하고 득도하지 않았지만 적게는 4살에서 8살, 많게는 20세까지의 아이들이 승원에 거주하면서 승려들과 함께 생활하고 수행을 했다. 동자승을 범어로 구마라(kum?ra) 또는 구마라카(kum?raka)라고 부르며 ‘동진(童眞)’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자아이는 동녀라고 한다.

불교에서는 예로부터 동진 출가를 매우 높이 평가해왔다. 이산혜연 선사의 〈발원문〉에서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일에 물 안 들고 청정범행 닦고 닦아/ 서리같이 엄한계율 털끝인들 범하리까.”라고 하고 있듯이 그들이 동자승이 되기를 발원한 가장 중요한 뜻은 지계청정이었다.

신라시대부터 미륵불을 아기부처로 형상화하거나 오대산 상원사의 문수동자상 등 아기부처, 아기보살상으로 조성한 경우가 있지만 보살상을 동자상으로 조성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보살이 여래의 왕자라는 사실뿐 아니라 세상의 아이들처럼 그들에게 음욕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동자상은 그 자체로 예경의 주인공이 된 적이 없다. 상원사 문수 동자를 비롯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동자상은 부수적이고 주변적인 존재에 불과했다. 또한 동자승의 순진무구함을 묘사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갖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현대 동자승 이미지가 강조하는 천진난만함은 현대 동자승 캐릭터만의 독특한 점이며, 동자승이 불교의 대표적인 캐릭터가 된 것도 최근에 생긴 새로운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영국의 계관시인 워즈워스의 시 〈무지개〉에 나오는 유명한 시구이다. 시인은 무지개를 바라보며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느낀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순수하고 천진한 마음이 늙은 뒤에도 변치 않기를 기도한다.

이 시에서 워즈워드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자연과 교감하는 탁월한 능력으로 이해하고 있다. 어린아이의 마음이 인간의 가장 바람직한 상태로서, 가식이나 변덕, 이기적 욕망이나 계산을 알지 못하는 해맑고 순수한 상태로 바라보는 워즈워드의 관점은 루소 이전의 서양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었다. 인간은 백지(tabula rosa) 상태로 태어난다고 본 로크는 어린이의 정신세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성서에서도 어린아이는 미성숙의 상태로 이해되었다. “젊은이가 어른을 섬기며 천한 이가 귀한 이를 섬긴다”는 〈소학〉의 구절은 동아시아에서도 어린아이에 대한 인식도 서양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알려준다. 장유유서와 신분에 따른 수직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동아시아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사회적 관계에서 중심을 차지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다.

〈아동의 탄생〉을 저술한 필립 아리에스에 따르면 6세기나 17세기 이전의 서양에서는 어린아이를 ‘작은 어른’으로 생각하여 특별히 취급하지 않았으며 하층민의 경우 20세기에 들어서도 이런 의식이 없었다. 어린아이를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해야 한다거나 특별한 양육과 교육이 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은 물론이고 티 없는 순수함을 지닌 존재라는 관념은 중세인에게 낯선 것이었다. 그들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아동기의 특수성을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어린아이는 심오한 ‘시적 정신’을 소유하고 있으며 천재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낭만주의적인 아동관이 널리 퍼진 것은 루소의 〈에밀〉 이후이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함과 순수성을 통해 불교적 이미지를 제시하는 〈오세암〉과 〈동승〉, 그리고 수많은 동자승 캐릭터는 불교의 전통적인 이미지라기보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자승 캐릭터가 최근에 와서 대중적인 선호의 대상이 된 배경에는 이와 같은 현대적 사유가 있었던 것이다. 전통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가능하며 환영할 일이지만 전통을 이해할 때 새로운 관점을 덧씌우지 않는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다음 연재에서 전통적인 동자상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겠다.



명법 스님 (조계종 교수아사리)



불보살이 상주하는
북한산 이야기 ⑥ 나한봉(羅漢峰)



공양 받을 만한 봉우리

북한산 의상봉능선의 문수봉과 나월봉 사이에 있는 봉우리로 높이는 해발 688미터이다. 행정구역상 경기도 고양시에 속한다. 나한봉은 나한에서 그 명칭이 유래한다. 나한은 아라한(阿羅漢)의 약칭으로, 일체의 번뇌를 끊고 최고의 깨달음을 얻어 중생의 공양에 응할 만한 자격을 지닌 불교의 성자를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절에는 대부분 나한전(羅漢殿)이 건립되어 있어서 십육나한이나 오백나한을 봉안하고 있다. 십육나한이란 석가모니의 교화를 받았던 열여섯 명의 뛰어난 제자를 일컫는다. 오백나한은 석가모니 생존 시의 제자나 석가모니 열반 후 제일 결집 때 왕사성에 모였던 장로 오백 명을 두루 지칭하는 말이다. 민간에서는 나한이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여겨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때문에 오백나한은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서 특별한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시대에 나한 신앙이 크게 유행하여 국가적인 행사로 나한재를 지내기도 했다.

나는 원래 이름이 없었습니다. 작고 못생긴 바윗덩어리에 불과했으니까요. 나는 북한산의 빼어난 봉우리들이 부러웠습니다. 북한산이 처음 생길 때 바위들 사이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그중에서 가장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이야기는 우이암과 울산바위에 관한 전설입니다.

우이암은 도봉산의 대표적 바위봉우리로 관세음보살이 부처님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명칭은 관음봉(觀音峰) 또는 사모봉(思慕峰)이었다고 해요. 호랑이 · 코끼리 · 두꺼비 · 코뿔소 · 학 등 각종 동물의 형상을 한 바위들이 관음봉을 향하여 머리를 조아리는 듯하다고 해서 관음성지로 불린답니다. 울산바위는 경상도 울산에서 금강산을 향해 길을 가다가 지금의 설악산에 눌러앉게 되었대요. 두 바위봉우리에 대한 전설을 듣고 나도 그와 같은 봉우리가 되기를 빌었습니다.

내가 세운 원(願)은 문수봉이나 보현봉처럼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문수보살의 지혜를 배우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 보현보살의 실천을 따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한시도 쉬지 않고 부처님께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결처럼 나의 전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득한 옛날, 지금의 고양 땅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고 태어난 곳도 몰랐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때로는 짓궂은 동네 아이들에게 붙들려 이유 없이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동네의 한 부잣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남자에게 한 순간도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뙤약볕이 내리쬐는 밭에 나가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겨우 방에 들어와 쉬려고 하면 밤늦게까지 새끼 꼬는 일을 시켰습니다. 장작을 패는 일도,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오는 일도 모두 남자의 몫이었습니다. 게다가 가축을 돌보는 일까지 그야말로 끝없이 일만 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부잣집에서는 남자를 보살펴 주지 않았습니다. 일만 하던 남자는 서른이 넘도록 장가도 들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남자는 뙤약볕에서 일하다가 그늘에 엎드려 자는 누렁이를 보았습니다.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긴 탄식이 나왔습니다. 나는 잠자는 누렁이만도 못한 사람이구나. 만일 내게도 다음 생이 있다면 차라리 돌멩이로 태어나는 게 더 낫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독경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 보니 스님 한 분이 정성껏 목탁을 치며 시주를 청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행색은 남루했고 몹시 배가 고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인색한 주인은 쌀 한 톨은 고사하고 물 한 그릇도 줄 수 없다며 스님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보다 못한 남자는 자기가 먹으려고 받아 둔 보리밥 한 덩어리를 스님의 바랑에 넣었습니다. 스님이 합장한 후 경을 읽기 시작했지만 글을 배우지 못한 남자는 무슨 뜻인지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스님이 독경을 마치고 돌아서려 할 때 남자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의 독경 중 한 구절이 그의 마음을 잡았기 때문이지요.

공덕받는 '아라한'에서 유래
이름없는 작고 못생긴 바위
전생 공덕으로 '큰 봉우리' 이뤄

"스님,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없어짐이 무슨 뜻입니까?"

스님이 그윽한 시선으로 남자를 바라보더니, 손을 들어 삼각산을 가리켰습니다. 남자가 스님의 손가락을 따라 삼각산을 바라보니 드높은 하늘 아래 바위로 덮인 아름다운 봉우리가 있었습니다.

"저 봉우리가 문수봉이네. 지성으로 문수보살을 염하도록 하게나."

스님은 말을 마치고 사라졌습니다.

나는 전생을 알고 나서 더 열심히 문수보살의 명호를 외웠습니다. 어느 날 새벽, 샛별이 떠오를 때 전생에서 보았던 스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의 정성이 다른 바위의 공양을 받을 만하구나."

그 순간, 내 몸집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지금의 봉우리처럼 우람해졌습니다. 주위의 바위들은 나를 아라한봉우리라고 부르며 절을 하였습니다. 이후 사람들이 나를 나한봉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얘기꾼〉 신이산

戰火 속 상생을 전하려던 日 고승의 가르침



신중일 기자 **일본 관서 교찰을 가다**
⑥ 교토 텐류지 일원



교토 텐류지(天龍寺)의 정원. '치센카이유시키(池泉回遊式)' 정원으로 그 규모가 크고 아름답다. 이 정원에는 창건자인 무소 소세키 스님의 상생의 화두가 담겨 있다.

1464년 오닌(應仁)의 난은 쇼군의 후계자를 둘러싸고 슈고 다이묘들의 대립이 얽히면서 11년간이나 지속된 내란이다. 무로마치 시대 가장 강력한 쇼군이었던 요시미츠가 죽은 후, 슈고 다이묘의 힘은 쇼군의 힘을 능가하기 시작했다. 쇼군과 다이묘의 대립, 오닌의 난은 하극상의 전국시대를 여는 서막이었다. 11년의 전란으로 천년 고도(古都) 교토는 황폐해졌으며, 막부의 건물은 물론 텐류지(天龍寺) 등과 같은 사찰들은 잿더미가 됐다.

그로부터 450년이 지난 현재, 텐류지 일원은 완연한 관광지이다. 아라시야마(嵐山)의 대나무 숲, 도롯코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 일본은 물론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텐류지는 이 같은 관광지구의 중심에 있다.

텐류지는 일본 불교 대표 선종 종단인 임제종 텐류지파의 대본산으로 교토 5산 중 제1위 사찰이기도 하다. 원래는 왕실 별궁으로 건립됐으나 1339년 고다이고 일본 천왕의 명복을 기리기 위해 무소 소세키(夢窓疎石, 1275~1351) 스님에 의해 사찰로 개축됐다. 창건 당시에는 150여개의 전각이 들어선 엄청난 규모였으나 오닌의 난으로 인해 현재의 모습으로 축소됐다. 그래도 전해져 내려오는 전각들의 규모는 생각보다 크다.

텐류지 곳곳에는 명소들이 많다. 법당 천장에 있는 '운룡도(雲龍圖)'는 텐류지에 들리면 꼭 봐야 하는 작품이다. 이전에는 메이지 시대 활약했던 스즈키 쇼넨 화백의 운룡도가 있었으나, 수복이 어렵고 손상이 심해 지금 그림은 현대 일본화의 거장이었던 가야마 마타조(加山又造, 1927~2004) 화백이 그린 그림으로 대체됐다. 말년의 가야마 화백이 1997년 그린 운룡도(12.6m×10.6m)는 마치 실제하는 듯 역동적이다. 날카로운 눈은 법당 안 어디를 걸어도 자신을 주시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텐류지 법당 천정의 운룡도



선불장 전각. 법당으로 사용된다.

임제종 본산 1위 사찰 공고히
무소 소세키 스님이 조성한
지천회유식 조원지 정원 눈길

이 같이 거대한 용을 그려놓은 이유는 예로부터 불을 다스린다는 용의 힘으로 법당이 다시는 전화(戰火)에 휩싸이지 않기를 바라는 일본인들의 염원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텐류지를 대표하는 곳은 '방장(方丈)'이라는 편액이 걸린 전각이다. 대부분의 일본 사찰이 그렇듯 방장 전각에는 회랑을 돌며 감상할 수 있는 '소겐지(曹源池)' 정원이 있다. 사찰 정원을 처음 조성했다고 알려진 무소 스님이 조성한 이 정원은 흰 자갈과 모래, 돌로 그려내는 카레산스이(枯山水)와는 다른 전경을 자아낸다.

조형 양식도 조금 다르다. 용안사가 카레산스이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면 텐류지는 '치센카이유시키(池泉回遊式)'로 중앙에 있는 연못 주위를 돌며 관상하도록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모도 용안사의 정원보다 훨씬 웅대하다. 돌과 바위로는 폭포를 만들었고, 크고 작은 바위들은 어딘가의 풍광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했다. 자신이 본 심산유곡의 경관을 그대로 옮겨 놓으려고 했던 일본 특유의 미학이 이곳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

텐류지와 정원을 창건한 무소 스님은 이 정원 조성을 위해 패전 포로들을 이용했다. 일편 보기에는 승려가 대립 세력을 노예로 이용하는 것이 비인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속뜻은 달랐다고 한다.

앞서 오닌의 난을 거론했듯이 당시 일본은 하극상이 빈번이 일어났던 전란의 시기였다. 천황, 막부, 막부의 반대 세력 등 치정자들이 한데 뒤엉켜 너나 할 것 없이 아귀 다툼을 벌였다. 하지만 당시 치정자부터 민초들까지 숭앙을 받았던 무소 스님은 달랐다. 이들 모두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다.

무소 스님은 스스로 원수를 두지 않고 권력자들에게 용서하고 상생하는 삶을 강조했다. 그래서 죽은 천황을 기리는 사찰을 창건토록 한 것이다. 패잔병들에게 사찰의 정원을 조성하는 불사를 책임지게 한 것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명분을 주기 위해서 였다. 이 같이 텐류지의 저변에는 대립과 갈등의 전란 속에 '상생'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살았던 무소 스님의 원력이 담겨 있는 것이다.

motp79@hyunbul.com

이 원고는 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프로그램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3219-7180 / 010-3743-5167

진로 · 적성 · 상담 안내

인 재 양 성

➔ 16개 항목 분석 자료 추출 ➔
■ 학습유형별 정보 제공
■ 선천적으로 적합한 계열과 학과 제공
■ 기타 성격. 인품. 평생주기별 운 예측
■ 대학 진학 (입학사정관. 수시. 정시)
■ 나와 인연되는 대학명
■ 대학 진학하는 해! 세운 분석
➔ 상 담 료 : 20만원
■ 상담 후 미 진학시 상담료 환불
➔ 학습진로상담사 학회

〈본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873-2. 1층
〈지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01-98 2층
상담사 겸재 정 비오 (010-5524-7053)
〈지부〉 서울 성북구 동선동 5가 36 2층 (다솜)
상담사 박 홍언 (010-7925-4749)

C.A.C 분석서



◇프로필 :
• 명리철학교육학 석사
• 미래예측학 박사
• 미래전략교육학 교수

◇ 동방대문화교육원 수업 [목]
(오후 2시 ~ 5시)
◇ 국제문화대학원 수업 [토]
(오전 10시 ~ 오후 2시)
◇ 저서 : 규명 (1. 2. 3권 : 한솜미디어)
실전성명학 - 상원문화사

➔ 개인 지도 : 입 문 자 10개월 과정
명리전문반 3개월 과정
➔ 수업일 : 매주 화 · 금요일(오후 5시 ~ 7시)

오시는길
1호선 수원역 하차 ➔ 맞은편 720-2버스 탑동우방사거리 ➔ 새하늘교회방면 ➔ 도보 30m 규명철학연구소 1층 010-5418-5972

‘선과 악’ 생각 끊어지면 삼계 벗어나

마음을 일으켜 밖으로 구하는 것을 일러 ‘가리왕(歌利王)이 사냥놀이를 좋아함’이라 한다. 마음이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곧 인욕선인(忍辱仙人)이며, 몸과 마음이 모두 없음이 곧 불도(佛道)다.

수불 스님의
완릉록 선해 〈18〉



범어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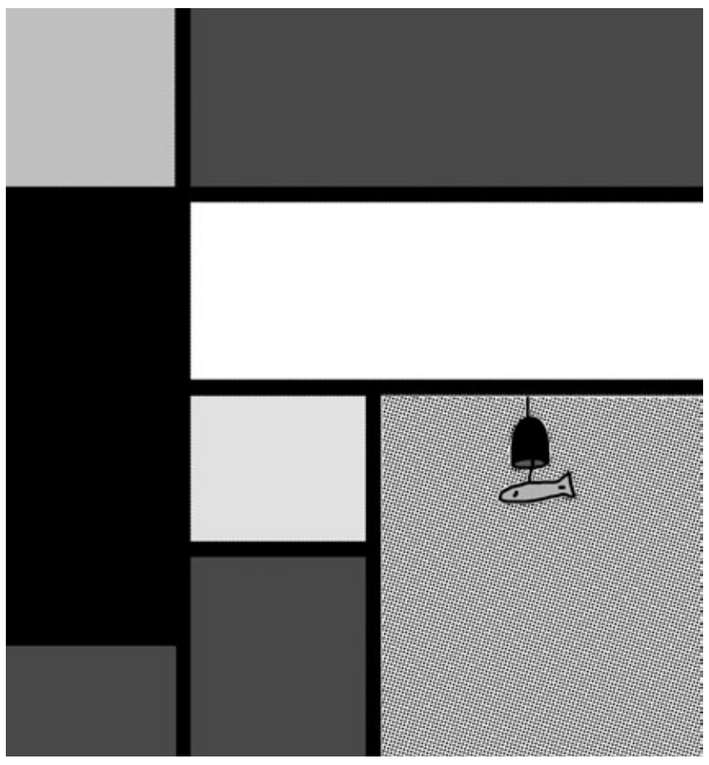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금강경〉 ‘이상적멸분’에 가리왕의 이야기가 나온다. “수보리여, 인욕바라밀도 여래는 인욕바라밀이 아니라고 설하나니, 그 이름이 인욕바라밀이니라.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여, 옛날 가리왕이 나의 몸을 베고 끊었을 때, 나는 아상도 없었고 인상도 없었으며, 중생상도 없었느니라. 내가 마디마디 사지를 끊길 그 때, 아상이나 인상 · 중생상 · 수자상이 있었더라면, 마땅히 원망하는 마음을 내었을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과거세에 숲속에서 인욕선인이 되어 수도할 때, 성질이 교만하고 포악한 가리왕이 사냥을 나갔다. 왕이 잠든 사이, 산책하던 궁녀들이 나무 아래 앉은 선인의 청정한 모습에 감복해 법을 청해 들었다. 잠이 깨어 그 모습을 목격한 가리왕은 질투를 일으켜, 선인의 인욕행을 시험하고 나섰다. 왕은 선인의 귀와 코를 자르고, 마침내 팔다리까지 잘랐다. 그러나 선인은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오히려 화가 난 용신이 왕을 해치려는 것을 말렸다. 이 일을 인연으로 왕의 탐진치 삼독을 끊어주는 자비를 베풀려고 했던 것이다. 왕은 깊이 뉘우치고 궁으로 돌아갔다.

마음이 밖의 대상에 반연하여 일어나 집착하면, 이는 사냥놀이를 좋아하는 가리왕과 같은 꼴이 된다. 반대로 마음을 쉬고 안으로 본래 자리에 가만히 계합하면, 인욕하는 선인이 된다. 마음이 밖으로 나서면 외도가 되어 포악해지고, 안으로 인욕하면 정진하여 자비로운 선인이 된다. 결국 한 마음이 일어나 밖으로 떠돌면 집을 나가 고생하는 것과 같고, 안으로 돌아와 본심과 하나가 되면 자기 집에서 편안히 쉬는 것과 같다.

그런데 진정한 수행이란 상(相)이 떨어진 ‘무념(無念)의 염(念)’을 일컫는다. 육조스님은 ‘무념을 종(宗)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이는 단순히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루종일 생각을 일으켜도 일으킨 바가 없는 것을 말한다. 본래 일으킨 적이 없는 성품을 스스로 요달하고, 저절로 무념이 되는 인연에 나아가서 공부하는 것이 ‘무념의 염’이다. 이것은 무념을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보아 본래무념과 계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육조스님께서 견성을 제일로 치신 것이다. 그런 공부인연에 나아간 것이 정진의 참모습이다. 이것을 ‘무수(無修)의 수(修)’라고도 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아직 공부를 지어가고 있는 흔적이 남아있는 모습이다. 부처님 입장에서는 흔적까지도 다 지워버린다. 자성을 요달하고 확철대오 했을 때, 비로소 정진다운 정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정진하고 싶다고 해서 정진하는 게 아니다. 정진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삿되고, 어리석어지기 쉽다. 그래서 눈을 뜨다 하더라도, 공부한 사람들끼리 서로 비춰 탁마하면서 좋은 인연으로 거듭나는 것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분이다.

만약 한 생각이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곧 경계가 잊혀지고
마음이 저절로 사라져
다시 찾을 바가 없다.

생멸(生滅)이 적멸(寂滅)하면,
적멸이 위락(爲樂)이 된다.
공부가 되면
무심을 짓는 게 아니라
저절로 무심이 되는 것이다.

방편으로 욕계 · 색계 · 무색계
삼계는 불타는 집과 같아
빨리 벗어나라 했지만
사실 삼계가 그대로 법계라
따로 벗어날 삼계란 본래 없다.

14. 무심행

배휴가 물었다.
“만약 무심을 행(行)한다면, 이 도를 얻습니까?”
선사가 대답했다.
“무심이 바로 이 도를 행함이거늘, 다시 더 얻고 말고 할 것이 있겠는가?

무심이 바로 도를 행함이라 할 때, 이 무심은 마음을 없애서 만드는 무심이 아니다. 마음은 있다 없다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없다. 무심이란 본래 무심으로 뭘 하고 안 하는 입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본래 무심은 다시 더 얻고 말고 할 것이 없는 무소득이다. 얻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자각함으로써, 모든 헛된 노력을 여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잠깐이라도 한 생각을 일으키면 곧 경계이다.

무심이면 그대로 온전한 것인데, 거기서 무심을 행해야지 하는 한 생각을 일으키면, 이렇게 생각으로 지은 무심이 오히려 경계가 된다. 무심이라는 생각조차 없어야, 비로소 무심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한 생각이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곧 경계가 잊혀지고 마음이 저절로 사라져 다시 찾을 바가 없다.”

한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자각하면 저절로 사라진다. 생멸(生滅)이 적멸(寂滅)하면, 적멸이 위락(爲樂)이 된다. 공부가 되면, 무심을 짓는 게 아니라 저절로 무심이 되는 것이다. 한 생각 돌이켜 마음자리에 계합하면, 그것으로 안심하고 절로 일이 없어진다. 무심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저절로 무심해져서 아무 일이 없게 되는 것이 바른 공부다.

15. 출삼계

배휴가 물었다.
“어떤 것이 삼계(三界)를 벗어나는 것입니까?”

방편으로 욕계 · 색계 · 무색계의 삼계는 불타는 집과 같아서 빨리 벗어나라고 했지만, 사실 삼계가 그대로 법계라서 따로 벗어날 삼계란 본래 없다.

황벽스님이 말했다.
“선과 악을 생각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삼계를 벗어난다.

선과 악을 생각지 않으면, 자성이 요달된다. 자성이 요달되면, 선이나 악이라는 허망한 그림자에 끄달리지 않게 된다.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삼계를 벗어난 당처다. 알고 보면 삼계라는 것도 중생의 욕망의 불을 꺼트리기 위해 짐짓 빌려와 사용하는 방편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선과 악이라는 생각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몰록 본래면목을 밝히는 것이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㉞



신상信相보살이 그날 밤 꿈에 금고金鼓를 보았다.

〈금광명경〉

꿈은 꿈이 아니다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왕사성에 살던 신상(信相)보살은 어느날 밤, 꿈을 꾼다. 꿈 속에서 금북(金鼓)을 본다. 이렇게 금북이 나오기에, 〈금광명경〉을 〈금고경〉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설명 보다는, 직접 읽어보는 것이 더 낫겠다.

“그 모양은 지극히 크고, 그 밝음이 두루 비추기를 마치 햇빛과 같았다. 다시 그 빛 속에는 시방세계의 끝이 없고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 많은 보배나무 아래의 유리좌(琉璃坐)에 앉아계시는 것이 보였다. 한량없는 백천의 제자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부처님들께서는 법을 설하시고 계셨다. 바라문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당목(撞木)으로 금고를 쳐서 큰 소리가 나게 하였다. 그 소리는 ‘참회의 시’를 설하는 것이었다.”

꿈 속의 일이다. 생시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생시의 일이 아니라 해서 내팽개칠 수 없는 진실한 이야기가 있다. 금으로 만든 큰 북을 보았고, 그 금북으로부터 나오는 빛 속에서 부처님을 뵈었기 때문이다. 빛이라는 것이 한 줄기로만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실제로는 그 빛의 줄기마다 수많은 부처님들께서 유리좌에 앉으셔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설하시고 있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다. 그보다 더욱더 생시와 같은 일은 한 바라문처럼 생긴 사람이 친 북소리에서 흘러나온 ‘참회의 시’이다. 잠들기 전, 신상보살은 ‘참회의 시’ 중에서 한 구절도 기억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꿈속에서 듣고서는, 그 내용을 다 기억해 낼 수 있었다. 〈금광명경〉 참회품에 실린 이 게송은 매우 긴 장시(長詩)이다. 이 긴 시를 다 기억해 낸 것이다. 실제 우리들도 체험하지 않는가. 대개의 꿈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든가 충격적인 내용은 기억할 수 있지 않던가.

효봉 스님 역시 꿈 속에서 고려말의 고봉(高峰)스님이 설해주시는 게송을 받아왔지 않던가. 지금 〈효봉어록〉에도 수록되어 있다. 그러니 꿈이 언제나 허망한 것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파식적(萬波息笛)의 소리

꿈에서 받은 ‘참회의 시’는 물론 꿈이 아니라 생시에 설법을 들은 것으로, 경전의 편집자는 처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한 금고가 아니라 바로 부처님의 금구(金口)로부터 설해진 것이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 역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 재미있지 않은가. 대승경전을 읽을 때 이 형식이 주는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 재미는 반감될 것이다.

북을 치면 소리가 난다. 종도 마찬가지다. 소리가 난다. 북이나 종 뿐이던가. 소리에 신비한 힘이 있음은 예전부터 믿어오던 바이다. 다라니가 어떤 권능을 갖고 있다고 믿어지기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금고경〉 역시 마찬가지 입장을 견지한다. “이 큰 금고에서 나오는 묘한 소리는 삼세의 모든 고통을 다 소멸시켜 준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그 뒤에서는 그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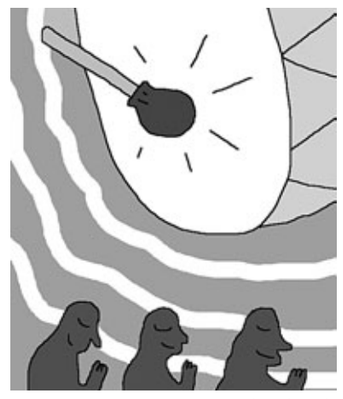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리가 ‘참회의 시’를 읊고 있으므로, 그 ‘참회의 시’에 따라서 참회할 때 모든 고통이 다 소멸된다고 하지만 말이다. 그 전에 먼저 소리 그 자체의 신비한 공능(功能)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어째서 그런 것일까? 소리에 힘이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다양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내 나름으로 답을 찾아본다면, 소리가 우리 ‘밖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우리 “안에” 있지 않아서가 아닐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대개 번뇌가 아니던가. 지금도 내 머리 속을 달리는 생각들, 그것들은 바로 번뇌 외에 무엇일까.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 안의 번뇌에 끊임없이 사로잡힐 것이다. 그렇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특히 아름다운 소리는 우리를 우리 안의 소리로부터 놓여나게 해준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나무차 소개」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 오전 7시 20분 MBC TV “고향이 좋다”「마가목」효능방영
■ **2013년 10월 16일 수요일 – 오전 5시 50분 KBS 1TV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 마을「마가목」효능 방영

한방문헌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 제조원 : 구암식품

■ 농협 : 227027-51-090791(예금주 : 남궁성균) · 식품제조업 : 대구 북 제00619호

사찰법당앰프 설치전문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법당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힘차고 장엄한 소리에 놀라실 것입니다!!

(소리가 마음에 안들 경우 대금은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씨리즈
전국일절 설치비 : 1,80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사회자용 마이크 스텐드 1대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CD기기 1대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고성능 구즈넥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 수강생 모집 >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30~9:00
■ 수강자격 :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 처명)

■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에서는 심리상담 및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연구소에 도움을 주실 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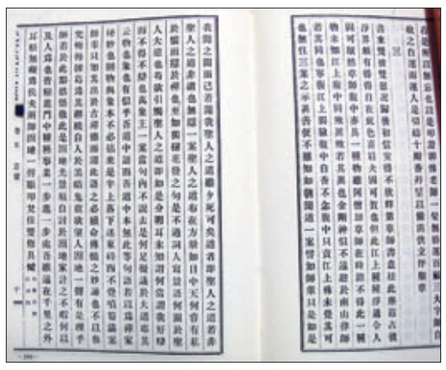
"어찌 유가에 '私' 있고 선가에 '隱' 있겠소"

추사는 강상(江上)과 복중(腹中)의 오탁 문제에 이어 무은(無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드러냈는데 이는 보기 드문 장문의 편지이다. 지난 호에 이어 〈완당전집〉〈여초의〉3신과 〈완당척록〉에 수록된 추사 편지의 후반부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무은(無隱)이란 공안은 성인의 도가 방책에 널려 있어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것과 같으니 어찌 유가(儒家)에서 사(私)가 있고 선가(禪家)에 은(隱)이 있겠습니까.

'홀로 선 나무에 꽃이 피다(獨樹花發)' 란 시인이 경치를 그린 말에 불과한 것이니 성인의 대도와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진실로 성인의 도를 끌어오고자 한다면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말해야 내가 말을 잘한 것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말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만상주일(萬象主一)"의 공안에서는 말하지는 않았으나 이것을 버리고 어떻게 대도와 견주어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물(物)은 상(象)이라 하였으니 (내가 말한 우리의)도와 비슷함이 있다는 말인데 우리의 도는 본래 이런 구절이나 말 같은 것은 없습니다.

만약 선가의 은미하고 오묘한 것이라 여긴다면 물과 상은 반드시 뽑아 올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반은 올라가고 반을 떨어지며, 동은 희미하고 서는 막힌 것이라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견디지 못할 지경입니다. 그대들은 다만 옛 선덕에게서 나온 줄로만 알고서 이 말이 명을 잇고 골수를 전하는 묘제라고 말하며, 참구하여 규명 하지 않아서 차츰 얽혀져 뒤엉켜서 스스로 어두운 귀신의 굴에 들어가도 사람에게 대오의 일성을 바라니 이런 이치가 있습니까. 그대가 만약 이에서 활연히 깨친다면 이것은 대오에 빛의 그림자이니 모름지기 스스로 대오의 제 집 찾을 계획을 토론하기에도 겨를이 없을 텐데 어떻게 남에게 미칠 수 있단 말입니까.


〈완당전집〉중 〈완당척록〉 수록된 추사의 편지

추사, '무은'으로 경지 드러내
초의, 추사의 '대오일성' 염원

모두 정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공부를 한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멀리 천리 밖에 있다지만 귀는 막히지 않았으니 두 스님들의 대오 일성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어 맑고 아름다운 가르침을 물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무주선사에 대한 답을 겸해 보냅니다.

(無隱一案 聖人之道 布在方冊 如日中天 何嘗有私於儒而隱於禪也 至如獨樹花發之句 是不過詞人寫景語 何關於聖人大道也 苟欲引觸聖人之道 卽如是分明已 未知謂何當謂我好辯而不得不辯也 萬象主一案 當句內不說 去是何足擬議於大道耶 其云物也象也 有似乎吾道中語 而吾道中 本無此等句語 若以爲禪家秘妙也則 物與象 本不必拈來 是半上洛下 迷東碍西 不覺噴筍滿案 師輩只知其出於古禪德而謂此語之必續命傳髓之妙諦也 不以參究 轉轉膠葛 爲其纏繞自入於黑暗鬼窟 欲望人囚地一聲 有是理乎 師若於此 豁然悟徹 此是囚地光景 須自討於囚地 家計之不暇 何以及人爲也 皆精進門中 種種事業 一步進 一步處 吾雖遠在千里之外 耳根無碍 爲俟夫兩師囚地一聲 順叩梵佳 雙修具椷 右兼答無住禪師)

추사가 말한 무은(無隱)이란 공안 중, 은(隱)에 대한 전고(銓考)는 〈중용〉의 "군자의 도(道)는 명백하게 드러나 알기 쉬운 듯하면서도 (그 가운데) 은미하게 숨겨져 있다(君子之道 費而隱)"라는 말에서 인용한 것이니 무은(無隱)이란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는 뜻이다.

그가 "성인의 도가 방책(方冊:성인의 글)에 널려 있어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은 바로 무은((無隱))을 말한다. 추사가 "만상주일(萬象主一)"의 공안에서는 말하지는 않았으나 이것을 버리고 어떻게 대도와 견주어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 점에 대해 초의는 〈답쌍수도인〉에서 이 점을 공감을 하면서도 추사의 대오일성(大悟一聲: 크게 깨달음)을 염원하였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시련이야말로
명상이
진정 필요한 때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때, 일자리를 잃었을 때
다툼이 생겨 괴로울 때, 질병으로 고통 받을 때
슬픔과 불안, 두려움, 분노로 마음이 괴로울 때
피할 수 없는 삶의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자존감을 잃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잭 콘필드 지음 | 정준영 옮김
192쪽 | 13,000원

미국불교 5대 지도자 중 한 명인 잭 콘필드 박사의 8가지 명상

대지는 나의 목격자 ● 연민 나누기 ● 시련 속의 붓다 ● 용서의 실천
● 치유의 사원 ● 아픈 마음의 선(禪) ● 평온과 평화 ● 최선의 의지

특히 삶의 고통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고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질 때 두드릴 수 있는 문이다.
– 존 카밧진, 추천사 중에서

마음을 꿰뚫는 단순하고 직설적인 가르침은 모든 위대한 스승의 특징이다.
잭 콘필드는 내적 평화와 치유를 위한 부드럽지만 매우 강력한 명상법을 제시하고 있다.
가슴 뭉클하며 매우 체계적이고 빈틈없이 완벽한 이 책에 나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 릭 핸슨, 『붓다 브레인』의 저자

이 작고 아름다운 책은 보석이다. 이 책은 당신이 어려움의 한가운데 처했을 때
당신의 본질인 영혼과 사랑, 지혜를 다시 일깨우도록 도와준다.
– 타라 브랙, 『받아들임』의 저자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물이 아래로 흐르듯 포교도 하심 갖고 해야"

임희웅 (제7대 포교사단장)

조계종이 진행하는 행사에 가면 빠지지 않고 보이는 갈색 옷을 입은 법사들이 있다. 행사 안내, 주변 정리 등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 이들은 바로 조계종 포교사들. 포교사들은 평소 사회 각계에서 포교 일선의 전법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10월 2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제25회 포교대상 시상식에는 유례없이 포교사들이 대거 모였다. 무슨 일이었을까. 바로 1기 포교사로서 포교사단 안착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임희웅 제7대 포교사단장이 포교대상을 수상한 것이었다. 임 단장의 수상은 재가자로서는 최초였다.

"이 상은 1만 포교사들을 대신해 제가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서 포교가 아닌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로 보이는 것이 포교라고 생각합니다. 여생 동안 묵묵히 포교일선에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날 임희웅 단장의 수상소감은 공연장을 가득 메운 포교사들의 마음을 대변했다.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며 밝게 웃는 그들이지만 이날 그들의 표정은 유난히 환희심에 차 있어 보였다.

대상을 받은 직후 임희웅 단장(81)은 인터뷰를 만류했다. 불제자로서 포교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20년이 넘는 그의 포교 여정에 대해 알고 싶었다. 직접 포교사단 사무실을 찾아 10월 29일 그의 포교 원력에 대해 들어보았다.

열혈 청년이 진성불자가 되기까지

사실 임 단장은 50대가 되기 전까지는 '일명 진성불자' 로 불리는 활발한 활동을 펼치던 불자기 아니었다.

1933년 태어난 그는 1953년 한국전쟁 직전 해병대에 들어간 열혈 청년이었다. 해병소위로 제대 후 쌍용그룹의 모태인 쌍용양회에서 근무하던 그를 불자의 길로 인도한 것은 그의 아내였다.

"1975년 김성곤 회장이 별세하며 퇴직 후 다양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 독실한 불자였던 아내가 절에 다니기를 권유했습니다."

1970년대 말이었다. 임 단장은 "처음에 불교에 빠진 것은 기복적인 부분이 컸다. 사업이 잘되라고 기도만 하던 나에게 변화가 온 것은 1980년에 이르러서 였다"고 털어놨다.

다니던 사찰의 스님이 건네 준 경전을 접하면서부터였다.

"집에서 가까운 관계로 동작구 현충원에 위치한 지장사에 다녔어요. 지장사에는 도선사 혜성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수능엄경〉을 읽어보라며 주셨어요. 〈수능엄경〉을 읽으며 '아! 불교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구나' 했습니다. 불교교리를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이 점차 커졌어요."

〈수능엄경〉은 부처님이 보살들이 닦는 수행법을 말씀한 경전이다. 임 단장은 1979년 2월 조계사에서 무진장 스님으로부터 수계를 받고 불자로 거듭났다. 임 단장이 포교사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이로부터 10여 년이 흐른 뒤였다.

"조계사에도 다녔는데, 하루는 조계사 불교회관에서 공부하는 자리가 있다고 하여 가게 됐습니다. 바로 동산불교대학이었어요. 바로 입학원서를 쓰고 4기로 입학하여 불교교리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졸업 할 때 즈음인 1995년 조계종에서 제1회 포교사 고시를 실시했어요. 조계종 포교사가 된 계기였습니다."

당시 동산불교대학에서는 무진장 스님이 직접 재가불자들을 교육했다.

"당시에는 특별한 원력, 어떤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무진장 스님의 말씀이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님은 모든 문제는 나 혼자의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스님의 가르침 덕분에 임 단장은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 특히 사회에서 '문제'로 낙인찍힌 재소자들의 문제점을 직접 듣고 그들의 어려움을 나누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됐다. 자연스럽게 임 단장이 포교사가 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한 포교활동은 교정교화가 됐다.

"처음 포교사가 돼서 수원 교도소에 갔을 때였어요. 당시에는 교정교화의 개념조차 미약했던 때였어요.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는 재소자들이 마음이 편해진다며 좋아하는 겁니다. 교육하는 내내 마음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욕심을 버리라는 불교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일찍 접했으면 이렇게 죄를 짓고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요."

이후 임 단장은 지속적으로 교정교화 활동을 펼쳐왔다. 수요일과 금요일이면 서울구치소와 영등포구치소에서 상담과 정신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같은 해부터 속초 원각사 강릉불교대학과 강릉 관음사 강릉불교대학에서 강사로서 이러한 포교사들의 활동이 중요함을 알리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포교사단 출범에 일조, 6대 · 7대 단장 역임

임 단장과 같이 포교사들의 열정어린 활동에도 포교현장은 열악하기만 했다. 활동에 대한 매뉴얼도 시스템도 없었다. 더 큰 문제는 포교사들의 개별적 활동을 한데로 묶을 조직이 없었던 것이었다. 네트워크가 되지 않다보니 애써 구성한 포교현장이 포교사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포교활동을 못하는 경우 무산되는 등 문제가 심각했다.

이에 포교사들은 역량을 모으기로 뜻을 모았다. 1998년 포교사 지역별 워크숍을 실시했다. 어떻게 효율적, 조직을 이끌고 포교 트렌드를 이끄는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여기서 군 · 교도소 · 어린이 · 청소년 등 각 분야의 포교사들이 포교 팀을 꾸리기로 결의했다. 또 이들을 총괄하는 단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2000년 3월 12일 전국의 포교사 2000여 명이 조계사에 모였다. 포교사단이 정식 출범한 것이다. 임 단장은 당시 운영위원으로 통일분과위원회를 맡게 됐다.

50대 접어들며 불교에 빠져
무진장 스님 · 아내 영향 포교 매진
교정교화 · 군포교 20년 정진
6 · 7대 사단장 맡으며 조직화 이끌어
여생 백의종군 마음으로 포교 계획

통일분과위원회는 남북 불교교류를 통한 관계 개선, 종교편향 바로잡기 등을 이끌었다.

군 생활을 오래한 임 단장은 또 군포교 팀을 끌었다. 임 단장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에는 파주 101여단 호국백일사에서,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는 제9보병사단 호국설악사에서 법회를 직접 진행하고 있다.

"호국설악사에서 였어요. 지금이야 군부대에서 지원이 어느 정도 되지만 당시에는 종교시설에 지원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재정적 여력이 없으니 공사현장에서 판넬이나 카펫 등을 주워서 깨끗하게 닦아서 법당을 만들었죠. 겨울에는 난방기구가 없어서 기름을 들통에 사서 직접 날라 불을 피워가면서 법회를 했죠. 군법당에 가는 중에 많이 온 눈으로 길이 미끄러워 정말 위험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법회를 하지 않으면 힘든 군생활 중에 잠시나마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법당을 찾는 장병들은 누가 보살핍니까(웃음)"

임 단장은 "처음에는 법당에 4~6명이 오다가 점차 늘어 60명가량이 법당을 찾고 있다"며 "장병들과 함께 법회를 볼 때 포교사가 된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임 단장은 법당이 없는 때는 교회를 빌려서라도 법회를 보곤 했다.

파주 호국백일사에서는 이웃종교의 시샘을 종교화합으로 승화시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호국백일사 창건 직후 군법당 건립이 불법이며 불사금은 뇌물이라는 개신교 부하장교의 무고로 당시 여단장인 김태복 장군이 소송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군법사가 없는 조그만 여단법당의 위기에 포교사단 군포교팀들이 나섰다. 매주 꾸준한 포교사들의 법회에 70명가량이던 법당을 찾는 군장병들이 350명으로 늘기도 했다. 이들은 성탄절을 맞아 호국백일사에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플래카드를 걸기로 했다.


파주 호국백일사에서 법회를 진행하는 임단장.


파주 호국 설악사에서도 군장병을 위해 법회를 열고 있다.



임희웅은 … 1933년 태어난 임희웅 제7대 포교사단장은 1957년 해병대 해병학교를 졸업하고 해병소위로 임관했다. 1979년 조계사에서 수계 받았으며 1996년 제1기 조계종 포교사로 2007년 조계종 전문포교사로 임명됐다. 임 단장은 16년 동안 군법당 법회(연 29회), 서울 구치소와 영등포 구치소에서 연 10회 이상 교정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2007년 제19회 포교대상 원력상을 수상했으며 2013년 포교대상 대상을 수상했다.

"종교화합 차원에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위병소 앞에 플래카드가 걸리고 나서 신문 등에 소개가 되며 화제가 됐어요. 이후 성당, 교회와 관계가 좋아졌어요. 호국백일사 사례를 계기로 조계사 등 많은 사찰에서도 성탄절에 플래카드를 걸게 됐습니다."

임 단장은 2010년에는 6대 단장으로서 포교사단 활동의 전면에 나서게 됐다. 임 단장은 6대 단장으로 있을 당시 조직을 정비했다. 대전、충청 지역단, 부산、경남지역단 등 권역별로 묶여있던 지역단을 분할해 세분화 했다. 회계 전산화를 도입하고 인트라넷을 만들어 공문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7대 단장으로는 무소유실천운동본부를 발족해 서울시 지원을 받아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 등을 펼치는 등 비영리 활동을 겸한 포교에도 나서고 있다.

"포교사단은 한사람의 힘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각계의 다양한 포교사들이 힘을 모으고 합쳐 활동하고 있습니다. 포교사단이 지금까지 든든히 자리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바로 포교사들의 원력 덕분입니다."

부인과의 사별, 포교원력으로 승화시켜

포교사단이 출범한 이후 임 단장에게는 시련이 찾아왔다. 그를 불자의 길로 인도한 아내와 사별한 아픔이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항상 곁에서 힘이 되어 줬어요. 그만큼 빈자리가 컸기에 아내를 보내고 나서 더욱 열심히 포교활동에 매진했던 것 같아요."

임 단장은 이번 포교대상 시상식을 앞두고 주최 측에 수상영상 속에 아내, 그리고 무진장 스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려주도록 부탁했다.

임 단장은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포교활동을 해야겠다' 고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인터뷰 중 임 단장은 지갑에서 빼곡히 도장이 찍힌 조계사 신행카드를 꺼내 보였다. 임 단장은 바쁜 포교활동 중에도 빠지지 않고 매달 조계사에 아내와 가족을 위해 인등키고 있었다.

집안에서 챙겨주는 사람이 없지만 임 단장은 수행으로 이를 극복했다. 임 단장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108배를 시작했다. 그 이후 하루 일과를 살폈다.



임희웅 포교사단장과 무진장 스님, 그리고 임희웅 포교사단장의 아내.

이 밖에 임 단장의 의지처가 된 것은 〈금강경〉 독송이었다. 임 단장은 목욕탕의 사우나에 가서도 반야심경 1독을 사우나 시간 기준으로 삼을 정도로 '경전 마니아' 가 됐다.

"이동 중에는 항상 핸드북으로된 〈금강경〉을 읽습니다. 금강경을 읽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경전을 못 읽을 때는 속으로 반야심경을 읊습니다."

임 단장은 "수행은 성불로 가는 길이고 그 길을 밝혀주는 것이 경전"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삶은 무명이란 벽에 막혀 있어요. 경전을 읽는 것은 그 벽에 구멍을 뚫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일단 구멍이 뚫리면 벽 저편을 볼 수 있어요. 평생을 가도 구멍 하나 못 뚫는 것이 수행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뚫어야 해요."

임 단장은 "각 개인이 소의경전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단장은 "자신이 수지 독송하는 소의경전을 매일 읽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변한다"고 말했다.

여생도 포교사로 매진할 것

임 단장은 "나날이 사회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단장은 포교사단 일을 하면서 흩어진 포교사들을 조직화 한 것이 가장 보람차다며 옛 활동을 술회했다.

"초장기 포교사단에서 선장 역할을 하던 임원들이 모두 힘들었어요. 사실 포교사들의 일은 자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다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선 서로 즐기고 있어요. 만나면 서로 웃고, 사실 불교계 단체 중에 임원 선거 등으로 내홍을 앓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임원을 감투가 아니라 봉사직이라고 생각하기에 포교사단에서는 그럴 일이 없어요. 마음이 열려 바라는 것이 없기에 서로 마음이 편합니다."

임 단장은 이러한 이들이 있기에 한국불교의 미래는 밝다고 전망했다.

"저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봅니다. 다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인재불사에 보다 더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설불사는 한계가 있어요. 늘려놓은 시설 유지하기 위해 기복 불교로 더욱 흘러갑니다. 사람을 키워서 불교를 널리 알려야 합니다."

임 단장이 추구하는 포교는 무엇일까. 임 단장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감성포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시대가 변했어요. 싸이의 말춤이 먹히듯이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감성적인 포교방법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불교에서는 일반 대중들이 추구하는 명예, 부 등 '상' 을 버리라고 말했어요. 지금은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버리지 말고 공정히, 또 주변사람들을 함께 살피며 사회를 밝히는 이로 되어달라는 겁니다."

임 단장은 이러한 포교를 위해서는 물과 같은 하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심은 물과 같아요. 물이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듯 하심으로 포교해야 합니다. 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는 모습, 내가 행동하고 말하는 하나하나가 주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진정한 포교 아닐까요. 저도 이제 한명의 포교사로서 저의 삶을 통해 포교하도록 더욱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법일기

어릴적 포교사 한마디가 불자의 길로

고등학교 재학 당시 불교와의 인연

누군가 출가를 하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니다. 다시 생각해도 스님이 된 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나의 불교와의 인연은 어머니로부터 시작되었다. 어머니는 결혼 후 여섯명의 딸을 낳으셨다. 당시 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던 할머니는 아들을 못 낳는다고 어머니를 아주 심하게 구박하셨다. 어느 날, 이런 어머니를 안타깝게 여긴 이웃집 아주머니는 어머니를 끌고 절로 가셨다. 그리고는 큰스님을 만나서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스님, 얘는요. 아들을 못 낳아요. 벌써 딸만 여섯이나 낳았어요. 어떻게 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기가막힌듯 스님은 한참을 쳐다 보시더니,

"글쎄,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나? 혹시, 삼천배를 하면 부처님이 잠깐 돌아보시기나 하실지…"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새벽부터 저녁 늦께까지 삼천배를 하셨고, 부처님이 감응하셨는지 결국 아들을 일곱 번째로 낳으셨다. 그것도 사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날에. 그이후로 우리 식구들은 똘똘 뭉쳐서 절에 다녔다. 70년대는 시골교회에서 크리스마스때 먹을 것을 많이 주었다. 그것을 먹으러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다녔다. 하지만 사탕과 초코렛을 준다는 수많은 유혹을 우리 가족은 뿌리칠 수 있었다. 혹시라도 일곱명 중 한명이라도 교회에 갈라치면 첫 번째 대장한테 우리는 부처님을 배신하면 안 된다고 교육을 단단히 받았다. 그러다 고등학교를 혼자 유학을 떠나 원주에서 생활하게 된다. 고등학교 1학년 봄, 토요일 오후 우연히 들르게 된 법응사 고등부법회에서 법문을 듣고



그림 · 박구원

가슴가득 환희심을 느낀다. 매주 토요일 법회에 다니면서 반야심경강의를 듣고 '불교는 과학이다' 는 확신을 가지며 불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당시 우리 사찰의 고등부는 포교주간이 있었다. 그 주에는 다른 친구들을 포교해 오는 것이다. 당시 신심이 가득찼던 나는 아침 조회시간 전에 각반을 돌면서 "너희들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생각해 보았니? 인생을 잘 살고 싶다면 우리절에 오기바래…" 하면서 나는 나름대로 포교를 하여 친구들을 법회에 나오게 하였다. 불자로 소문난 나에게 친구들은 불교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나 나에게 질문을 하였다. 가끔 모르는 것에 막힐때면 쉬는 시간을 기다렸다 법사님께 전화를 걸어 여쭤 보곤하였다. 이런 나를 법사님을 참 기특해하셨다. 법회 때 나를 칭찬하시는 법사님을 '나는 당연한 것을 했는데 왜 칭찬을 하실까?' 의아해 했던 기억이 난다.

어느 날 법사님은 고등부 법회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너희들은 한국불교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한다. 한국불교는 고목나무이다. 고목나무에는 새들이 오지 않는다. 지금부터 원력을 세우길 바란다." 나는 당시 법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을 한다. '언젠가 내가 어른이 된다면 나는 어린이 포교를 해야지. 아마도 그것이 한국불교를 젊게 만드는 것일꺼야' 하고 결심했던 기억이 난다.

아마도 그것이 씨앗이 되어 지금까지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정성을 쏟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나에게 이런 원력을 심어준 분을 스님이 아니였다. 3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게 되는 이름 "남화여 법사님". 당시 법사님은 공직에 계시면서 토요일마다 청소년법회를 이끌어 주셨고, 우리들의 마음에 부처님을 향한 마음을 심어주시려고 열정적으로 노력하셨다. 불교를 너무도 사랑하셨던 마음은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전달되어 결국 한명, 한명 큰 원력을 갖게 되었다.

나는 종종 제가포교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그 분이 생각난다.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받은 사랑과 영향을 생각하며 모든 포교사님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를 보낸다. 현재 한국불교는 포교의 위기에 서있다. 법사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린 우리에게는 전부였던 것처럼, 스님과 포교사님들의 법문 한마디 한마디는 부처님의 혜명을 잇는 동아줄이 된다.



자우 스님(비로자나국제선원 선원장)



일본·티베트·동남아 불교전통 공존

캐나다 불교계 사원, '앨버타 마을'





레이몬드 불교 사원(Raymond Buddhist Church)의 1932년 전경. 사원 앞으로 당시의 일본계 캐나다인 불자들이 보인다〈사진 왼쪽〉. 하딩 교수〈사진 오른쪽〉

존 하딩 교수 갈트박물관 초청강연서 밝혀
"캐나다 불자 40만명 육박… 내실 다져야 할 때"

"전래 100여 년 만에 40만 명에 육박하는 불자 수가 말해주듯 캐나다 불교는 지금까지 꾸준히 발전해 왔고, 그 저력의 원천은 '앨버타(Alberta) 마을'에서 찾을 수 있다."

캐나다 지역 매체인 〈레스브리지 헤럴드(Lethbridge Herald)〉 지는 10월 30일 열린 갈트(Galt) 박물관 주최 특별 강연에서 존 하딩(John Harding, University of Lethbridge · 사진) 교수의 말을 인용, 이같이 전했다.

이번 특별 강연은 10월 28일 열린 갈트 박물관의 '종교와 문화' 주제 기획전의 관련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강사로 초청된 하딩 교수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불교의 현대화를 연구하고 있다.

이날 강단에 선 하딩 교수는 "캐나다 불교도 수는 2000년대 초 이미 35만 명을 넘어섰고, 이제는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2004년 달라이 라마의 다섯 번째 방문과 2013년 토론토 시의 '부처님 오신날 공식 선포' 등의 과정을 거치며, 캐나다 불교계의 역량과 불자들의 신심이 더욱 넓어졌다"며 "이제는 내실을 다져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레스브리지 헤럴드〉 지에 따르면, 하딩 교수의 '내실 다지기'는 캐나다 불교계의 초석을 다지며 지역 간의 허브(Hub) 역할을 해왔던 레스브리지 지역의 '앨버타(Alberta) 마을'의 중요성을 강조한 까닭이다.

캐나다의 불교 전래는 지금까지 '1858년 중국인 광부들의 유입'과 '1929년 일본인 이민자들의 유입' 등 두 가지로 이야기되고 있다. 하딩 교수는 이중에서 '일본인 이민자들의 유입'에 주목한 셈이다.

당시 일본인 이민자들은 처음에는 벤쿠버 지역에 정착촌을 만들 요량이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의 '대 일본인 이주 정책'이 시작되면서 레스브리지 지역으로 이동, 정착촌이 건설됐다. 한편 '이주 정책'은 일본인을 한 곳에 모으는 결과도 낳았는데, 이는 캐나다 불교가 정착촌 건설과 함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

"지금도 레스브리지 지역의 문화 속에서는 일본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고 전제한 하딩 교수는 "일본인 이민자들이 레스브리지의 앨버타 마을에 처음 세운 사원은 조도신슈(Jodo Shinshu)계 불교 사원"이라며 "그 사원이 '레이몬드 불교 사원(Raymond Buddhist Church)'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불교 공동체인 앨버타 마을의 활동은 비단 불교계 발전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의 영성 운동에도 자극을 주었다"고 강조한 하딩 교수는 "이는 앨버타 마을이 신앙의 허브 역할을 했다고도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지금의 캐나다 불교계는 일본 이외에도 티베트와 동남아시아 불교의 무대가 되고 있지만, 그 시원은 어디까지나 '앨버타 마을'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레스브리지 헤럴드〉 지에 따르면, 캐나다는 스위스에 이어 두 번째로 티베트 난민을 받아드린 국가인데, 이는 당시 앨버타 마을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캐나다 불교계의 노력의 성과이다. 1971년 시작된 캐나다의 '티베트 난민 정착 프로그램'으로 현재 4000여 명의 티베트계 캐나다인들이 퀘벡 온타로 토론토 벤쿠버 등지에서 살고 있다.

이와 함께 〈레스브리지 헤럴드〉 지는 "캐나다에서 가장 불교단체가 많은 도시는 134개 단체를 가지고 있는 온타리오이며,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94개, 퀴벡에도 63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다"고 전하고 "캐나다의 불교도 수는 1991년 16만 3415명이었고 현재 4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할 만큼 급성장했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불교의 美에 미국이 빠져들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신라 특별전… 보고난 외국인들 반응 남달라

불교문화가 꽃피워낸 아름다운 신라문화에 외국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계 4대 박물관 중 하나인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에서 11월 4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진행되는 '황금의 나라, 신라(Silla, Korea's Golden Kingdom)' 특별전에 세계인들의 호기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언론을 대상으로 특별전 사전공개 행사를 가졌던 10월 28일에는 전 세계 언론사 기자 100여 명이 몰리기도 했다. 미술관 측은 1주일간 박물관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전공개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프랑스 통신사 AFP는 "한국의 더없이 아름다운 보물들이 뉴욕을 찾았다"며 신라문화와 예술을 주제로 서구에서 개최되는 최초 특별 전시인만큼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고 토마스 캠벨(Thomas Campbell)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관장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전시회를 위해 방한하기도 했던 캠벨 관장은 "신라 유물만 집중 조명하는 최초 전시회로 신라의 탁월한 예술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특별전에는 신라의 대표적인 유물인 석굴암의 디테일을 영상으로 전달한다. 풀HD 보다 4배 더 생생한 화질이다.

한 외신기자는 국외반출로 논란이 됐던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의 유려함과 미소가 모나리자보다 더 신비롭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미국의 월간 미술전문 잡지인 아트뉴스(ARTnews)의 로빈 셈발레스트(Robin Cemmbalest) 편집 담당 중역은 "환상적이고 황홀하다"며 "신라 예술품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으며 정교한 기술에 놀랐다"고 말했다.



신라 특별전을 관람한 도로시 골드만 씨는 "이제까지 본 것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전시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알렉산드라 먼로 구겐하임미술관 수석 큐레이터 또한 "신라의 문화에는 관람객을 끌어당기는 마력이 있다"면서 "이번 전시회는 신라 미술을 통해 미국인들이 한국 미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신라 특별전시관은 관객이 가장 많은 1층 그리스 로마 전시관 바로 옆에 배치됐다.

연간 관람객이 650만명인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은 신라 특별전이 개최되는 동안 관람객수가 100만명이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배현진기자

티베트 스님, 중학교 일일 교사로 나서

종교문화 수업 일부로 美 학교에서 수업 진행



엘 카미노 중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이 종교문화 수업의 특별 선생님으로 초빙된 스님으로부터 티베트 문자 쓰기 지도를 받고 있다.

스님들이 중학교 일일 교사로 강단에 섰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타 마리아(Santa Maria)에 위치한 엘 카미노(El Camino) 중등학교에서 티베트 스님들이 학생들에게 불교 문화 포교사로 나섰다고 선(Sun)지가 10월 23일 보도했다.

드레펑 고망(Drepung Gomang) 사원의 스님 세 명은 10월 17일 중등학교 7학년 반을 방문해 오후 수업을 진행했다.

"아이들이 다른 세상과 신념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멋진 기회입니다."

엘 카미노 학교 선생 리사 뮤첼(Lisa Muetzel)은 이같이 말하며 "세계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종교를 배우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스님들은 미국 전역을 방문하며 티베트의 문화적 전통과 불교 철학을 사람들에게 전한다.

이날 수업에서 학생들은 염불하는 법 외에도 스님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듣고 불교의 기본 가르침에 대해 배웠다. 또한 '옴 마니 반 메 훔'을 써넣은 룽다를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다. 룽다는 티베트에서 경전의 심오한 뜻이 널리 퍼지기를 기원하기 위해 높은 곳에 매다는 오색 깃발을 뜻한다.

수업을 진행한 게쉬 롭상 체첸(Geshe Lobsang Tsetsen) 스님은 "염불 속 각각의 단어들에는 힘이 깃들어 있다. 각각의 단어들이 함께 함으로써 순수함과 선한 에너지를 지닐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7학년인 에스메랄다 로드리게스는 "다른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스님들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온 것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배현진 기자

조지 왕세손이 불교를 믿는다면?

英 기자, 왕세손 세례식서 질문



영국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비의 아들인 조지 왕자.

국교회의 나라 영국에서 왕족의 개종은 가능할까?

〈텔레그라프(Telegraph)〉지는 10월 25일 캔터베리 대주교 저스틴 웰비(Justin Welby)의 말을 인용, "왕족, 특히 영국인의 관심이 집중된 조지(George) 왕세손 또한 문제 되질 않는다"고 전했다.

대주교의 말은 최근 제임스 궁전의 예배당에서 열린 '조지 왕세손 세례식'을 취재하던 '채널 4' 기자의 "조지 왕세손이 국교가 아닌 불교를 선택한다면…"이라는 질문의 대답이다.

이 자리에서 기자의 치기어린 질문을 받은 캔터베리 대주교 저스틴 웰비는 "그(조지 왕세손)에게는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우리는 그 자격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주교는 "그러한 일은 앞으로 오랜 세월이 지나야 알 수 있지 않겠냐"며 여운을 남기고, "우리는 매우 다원화 된 문화를 공유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며 "이를 흥미롭게 지켜보는 나 역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살아가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9년 영국 인구 조사에 따르면,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40.9%로 크게 증가했고, 기독교인 비율은 55.7%로 낮아졌다. 또한 국교회 신자 비율은 33.4%, 천주교인 14.7%로 조사됐다.

즉, 영국의 기독교인 비율은 낮아진 반면 무신론자와 불교와 이슬람 등 다른 종교의 비율이 소폭 상승한 셈이다.

오종욱 편집위원

설법·화술
설법제일 부루나존자가 되자

교육내용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회의진행법 등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교육일정
◆ 일시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종합반"
◆ 장소 : 서울 종로 3가 16 고영빌딩 '국민은행 7층'
◆ 지도 : 40년의 경륜을 지닌 인성교육 스피치 임상심리에 전문가인 설법 연수원의 "又佛 김철회 원장"이 총괄 지도함.

※ 한국 설법연수원장 김철회 박사는 현재
사)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이사장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대한최면심리학회 부회장으로서
최면치료 지도사이기도 함.

◆ 문의 : 010-7248-1567 / 02)747-1567

韓國說法研修院
서울시 종로3가 16 고영빌딩 국민은행 7층 / 1.3.5호선 종로 3가역 1번,2번 출구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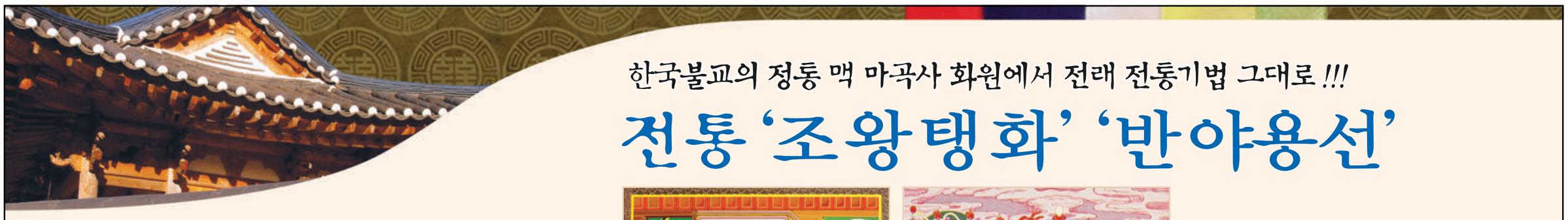


불결한 것을 미관이 수려한 규격품으로

■ 미관이 아름답습니다.
■ 청소하기가 간편합니다.
■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습니다.
■ 양초판매가 증가합니다.
■ 보시용으로 적합합니다.

크 기	가 로	세 로	높 이	재 질
50개꽂이	90cm	60cm	150cm	스테인레스
100개꽂이	150cm	90cm	150cm	폴리카보네이트
대초기준	※ 위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문제작 가능			

사찰시설물 제작 전문업체
세 영 금 속
TEL 031)466-3356 H·P 011-269-3356



한국불교의 정통 맥 마곡사 화원에서 전래 전통기법 그대로 !!!

전통 '조왕탱화' '반야용선'

조왕탱화

부엌의 신인 조왕신(부엌을 관장하는 신)을 묘사한 불화. 사찰의 조왕단(竈王壇)에 봉안된다.
신중탱화의 일종이며, 조왕신앙은 우리나라 재래의 민간신앙이다.
불교에서는 배척하기 보다는 포용하고 정화하여 나가는 방법을 택한다.
불교에서는 황신(荒神)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왕신, 중국은 염제(炎帝), 일본은 가마도신. 모두 불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탱화에는 보통 조왕대신을 중심으로 좌측에 담자역사(擔紫力士) 우측 조식취모(造食炊母)가 그려진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조왕단에 탱화 대신 '南無 竈王大神(나무조왕대신)' 이라는 글자를 봉안한다. 조왕은 호법선신중(護法善神衆)의 하나로 인사(人事)를 검찰하고 선악을 분명히 가리는 신으로서 참여한다. 그러나 조왕은 다시 불교적으로 정화된 뒤 산신, 용왕, 칠성들처럼 독립한다.

■ 크기 : 가로 61cm × 세로 91.5cm
■ 재료 : 천연면포, 순금 99%(평금), 안료, 가금(금니)
■ 형태 : 가리개형, 괘불형



조왕탱화



반야용선

반야용선

어지러운 세상을 넘어 피안의 극락정토에 갈 때 탄다는 배를 말한다. 반야(般若)란 모든 미혹(迷惑)을 끊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힘이나 모든 법을 통달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을 뜻한다. 반야용선도는 망자를 위해 걸었던 그림으로, 그림에는 보통 좌로부터 극락의 주인인 아미타부처, 극락으로 인도하는 깃발을 든 인로왕보살, 반야용선과 망자가 표현되며 슬픔에 젖은 유가족이 그려지기도 한다. 즉 반야용선이 그려진 것은 망자가 아미타부처가 계시는 서방 극락정토에 왕생(往生)하기를 염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크기 : 가로 90cm × 세로 130cm
■ 재료 : 천연면포, 순금 99%(평금), 안료, 가금(금니)
■ 형태 : 가리개형, 괘불형

한 탱화 수강 신청안내

불모의 도움을 받아 한 탱화 조성 과정(1.출초 2.배접 3.아교포수 4.도채 5.바림 6.문양 7.금니 및 황선쫓침 8.금박붙이기 9.상호 10.틀 싣기 11.발미)을 통해 탱화의 기초와 기능을 함께 배우면서 완성도 높은 예배용 탱화의 완성이 목표

– 모집분야 : 한 탱화과, 기초기반(도안)과, 교육 민화(단청)과
– 모집인원 : 서울 (한 탱화과 20명 / 교육 민화 단청과 20명).
경주 (한 탱화과 10명 / 기초기반 도안과 10명). 부산 (한 탱화과 10명)
– 교육장소 : 서울 – 양천구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한국전통채색학교
경주 –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1008-16 한국전통채색학교
부산 – 진구 연지도 부산시민공원 인근 한국전통채색학교
– 신청방법 : 전화접수,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
– 교육일정 : **2013년 10월 16일 – 2014년 3월 16일 (5개월)**

성유불화원 금어 조성철 합장
문의 051)332-0045 / 010-9216-0988



템플스테이, 이것만은 알고 가자!

사찰 예절, 건축물, 조형물, 벽화, 도구, 불교의 상징물, 예불, 사찰 생활, 수행법, 예불문과 경전 해설, 애송되는 불교 명문 등으로 구성.
불자들은 불교를 더욱 분명히 이해하게 하고, 일반인들은 불교에 대한 기본 지식과 불교의 정신세계를 맛볼 수 있게 하는 책!

템플스테이 길라잡이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을 위한 안내서이자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을 위한 불교입문서!

남궁 선 엮음/신국판 컬러/303쪽/값 15,000원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백봉 김기추 거사의 선이야기

일상생활이 바로 수행이 되는,
일반 재가자들을 위한 새로운 공부 방편!
거사풍 불교를 일으켜 세운 백봉 선생의 새말귀 수행!



백봉 선생의 가르침 가운데 요긴한 것들을 간추려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대화의 형식을 취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안경에 편집/신국판/350쪽/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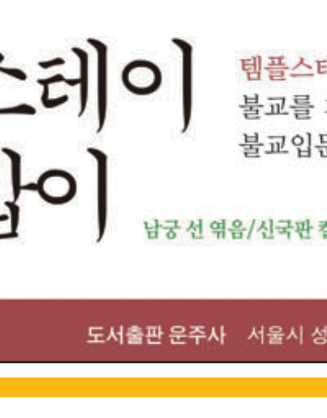
---

直指人心

천문학자 이시우 서울대 명예교수의 직지에 대한 단상

초판 일주일 만에 2쇄 발행

직지直指, 길을 가리키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뛰어넘는 가르침, 선불교의 정수《직지》

선불교는 더 이상 풀지 못할 미지의 세계가 아니다.

천문학자 이시우 서울대 명예교수가 선불교의 정수가 담긴《직지》를 연기론적으로 풀어낸《직지, 길을 가리키다》. 접근 불가능한 영역으로 여겨지던 선을 논리적으로 접근하여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여 현대 사회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연기론적인 시각에서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아주 쉽게《직지》에 다가갈 수 있다. 저자의 별처럼 빛나는 통찰력과 혜안으로《직지》에 담긴 게송과 선문답에 대한 촌철살인의 단상(斷想)으로 이루어진 이 책이 가리키는 대로 걷다보면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열릴 것이다.

■ 이시우 지음 / 648쪽 / 29,500원 / 신국판 변형 양장

민족사 ☎구입 문의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민족사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마음의 비밀 – 알기 쉬운 유식입문

표층과 심층이 연결되는 비밀의 코드, 아뢰야식!





유식(唯識)에서는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아뢰야식이라고 한다. 마음의 표층에서 생기는 감정이나 사고는 모두 아뢰야식에 축적되어 무의식중에 표정, 몸의 상태로 나타나 외모에까지 영향을 준다.
표층과 심층이 연결되는 비밀코드를 알면 누구든지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책은 갖가지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마음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 요코야마 코이츠(横山紘一) 지음, 김명우 옮김
232쪽 / 10,800원 / 4×6판

Tel. 02)732-2403~4 민족사

화두 참구의 길잡이!
깨달음의 길을 찾는 이들을 위한 선 수행의 필독서!
드디어 5년 만에 재간되다!

원문을 번역하고 현토(懸吐), 주와 해설을 붙인

벽암록 완역판



공안집의 최고봉, 선(禪)문화의 총결산《벽암록》, 최초의 완역본! 석지현의 명쾌한 해설로 만나다.

■ 원오극근 저 · 석지현 역주 해설 / 신국판 / 145,000원 (세트)

Tel. 02)732-2403~4 민족사

경주박물관, 사리공양석상 공개

10월 29일부터 불교미술실서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은 사리공양석상 등 경주 금장대 출토품 3점을 상설 작품으로 전시한다. 이들 작품은 10월 29일부터 미술관 1층 불교미술I실에서 새롭게 선보인다.

경주 서천가의 석장동 금장대(金丈臺)에서 1980년에 수습된, 이른바 사리공양석상 1점은 경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상설전과 특별전에 출품된 바 있다. 그 뒤 2011년에 계림문화재연구원이 실시한 금장대 발굴조사 당시, 인물상이 새겨진 또 다른 석상 1점과 거북무늬석상 1점이 조선시대 건물터의 주춧돌 자리에서 출토되었다.

경주박물관은 "이번 전시에서는 2011년 금장대에서 새로 나온 석상 2점을 일반에 최초로 공개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알려진 경주박물관 소장품 1점을 함께 선보이는 첫 번째 자리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인물상이 새겨진 석상 2점은 정면에 새겨진 조각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화면 가운데에는 탁자 위에 뚜껑 덮인 그릇이 놓여 있고, 그 주변으로 상반신이 사람 형상을 한 상상의 새인 가릉빈가(迦陵頻伽)와 함께, 그릇을 향해 합장하는 하늘의 천인(天人) 10명의 모습이 좌우대칭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 장면의 주제는, 대개 가운데에 놓인 그릇을 불사리기(佛舍利器)로 보아 사리를 공양하는 모습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그릇을 향로(香爐)로 간주하여 향로공양 장면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

거북무늬석상은 아직까지 비슷한 예가 발견되지 않은 독특한 형상이어서 주목된다. 물결(또는 구름) 위에 고개를 한쪽으로 돌린 거북이를 입체감 있게 새겼다.

이번에 소개하는 3점의 석상은 통일신라 8~9세기 부조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경주박물관은 "사리공양석상의 경우 현재 거의 전하지 않는 통일신라 회화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희귀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054)740-7535

정혜숙 기자





경주박물관이 불교미술실을 새단장했다. 사진 왼쪽은 사리공양석상과 오른쪽은 거북무늬석상.

"〈능엄경〉 춤으로 풀며 불교에 푹 빠졌어요"

마묵무용단 '아난아,아난아' 11월 13일부터 성균소극장서



윤민석 감독

"불교라는 종교에 무지했던 제가 〈능엄경〉이라는 수승한 경전을 공연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은 정말 큰 도전이었습니다. 성균소극장 이철진 대표님의 제안에 선뜻 해보겠다고 대답을 했죠. 하지만 이 작품은 저에게 있어 너무나 큰 산이었고 또 그래서 너무나 매력적인 과정이었어요."

〈능엄경〉을 무용으로 풀어낸 마묵무용단 윤민석 감독의 '아난아,아난아'가 11월 13일~19일 대학로 꿈꾸는 공작소와 11월 22일~24일 대학로 성균소극장에서 각각 공연된다.

〈능엄경〉은 〈금강경〉·〈원각경〉·〈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과 함께 강원의 사교과(四敎科) 과목으로 채택되어 왔다. 시공간 사이의 깨달음을 춤으로 보여준 '바르도'를 작품으로 풀어낸 윤 감독은 이번 작품에서 〈능엄경〉의 판타지와 스토리를 토대로 인간적 구애 중심의 삶과 존재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분분한 심연을 추상적으로 풀어냈다.

윤민석 감독은 "〈능엄경〉 속에는 스토리라인과 판타지가 매우 풍부해요. 아난이 창녀의 주술에 빠져 파계할 위기에서 구원을 얻는 장면에서 내용이 시작되죠. 이후 부처님과의 대화를 통해 7도 윤회, 50변마장 등 시공을 초월하는 판타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장엄한 장면을 몸짓으로 풀어내기 위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고 윤민석 감독은 말한다. "작업의 첫 단계로 능엄경을 찾아 읽고 또 읽었어요.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머릿속은 더 복잡해지기만 했어요. 불교라는 종교에 무지했던 저였기에 더욱 더 어려웠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알 수 없는 매력을 느끼는 경이 또한 〈능엄경〉입니다."

40대가 접어들면서 흥행 위주의 작품에서 벗어나 삶의 의미를 찾고 싶었다는 윤민석 감독은 이렇게 〈능엄경〉을 통해 불교라는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되었다. "대원사 주지 석문 스님의 자문을 구해 공부를 했어요. 〈능엄경〉은 밝은 깨달음을 깨우치기 위한 방법들을 말씀하셨어요. 혼자서 속상했던 일들도 〈능엄경〉을 읽으면 풀렸어요. 그

〈능엄경〉 공부하며 불법 공부 시작
단원들과 3천배하며 안무 구상
"앞으로 시리즈로 작품 만들 터"

렇게 경을 통해 마음의 원리를 공부하고 수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죠."

석문 스님의 입재하에 단원들과 함께 매달 3천배를 올렸다는 윤 감독은 이를 통해 왜 절수행을 해야하는지 깨달았다고 한다. "오래전부터 같이 작업을 했던 친구들이라 단원들도 거부감 없이 함께 3천배를 할 수 있었어요. 3천배, 물론 힘들죠. 2천배가 넘어가면서 한계에 부딪히고 마음에 갈등이 일어요. 절을 하면서 육체를 인식하게 되고 이 육체가 저의 업을 쌓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는 것이 확 와닿았어요. 이렇게 고비를 넘기면 마음의 갈등이 멈추고 다시 평정심을 찾죠. 그렇게 3천배가 마무리되면 그것이 곧 선의 세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선택은 무식함을 드러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하는 윤 감독. 그만큼 불교에 갓 입문한 그가 〈능엄경〉을 몸짓 언어로 풀어내는 것이 어렵고도 어려웠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의 새로운 도전은 불교계에서도 무용계에서도 환영받을 만하다. 〈능엄경〉 중심으로 불교공부를 하고 있다는 윤 감독은 앞으로도 춤과 불교수행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의미 있는 작업을 하고 싶다는 바람과 〈능엄경〉 공부는 같은 방향인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능엄경〉을 연속적으로 작업을 하고 싶어요. 능엄경을 계속 공부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지혜를 얻어 이를 춤으로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한편, 윤민석 감독은 한성대 무용학과를 나와 파리 8대학 공연예술대학 무용학과를 수료했으며 경기대 국제문화대학원 무용극전공 무용학 석사를 받았다. 서울예대 겸임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국민대와 숙명여대에 출강중이다. 공연으로는 육완순 현대무용 50년 페스티벌 '나비(butterfly)' 안무, 성균소극장 화요상설공연 '하얀코끼리' 등 다수가 있다. (02)747-5035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능엄경〉을 무용으로 풀어낸 윤민석 감독의 '아난아,아난아'가 11월 13일~19일 대학로 꿈꾸는 공작소와 11월 22일~24일 대학로 성균소극장에서 각각 공연된다.

동국대 총동창회 '2013년 동국미술대전'

11월 16일부터 총 114점 전시

동국대 총동창회가 주최하는 2013년 동국미술대전이 11월 6~12일 인사동 아라아트센터에서 열린다. 동국대 동창회관 건립기금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는 미술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국대 교수 9명과 동문작가 105명 등 모두 114명의 작품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연꽃을 소재로 한 김창균의 '심연', 손연칠의 석가모니불 좌상, 고승희의 '내가 너인지 네가 나인지', 권지은의 'Offering to you'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동국대 총동창회는 "이번 전시회는 동국대 미술학부의 불교미술 작품과 한국화, 서양화, 조소 등 각 미술 장르에서 독창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02)733-1981

정혜숙 기자



고승희의 '내가 너인지 네가 나인지'

구도자의 정신 불화로 꽃피우다

불화장 이수자 회원 불자 한자리에

중요무형재 118호 불화장 이수자 회원들의 불화를 한 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제 3회 돌샘 불화작품전이 11월 23일까지 통도사 성보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故 석정 스님이 이름을 붙여준 돌샘회는 통도사 성보박물관 불화반에서 이수한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격년제로 전시를 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각해월의 괘불, 권영수의 아미타삼존 등 다양하게 불화를 감상할 수 있다.

돌샘회 회장 이순자씨는 "불화 조성은 한순간에 전광석처럼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한 삼매의 인내가 따라야 하는 일이다. 물방울이 바위를 패이게 하듯 구도자의 수행처럼 끝없이 닦아야 과정을 불화 그리기 조성에 열정을 태우고 있다"고 설명한다.

찬조 작품도 화려하다. 수안 스님의 '반야심경전각', 송천 스님의 '동진보살', 전연호 씨의 '보현보살', 정병국 씨의 '관음보살', 하경진 씨의 '석가모니원불탱', 조해종 씨의 '석가모니후불탱', 오기웅 씨의 '십이지신', 이승규 씨의 '관음보살'이 출품된다. 한편,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불화 전문 박물관으로, 불화반은 1999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으며 석정 스님의 이수자가 60명 넘게 배출되었다. (055) 382-1001

정혜숙 기자



권영수의 '아미타삼존'

BBS 마인드 힐링 콘서트 '고맙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11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콘서트가 마련된다. 부산BBS에서는 창사 18주년 기념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BBS 마인드 힐링 콘서트 '고맙습니다'를 마련한다.

11월 8일 오후 7시부산시민회관 특설무대에서 2시간 동안 무료로 펼쳐지는 이번 콘서트에는 '멀어져간 사람아'의 박상민, 'Tears'의 소찬휘, '나 같은건 없는건 가요'의 추가열, 크로스오버 아티스트 비뮤티, 현대불교음악가 야운 등이 출연한다. 관람료는 무료

박경수 부산지사장

since1973
2014년 불교달력 특별가격
동진기획·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070-7425-0518 H.P 011-554-2988











제브라붓펜 3호 입하!
50자루 이상@2100원
정가 3000원



• 12절(소)달력
3,000부 이상 @ 800원
2,000부 이상 @ 900원
• 200부이상 @1,000원
• 규격 : 25.8cm×26.5cm

• 한지달력
200부 이상 @ 1,500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30cm×63cm ★국판3절
• 매수 : 13장
• 전통 인견한지 달력입니다.

• 탁상달력
200부 이상 @ 1,500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26cm×19cm
• 탁상용 달력중 가장 큰사이즈

• 수첩달력 200부 이상 @ 650원
• 2000부@600원 • 100부@800원
• 규격:9.5cm×13.4cm • 매수:18장

• 미니달력 200부 이상 @ 450원
• 2000부@400원 • 100부@600원
• 규격:8.9cm×9.5cm • 매수:16장

卐은 우주 대순환 추상력 표현, 卐=여래

강우방 원장의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卍→卐 ㊦

여래나 보살의 가장 중요한 곳, 이마와 정수리와 손과 발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이라 할 수 있는 가슴에 큰 卍이란 영기문의 조형을 표현한 것은 필경 대단히 중대한 상징을 보여주고 있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래의 발자국에도 卍이 표현되어 있다. 왜 영기문인지는 차차 알 수 있다. 불교미술 뿐 만 아니라 모든 장르의 미술품에는 卍이나 卐의 조형이 있는데, 요즈음은 모두 卍字라고 부른다. 글씨라는 이야기다. 지금 이 연재는 문자언어의 오류를 고치고 있는데 원래 글자가 아닌 것을 후대에 문자언어로 바꾸어 오류를 더 해가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러면 조형언어를 해독하여 가는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 보려한다.(그림 ①)

그림 ① 에서 오른 쪽으로 도는 卐이라는 조형의 기원과 전개를 자세히 다루어보려 한다.

① 모든 영기문은 오른 쪽으로 도는 제1영기싹으로 부터 시작한다.

② 그 조형을 여러 번 반복하면 여래와 보살의 이마 한 가운데의 백호(白毫)가 되는데, 여래와 보살의 이마에 흰 털이 날 리 없다. 그것은 이마에서 강력히 발산하는 영기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조형은 조각으로 나타낼 때는 둥근 보주로 변하는데 왜 그러한지는 다음 연재에서 다루려 한다.

③ 제1영기싹을 면(面)으로 엇물리게 하여 회전시키면 나머지 조형은 자연히 생겨 우리가 아는 태극이 성립한다.

④ 제1영기싹의 면을 세 개 엇물리게 하여 회전시키면 삼태극(三太極)이 되고

⑤ 제1영기싹의 면을 네 개 엇물리게 하면 사태극(四太極)이 되는데 숫자도 중요하지만 요점은 우주의 대순환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⑥ 제1영기싹을 상하좌우(上下左右) 사방으로 연이어 만들면 전체적으로 오른 쪽으로 도는 강력한 영기문이 된다. 즉 확산하면서 순환하므로 우주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가장 적합한 조형이라 할 수 있다.

⑦ 여래의 가슴에 표현하는데 있어서 ⑥처럼 돌돌 말린 조형보다는 직선적인 조형이 굳세고 남성적이어서 더 잘 어울릴지 모른다. 이렇게 하여 卐이란 조형이 성립했다고 생각한다. ⑦' 는 면(面)으로 그린 것으로 바로 이것을 여래와 보살의 가슴에 표현한다.

⑧ 卐의 각각 네 끝 마다 꺾이면서 ⑥의 조형에 가까워진다.

⑨ 끝이 한 번 더 꺾어지면 ⑥의 조형과 근본적으로 일치하여 순환의 상징을 더욱 강하게 나타낸다. 그러므로 여래의 가슴에 위의 어느 것도 표현할 수 있다.

일렁이는 파도는 물을 상징한다

그림 ②의 ⑩에서 제1영기싹이 연이어져서 파도를 나타낸다. 제1영기싹은 물을 상징하는데 이 진실은 인식의 문제이므로 지식으로 전하기 어렵다. 어느 제자는 2년 동안 나의 가르침을 받아왔었는데 2년 만에 제1영기싹이 물을 상징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다. 즉 제1영기싹은 현실에서 보는, 봄에 땅을 뚫고 나온 싹이 아니다. 물론 그 싹이지만 형이상학적으로 변화된 고차원의 추상적 조형이다. 그리고 그저 잔잔한 물은 표현하기 어려우므로 이렇게 제1영기싹을 연이어 조형을 만들면 대개 파도를 연상하지만 파도는 실은 '물', 즉 '만물생성의 물'을 상징한다. 즉 '파도=물'이다. '영화(靈化)된 물'이다. 그래서 이러한 조형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다. 더구나 용(龍)은 물을 상징하므로 용의 지느러미는 파도무늬이다. 일본 기또라 고분의 용 그림에서 지느러미는 바로 이런 조형이다.(그림 ③) 그러므로 지느러미가 아니다.

위에 든 그림 ①의 9개의 모든 조형의 전개는 오른 쪽으로 휘도는 제1영기싹에서 시작하여 전개하였으므로, 모두 '오른 쪽으로 도는 물'을 상징한다. ①과 ⑦의 조형은 근본적으로 같다. 대상이 중생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는 卍의 형태가 많으며 글자인 卍字라고 부른다. 그런데 대상을 바라보는 중생의 입장에서는 卐이란 조형, 즉 제1영기싹이 넷이 모여 오른 쪽으로 휘도는 영기문이 맞다. 즉 여래를 경배하는 중생의 입장에서 보는 형태로 표현해야 중생을 먼저 배려하는 불교사상과도 일치한다. 처음에는 경전에 있는 대로 卐이란 조형처럼 우선(右旋: 오른 쪽으로 도는 것)이어야 하는데 언젠가부터 좌선(左旋)의 卍字라는 조형이 많이 쓰이게 되었으므로 사람들은 혼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즉 후대로 갈수록 오류가 정착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卐은 무엇을 나타내는 조형일까. 그것은 대생명력(물)이 우주 공간에서 오른 쪽으로 이루어지는 대 순환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여기에서 만물이 생긴다. 따라서 여래가 만물의 근원이므로 '卐=여래'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여래의 가슴에 큰 卐이란 조형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화에 흔히 보이는 卍字는 잘못된 조형이다.

이 卐이라는 조형을 연이어 상하 좌우로 확산시키면 다음과 같은 기원 전 로마의 작품이생겨난다.(그림 ④) 우리나라의 능화판으로 찍어낸 책 표지에는 옆으로 기울어진 卐의 모양을 연이은 조형이 매우 많다.(그림 ⑤) 그 영기문에서 연꽃, 서각 등 8보(칠보가 아니다)가 화생한다. 즉 8보가 물에서 화생하는 것이다. 물에서 만물이 탄생한다. 여래에서 만물이 탄생한다.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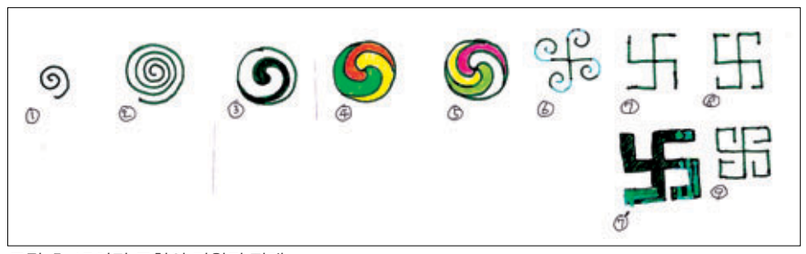


그림 ① 卐이란 조형의 기원과 전개



그림 ② 서양의 파도무늬(위)와 동양의 파도 무늬(아래)



그림 ③ 일본 기또라 고분의 사신도 중 청룡의 등에 있는 지느러미, 부분



그림 ④ 로마, 기원 전의 영기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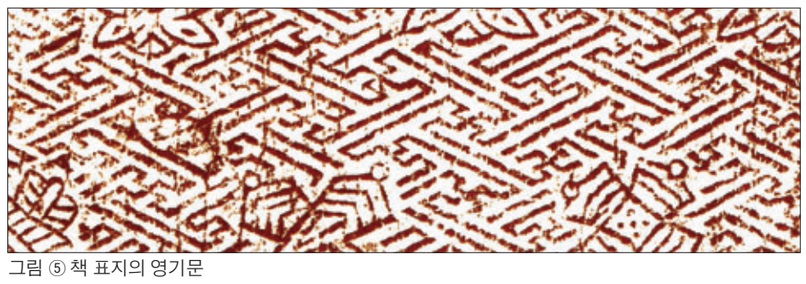


그림 ⑤ 책 표지의 영기문

藥이 되는 사찰음식

감칠맛 나는 우엉잡채 영양도 맛도 만점



우엉잡채

△재료(4인 기준)

○ 우엉 300g, 청피망 1개, 홍파프리카 1/2개, 노란파프리카 1/2개, 죽순 100g

○ 맛기름 1큰술, 맛간장 5큰술, 꿀 1큰술

△만드는 법

① 우엉은 칼등으로 껍질을 벗겨 깨끗이 씻어 곱게 채썬다.

② 죽순은 끓는 물에 약간의 소금을 넣고 데친 후 찬물에 헹군 뒤 빗살무늬 모양을 살려 썬다.

③ 피망과 파프리카는 채썬다.

④ 프라이팬에 약간의 맛기름을 둘어 죽순과 파프리카를 각각 볶아 소금으로 밑간한다.

⑤ 기름을 두르고 우엉을 볶다가 맛간장과 꿀을 넣어 간과 윤기를 맞춘다.

⑥ 볶아진 모든 재료를 잘 섞은 후 참기름과 통깨 약간을 뿌려 버무려 담아낸다.

배추전 무전

△재료(4인 기준)

○ 배춧잎 8장, 무 300g, 물 1컵, 소금 2큰술

○ 우리밀 1컵, 물 1컵, 국간장 1/2큰술

○ 청고추 1개, 홍고추 1개, 맛기름

△만드는 법

① 배춧잎과 무는 너무 크거나 굵지 않은 것으로 준비한 후 소금물에 절인 후 살짝 숨이 죽으면 헹궈 물기를 뺀다.



② 우리밀에 물을 넣고 반죽을 한다.

③ 청홍고추는 모양은 낸다.

④ 팬에 맛기름 둘러 반죽 입혀 지져낸다.

속병에 좋은 무 고소한 '전'으로

우엉은 당질과 칼륨, 마그네슘, 아연 등의 무기질이 높은 알카리성 식품으로 당질의 주성분은 당뇨병 환자와 신장이 안 좋은 사람에게 좋은 이눌린으로 전체 당질의 50%이상이다. 그 밖에 섬유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당뇨병, 변비, 대장암을 예방하고 발암물질이나 중금속을 배설하는 작용을 한다.

또한 우엉을 먹으면 정력이 증진된다란 말이 있는데 이는 우엉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일종인 아르기닌 성분 때문이다. 우엉의 감칠맛은 껍질에 있기 때문에 손질할 때 표면을 가볍게 칼등으로 살짝 긁어내야 감칠맛을 그대로 살릴 수 있으며 데치거나 졸여 먹는 것보다 기름에 볶아 먹게 되면 단맛이 증가해서 더욱 맛이 있다.

조리시 갈변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탄닌계의 폴리페놀 화합물이 우엉에 함유되어 있어 공기와 산화되기 때문인데 이 경우 식초물이나 쌀뜨물에 담그게 되면 갈변을 방지하고 떫은맛도 없애준다. 또한 볶을 때 기름을 두르고 숨이 살짝 죽으면 3~4번에 나눠서 간장을 넣어야 수분이 많이 생기지 않는다.

무는 대부분이 수분이나 비타민 C가 많아 겨울철에 채소가 귀했던 시절에 중요한 비타민C의 공급원으로 껍질에 무 속보다 2.5배가 더 들어 있으므로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먹는 것이 더욱 좋다.

무를 먹게 되면 속병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무 속의 전분 분해효소인 다이아스타제를 함유하고 있어 소화를 돕기 때문이다. 또한 오장의 나쁜 기를 다스려 몸을 가볍게 하고 고기와 생선 등의 독을 없애주며, 특히 한방에서는 래복자라 하여 진해거담제로 사용하고 호흡기 계통의 기침과 가래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

무와 배추전은 소금물에 살짝 절이거나 끓는 물에 숨이 죽을 정도로 살짝 데친 후 찬물에 헹궈 구워도 좋다.



김은정 (본초전통음식연구소 소장)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신(편)입생모집

2014학년도 전기

석사과정 신(편)입학 및 지도자 과정 모집 안내(야간)

■ 모집학과 및 인원

학 과	불 교	융합요가	불교사회복지	생사의례	명상심리상담
전 공	불교학, 선학	융합요가	사 회 복 지	생사의례	명상심리상담
모집인원	00명				

■ 지원자격

석사과정
- 국내외 정규 4년제 대학에서 학사 학위자 또는 2014년 2월 학위취득 예정자
- 국내 · 외 대학원 석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예정자
-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지도자과정
- 조계종 중덕 · 혜덕법계 품수 이상의 스님
- 각 종단의 간부
- 각 신행단체의 대표 및 간부
- 신심이 돈독한 불자로서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자

■ 전형일정

구 분	일 자	구 분
원서 교부 및 접수	2013.11.11(월)~11.29(금)	불교대학원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및 학사운영실 방문 접수
전 형 일 및 장 소	2013.12.7(토) 10:00~	불교대학원 홈페이지 공지

■ 특 전
-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취득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생사의례전공 석사학위취득자 또는 지도자과정 수료자(4학기 수료)는 총장명의의 상제례사 인증 응시자격 부여 및 장례지도사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함
- 명상심리상담전공 석사학위취득자 또는 지도자과정 수료자(4학기 수료)는 총장명의의 명상상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함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재적승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불교언론인은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
- 본 대학교 출신자 진학시 입학금 면제

■ 문 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홈페이지 및 학사운영실로 문의바랍니다.
- TEL 02-2260-3096, 3097 • FAX 02-2260-8627
- http://gsbs.dongguk.edu

dongguk UNIVERSITY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늘 피곤하고, 팔, 허리, 어깨가 쑤시며 깊은 잠 못자는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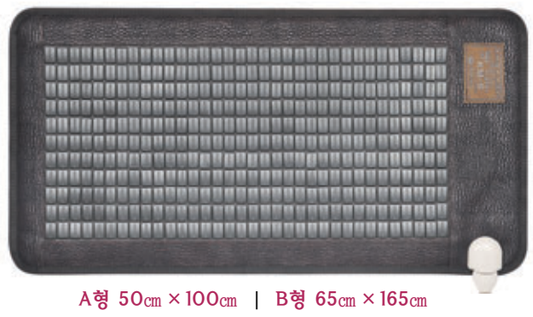
귀사문석(貴蛇紋石) 만능 미니 온열매트!

※ 귀사문석 온열매트는 근육통완화를 위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번호 제426호, 품목허가 제09-651인 의료기기 입니다.

피부속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생명의 빛! 원적외선이
93% 이상방출되는 방안의 숯가마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는 냉기(冷氣)를 해소하자.

기도할 때는 좌복으로,
취심시에는 온열 매트로!!

귀사문석 374개로 구성



A형 50㎝ × 100㎝ | B형 65㎝ × 165㎝

올 겨울 추위는 방안의 숯가마 찜질방(전자파 완전 차단)과 함께!

생명의 빛 원적외선

귀사문석 온열매트에서는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우리몸의 피부속으로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피하심층의 온도상승, 미세혈관의 확장, 신진대사의 강화, 부인병, 신경계 질병, 노인성질환, 어깨결림, 허리통증완화, 장속의 노폐물, 중금속 배출등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현대생활 주택이 시멘트 구조로 되어있어 자연적으로 지기(地氣)를 차단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귀사문석은 천연의 강력한 기(氣) 방사체이므로 자연적으로 신체에 활력소가 되어준다. 귀사문석은 항균효과 86%,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냄새 제거 능력도 탁월하다.

■ 판 매 원 : 선재생활건강(주) /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580-1 리베로빌딩 5층
■ 문의전화 : 031)595-8767, 010-4399-4326 선재생활건강(주) ■ 입금계좌 : 농협 355-0014-5055-43

시로 읽는 부처님 말씀…빠알리어 공부까지

(詩)



담마빠다 – 빠알리어 문법과 함께 읽는 법구경

김서리 역주

소명출판 펴냄

3만원

"비록 수많은 경전을 읊는다 할지라도 / 게을러서 그에 따라 행하지 않으면 / 소 치는 자가 남의 소들을 세는 것과 같으므로 / 그 사람은 수행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법구경의 한글 번역이다. 빠알리어 원전을 충실히 번역하면서도 빠알리어 법구경 내의 모든 단어의 풀이와 문장구조의 분석, 그리고 문장성분을 밝혀 직역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원시불교 교단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이 시구(詩句) 형태로 전해지는 것들이 있었는데, 인도의 법구(法救) 스님이 그 중에서 인생에 지침이 될 만한 시구들을 모아 엮은 경전이 법구경이다. 때문에 팔만대장경의 입문서라고 불리는 〈법구경〉은 부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함축적인 형태로 전하고 있는 경전이다. 빠알리어로 담마는 '진리', '법', '가르침'을 뜻하고 빠다는 '말'을 뜻한다. '진리의 말씀'이다.

부처님의 설법을 모은 경장은 남방 상좌부에서 빠알리어로 된 5부니까야로 전승되어 왔다. 이 5부니까야 중 〈쿳다까 니까야〉는 열다섯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담마빠다〉는 이 중의 하나다.

세계 각국의 수많은 언어로 번역된 이 법구경은 방대한 불교 경전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다. 국내에서도 20여 종의 번역본이 나와 있으나 대부분 한역, 일역 판을 이중 번역한 것들이다. 이런 기존의 이중 번역본들과는 달리 이번 책은 빠알리어 원전을 번역했다. 물론 최근 국내에 이러한 직역본이 출간되기도 했지만 빠알리어 법구경 내의 모든 단어의 풀이와 문장구조의 분석, 그리고 문장성분을 밝혀 직역의 근거를 제시한 형태의 한글번역본은 처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빠알리어 문법공부와 경전강독을 따로 하지 않고 병행하도록 한 것이 이 책의 큰 특징이자 취지이다. 따라서 이미 번역된 여러 이본들의 추상화되고 매끄러운 문맥과 의미의 번역본들보다 더 한층 원전의 의미를 독자 스스로 새겨볼 수 있도록 했다.

단어 · 문장 분석해 직역의 근거 제시

빠알리어 문법공부까지 할 수 있어

423편 시 주제별 26장으로 묶어

또한 좀 더 깊은 독자에게는 문법공부까지 병행할 수 있게 했다.

빠알리어 법구경은 총 423편의 시들을 주제에 따라 26장으로 나누어 묶은 경전이다. 이 423편의 각각의 시를 이 책에서는 빠알리어 원문, 한글번역, 단어해설, 그리고 각주로 구성했다. 빠알리어 원문 아래에 제시된 '한글번역'은 원문의 단어를 확인하기 쉽도록 대부분 직역했다. 또한 직역으로 자칫 어색할 수 있는 부분은 의역하였는데, 각주에 이러한 사항을 밝히고 직역 또한 제시했다. 그리고 빠알리어 원문에는 없지만 한글번역에서 필요한 단어는 괄호 안에 기입하여 문맥이 닿도록 했다.

'단어해설'에는 해당 시를 이루는 모든 단어의 문법사항을 밝혔고, 각 단어가 가진 다양한 의미 중 문맥상 가장 적절한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명사는 기본형이 가진 성(性)을 제시한 후에 수(數)와 격(格)을 밝혔다. 수식어로 쓰인 형용사 · 수사 · 대명사 · 분사 등은 수식을 받는 단어에 맞게 성 · 수 · 격을 밝혔다. 성의 구분이 없는 1, 2인칭 대명사는 수와 격을 밝혔고, 성의 구분이 있는 3인칭 대명사는 성 · 수 · 격을 밝혔다. 동사는 어근과 어근의 의미를 제시한 후에 시제 · 법, 인칭, 수를 밝혔다.

변화가 일어나는 현재분사, 과거분사, 미래수동분사는 기본형을 제시한 후에 성 · 수 · 격을 밝혔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절대분사와 부정사는 어근만 제시하였다. 접두사는 어근과 분리하여 어근 앞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운율이나 연성 때문에 생략 · 장음화 · 단음화 · 결합된 음절이 있는 단어는 바로 잡거나 풀어서 표기하였다.

'각주'에는 문장성분과 본문에서 밝히지 않은 문법적 해설을 담았다. 문장성분은 술어, 주어, 목적어 순으로 제시했다. 또한 수식을 받는 단어의 성 · 수 · 격을 제시하여 수식어의 격변화 근거를 제시했고, 빠알리어 문장파악을 위해 문장 내 관계절이나 부사절을 묶어서 제시하였다.

책의 부록으로는 어근표와 접두사표가 있다. 어근표는 본문에 나오는 어근을 어근군에 따라 일곱 가지로 나눈 것이고, 사전을 참고하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해 각 어근의 3인칭 단수 현재형 또한 제시했다. 접두사표는 본문에 나오는 접두사를 정리하여 각각의 의미를 제시한 것이다.

빠알리어 원문, 한글번역, 단어해설, 그리고 각주로 구성된 내용은 독자들의 기호에 따라 선택해서 볼 수 있다. 빠알리어 법구경을 한글로 직역한 내용에 관심이 있다면 빠알리어 원문과 한글번역을 중심으로 보면 되고, 빠알리어 문법에 관심이 있다면 빠알리어 원문에 나와 있는 각 단어의 의미와 문법사항을 제시한 단어해설과 문장의 성분을 제시한 각주를 꼼꼼히 살펴보면 된다. 총 423편의 시들 가운데 일부의 시들만 내용상 연결되어 있을 뿐 대부분의 시들은 한 편의 독립적인 시이므로 독자들은 원하는 시를 순서에 관계없이 읽어도 무방하다.

어학에 요령있는 독자들은 의외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 책 한 권으로 빠알리어 문법을 통달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처음 빠알리어를 접하는 분들이 이 책을 보면서 빠알리어 사전과 문법서를 꺼내고 펼쳐, 궁금한 부분을 정독하게끔 친절히 도와주는 책이다.

책은 '빠알리어 문법학습서'라고 언급했지만, 엄밀히 말해서 빠알리어 문법학습에 관심을 갖게끔, 사전 및 문법서와 친해지게 만드는 빠알리어 '문법학습유도서'라고 할 수 있다. 법구경을 처음 읽는 독자들도 책의 융숭한 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23 ~ 10/29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4	깨달음	법륜	정토
5	산사로 가는 즐거움	현종	공감
6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7	발밑에 꽃핀 줄도 모르고	걀왕 드룩파	다른세상
8	대승기신론 강해	한자경	불광
9	치유하는 유식 읽기	서광	공간
10	통도유사	조용헌	알에이치코리아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이율곡이 1000 독한 〈능엄경〉…한 번에 쉽게

우리말 능엄경

황정음 풀어씀 | 운주사 펴냄 | 2만5천원



불교의 핵심을 이론과 실천의 두 갈래로 압축하여 담고, 교리와 수행의 핵심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능엄경〉을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우리말로 풀어서 번역하고 해설했다.

〈능엄경〉은 분별하는 버릇을 버리고 자신에게 불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아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 부처님의 제자인 아난이 마등가 여인이 외운 사비가라범천주의 위력에 의해 마도에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구해 낸 뒤, 선정의 힘과 대백산개다라니의 공덕력을 찬양하고, 백산개다라니에 의해 모든 마장을 물리치고 선정에 전념하여 여래의 진실한 지견을 얻어 생사의 미계(迷界)로부터 벗어나는 수행방법 등을 설하고 있다.

팔만대장경의 축소판이로 불리는 〈능엄경〉은 스님들을 가르치기 위해 편찬된 교과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불교에서는 〈금강경〉, 〈원각경〉, 〈대승기신론〉 등과 함께 강원의 과목으로 채택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 경전이다.

명나라 말기 우익지욱 대사는 〈능엄경〉을 '진실로 부처님 일대시교의 정수요, 부처를 이루고 조사가 되는 비밀스러운 핵심'이라고 극찬했으며, 재가자들 사이에서도 〈능엄경〉을 한 번 본 뒤로는 세상의 잡동사니 책들을 보지 않는다'는 말까지 널리 회자되었다. 이처럼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출가, 재가를 막론하고 꾸준히 〈능엄경〉을 애독해왔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불교의 교리와 신행에 큰 영향을 끼쳐온 〈능엄경〉이지만 불교수행 전체를 핵심적으로 압축해 놓은 〈능엄경〉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책은 이렇듯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해하기가 어려운 〈능엄경〉에 독자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가게 했다.

책은 〈능엄경〉의 후반부인 오후(悟後) 수행의 난해한 부분은 될 수 있는 대로 설명을 줄이고, 전반부인 참마음의 성품을 밝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여 불교의 초심자라도 경의 핵심 사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배했다. 또한 사마타 법문 중 마음이 있는 처소를 찾아보는 '칠처징심(七處徵心)' 설법과 칠대(七大)의 실상(實相)을 상호 유기적인 연관성에 입각하여 명쾌하게 해석한 것이 눈에 띈다.

일찍부터 한국불교는 승가뿐 아니라 재가 불자들도 불교에 본격적으로 입문하는 교과서로 능엄경을 권장하는 전통이 있어왔다. 고려 말의 석학 정몽주는 능엄경을 읽고서 한 소식을 했다고 전해오며, 조선 초기에 새로 만든 한글로 경전을 언해할 때 가장 먼저 출판한 경전도 〈능엄경〉이다. 또 이율곡은 소싯적에 모친상을 당하자, 출가하려고 입산했던 삼 년 동안 능엄경을 천 독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렇게 〈능엄경〉은 재가자들도 꾸준히 애독하면서 불교 수행의 중요한 나침반으로 삼아왔다. 이렇듯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불교공부에 있어 중요한 능엄경이 그 난해함 때문에 주는 부담감과 어려움을 가능한 한 덜어주면서, 경의 내용을 쉽고도 명쾌하게 이해하도록 구성된 책은 불교 수행을 하는 이라면 꼭 한 번 숙독해야 할 책이라고 하겠다.

박재완 기자

지구적 키워드 된 '요가'의 진단과 재구성

요가와 문화

이거룡 · 임승택 · 김재민 · 김미숙 · 최아룡 · 박효엽 지음

허남인 사진 | 참글세상 펴냄



인도의 전통적인 수행법인 요가는 이제 전 지구적인 키워드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가는 '대중화'를 향한 현재진행형인 일종의 '문화현상'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책은 현재 우리 사회에 진행중인 문화로서의 요가를 선도적으로 또 반성적으로 진단해보자는 시도를 담고 있다. 웰빙, 수행, 여가, 다이어트 등에 한정된 요가의 담론을 문화의 측면으로 확대하고, 요가의 정체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재확인하고 재구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우리나라에 처음 요가가 전해진 것은 1960년대이다. 60년도 채 안 되는 역사다. 그러나 인도의 전통적인 수행법이었던 요가는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누구나 아는 하나의 문화로서 보편화되었다. 요가는 이제 더 이상 인도의 요가가 아닌 인류의 요가가 되었으며 세계화되거나 전지구화 된 문화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현상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부정적인 측면 역시 없지 않다. 한국의 요가를 생각해 보자면 다수의 요가 센터나 요가 단체들에서 요가를 가르치고 배우지만 그 역할과 목적이 스트레스 완화나 몸매 관리로 집중되고 한정되고 있는 상황임을 부정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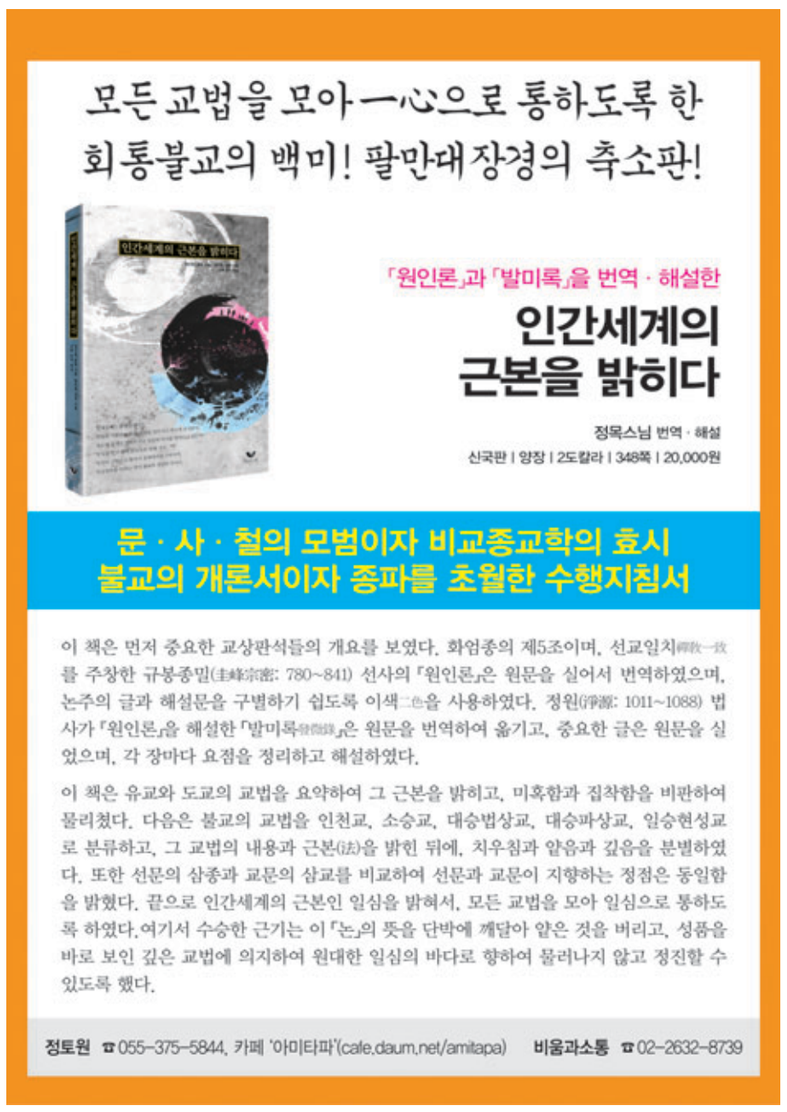
인도의 전통적인 수행법인 요가는 이제 전 지구적인 키워드가 되었다.

즉 동시대 문화 현상으로서의 요가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전망함으로써 요가의 위상과 의의를 새롭게 정립하고, 요가나 요가학의 정체를 다양한 관점을 통해 재확인하고 재구성함으로써 그 정체성의 추이를 추적하고자 하는 작업인 것이다.

책은 '한국의 요가와 문화', '요가와 수행', '요가와 치유', '요가와 생태', '요가와 대중문화 그리고 여성', '요가 문화의 현재와 미래'라는 여섯 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6인의 필자가 각각 한 주제를 맡고 있다. 필자들은 요가학계 혹은 인도철학계의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이들은 요가 문화를 새롭게 진단하고 전망함으로써 아사나 중심으로 대중 속에 파고든 요가가 어떻게 본래의 취지와 목표를 잘 살려 더 나은 길을 갈 수 있을지를 제시해주고 있다. 책은 '요가의 대중화'와 그 '정체성의 확립'이라는, 어쩌면 양립하기 어려운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지금 우리나라 요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안분지족’ 삶 누릴 줄 알아야 진정한 부자



부자연습
성담 스님 지음
셀프컬쳐리서치 펴냄
1만4천원

부자되는 일은 세상을 이롭게 할 우리들의 아름다운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일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단순히 돈만 많은 부자만을 꿈꾼다. 그러나 자기는 그대로 두고 재산만 늘릴려고 하는 사람은 실력은 관심 없고 성적만 올리려는 아이와도 같다. 그와 같은 일은 일어나기도 어렵지만 일어나더라도 ‘진짜’일 수는 없다.

부자되는 일도 마찬가지다. 돈만 많아진다고 진짜 부자가 될 수는 없다. 돈만 많은 것을 부자로 알면 아무리 돈이 많아져도 돈 지키는 가난뱅이가 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부자되는 일도 제대로 된 공부가 필요하고, 연습도 필요하다. 많은 이들이 삶에서 막연하게 부자를 꿈꾼다. 그러나 이러한 꿈은 종종 꿈에서 그친다. 이 책은 진정한 부자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과 아름다운 상상을 현실로 만들 지혜를 선물한다.

저자는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길 바란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 막연한 바램에 그칠 뿐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어본 적이 없어서 부자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상상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상도 못 하는데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혹여 상상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대로 된 부자가 되려면 공부도 필요하고, 연습도 필요하다. 제대로 하지 않고 돈만 많은 사람이 부자인 줄 알면 평생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고 집착하는 부족한 인생이 되기 마련이다. 진짜 부자는 그런 것이 아니다. 진짜 부자의 가장 핵심적 특징은 만족과 안심이다. 보통 부자가 만족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이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또한 진짜 부자가 되어본 적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엉뚱한 상상에 불과하다.

돈이 많아야 만족하고 안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백 억원쯤 통장에 있으면 만족하고 안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천 억원쯤이면 만족하고 안심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질 때까지 만족하고 안심하기 어렵다. 게다가 많이 가질수록 가진 것이 사라질까 봐 불안한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이라 이런 식으로는 영원히 만족할 수도 안심할 수도 없다. 사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행복하기 어려운 게 사람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진정한 만족과 안심을 얻을 수 있을까?

진정한 만족을 얻으려면 이미 자신에게 충분히 주어져 있고, 필요하다면 더 취할 수도 있으며, 필요 없다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 때야 가능하다. 그리고 진정한 안심을 얻으려면 이 세상은 잘못된 것도 잘못될 수도 없다는 것을 알 때야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과연 가능할까?

물론 가능하다. 역사적으로도 분명히 진짜 부자는 존재했다. 그들은 돈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노력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 그랬음에도 그들은 보통 사람은 상상도 못 할 돈을 벌기도 했고, 눈 깜짝할 사이에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세상을 위해 써버리기도 했다. 더욱 신기한 것은 그들이 원한 것도, 이룬 것도 인간의 몸뚱이가 가진 한계를 쉽게 뛰어넘는다. 도저히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냈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돈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만 그럼에도 돈만으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은 마치 공부는 관심 없고 성적만 올리려는 어린아이와도 같다. 부자는 자기가 확장되는 것이지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부자되려면 연습 필요
돈 쫓으면 돈 지키는 가난뱅이로 전락
진짜 부자 핵심 특징은 ‘만족과 안심’

그러므로 먼저 진정한 자기가 무엇인지 발견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넓혀서 모든 것이 자기이므로 가지지 못한 것이 없고, 가질 수 없는 것이 없으며, 잘못된 것도, 잘못될 것도 없는 줄 아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만족과 안심을 얻는다. 이것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이 말의 의미조차 알지 못한다. 그것이 어렵고 대단한 것이라서가 아니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부자가 되려면 연습해야 된다는게 저자의 설명이다.

진정한 부자와 같이 느끼고 생각하며 행동하고 나누는 것이 부자라고 이 책에서 저자는 진정한 부자의 의미를 알려준다.

소수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도나 닦아야 할 스님이 세속적인 것에 대해 말할 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한다. 그렇다면 진리는 깨닫고자 다리 꼬고 앉아 수많은 날을 소일하는 선방에만 있는 것일까? 그런 곳에만 있는 진리라면 삶 속으로 들어서는 순간 죽어버릴 진리에 불과하다. 저자는 진리는 삶 속에 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진리라는 것이다.

길섶의 들국화에 진리가 있으며, 저잣거리 행상의 어깨에 진리가 있으며, 또, 성공에도 진리가, 부자 되는 길에도 진리가 있다. 삶 속에 진리가 없다면 진리는 없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부자처럼 보이는 이들은 많다. 겨우 수억을 벌고 자신은 물론, 천금보다 귀한 자녀와 배우자도 돌보지 못한 가짜 부자들도 많고, 자기가 살 세상을 망쳐놓고 돈 벌었다고 좋아하는 바보 부자들도 수두룩하다. 돈을 많이 벌고도 필요한 데 쓰지도 못하는 돈 지키는 가난뱅이도 엄청나고, 벌어도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영원한 가난뱅이도 넘쳐난다.

이러한 시대에 이 책은 분명히 진짜 부자를 말한다. 그리고 진짜를 구하면 언제나 깨달음을 얻는다. 또, 제대로 보면 누구나 깨달음을 얻는다. 이 책을 통해 모든 사람이 진짜 부자가 되어 영원히 행복하길 간절히 원하는게 저자의 큰 발원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삶에서 시련이 생기면 명상이 진정 필요한 때”

어려울 때 힘이 되는 8가지 명상

잭 콘필드 지음 | 정준영 옮김 | 불광 펴냄
1만3천원



인생이고 해(苦海)라는 말을 굳이 꺼내지 않아도 살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어려움에는 종류도 각양각색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수도 있고,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주변 사람과 크게 다투거나, 갑자기 큰 병에 걸리게 될 수도 있다.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삶의 고난과 마주쳤을 때 가장 힘든 건 이러저러한 외적인 변화보다 그 변화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상태인 경우가 많다.

슬픔과 불안, 분노, 두려움, 외로움, 좌절로 마음은 더욱 괴롭다. 끝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은 이 어둠을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자존감을 잃지 않으면서 용감하게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은 어쨌든 피할 수 없다. 잭 콘필드 박사는 아잔 차 스님의 말씀을 빌어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 “살아오면서 더 가치 있었던 때,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은 것을 배웠던 때, 더욱 지혜로워졌던 때, 인내와 이해, 침착함, 관용을 배웠던 때는 힘겨운 시기였을까, 아니면 잘 나가던 시기였었나?” 바로 그렇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갈등과 투쟁에서 온다. 오늘의 나는 내가 그동안 극복해 온 모든 시련의 결과물이며, 이 시련들이야말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재산인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시련의 순간에 절망말고 움츠러들지 않고 용기를 내어 명상을 하라고 조언한다. 명상은 시련을 멀리 떨쳐 보낼 내면의 힘과 용기를 불러일으킬 것이란 이유에서다. 지금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들이 할 일은 이게 전부라는 것이다. 자리에 앉아 자기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 그것에서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문제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 따라온다고 저자는 말한다. 도망치지 말고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 곧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명상을 하면서 마음에 깃들어 있는 고통스러운 감정과 사연들을 풀어내고 내면의 지혜에 귀 기울이면, 시련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나 놀라운 선물을 주기도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오랫동안 명상 수행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명상 지도를 해온 잭 콘필드 박사는 삶에서 겪는 시련의 순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명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 책을 집필하였다. 명상이 삶에서 도피하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바로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를 원한 것이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내가 ‘아는 마음’이라 부르는 확실성의 빛이 있는데, 이 지혜를 일깨우게 되면 은혜와 사랑으로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는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잭 콘필드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 책에 소개된 8가지 명상법, △대지는 나의 목격자 △연민 나누기 △시련 속의 붓다 △용서의 실천 △치유의 사원 △아픈 마음의 선(禪) △

인생시련, 진정한 내 재산
내 마음 일깨우면 고통 극복
긍정 사고 위한 명상법 소개

평온과 평화 △최선의 의지는 시련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오랜 명상의 경험을 녹여낸 것이다.

이 8가지 명상법은 긍정적인 사고를 무조건 강조하거나, 즉각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단순한 자구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삶을 충분히 경험하면서 우리 내면의 지혜에 다가가기 위한 ‘영적인 수행’으로써 매우 강력한 도구이다. 이 책에 담긴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면서 규칙적으로 명상 수행을 하면,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삶의 여정을 안내하는 빛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김주일 기자

잭 콘필드 박사는 작가이자 심리학자이며, 불교의 명상수행법을 서양에 소개한 중요하고 저명한 스승 가운데 한 사람이다. 1967년 다트마우스 대학에서 아시아 연구를 공부한 후, 태국, 미얀마, 인도 등지에서 불교 승려로 수행하였다. 1975년 그는 매사추세츠 바르에서 통찰 명상 모임(Insight Meditation Society)을 만들었고, 그 후 캘리포니아 우드에이커의 영성 명상 센터를 공동 설립했다. 그의 저서로는 《지혜로운 마음(The Wise Heart)》 《붓다의 가르침(Teaching of the Buddha)》 등이 있다.

현대적 사고에 맞게 풀이한 법화경

만화로 보는 법화경과 새로운 해설

글 방경일 | 그림 김장열 | 솔바람 펴냄 | 1만3천원



〈법화경〉은 일생에 한 번은 꼭 봐야 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경전이다. 하지만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게다가 약 2천년 전에 등장한 〈법화경〉의 구성과 전개를 온전하게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독자들을 〈법화경〉의 세계로 이끄는 것이 바로 이 책 〈만화로 보는 법화경과 새로운 해석〉이다.

한 품당 네 페이지로 구성된 만화부분은 누구든지 쉽게 〈법화경〉전체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부처의 세계를 보여 주면서 그들을 부처의 길로 이끄는 경전이자 순한 믿음이나 한 구절의 전달만으로도 커다란 공덕과 보상을 약속하는 경전이 〈법화경〉이다. 그러나 〈법화경〉은 분량이 만만치 않다. 신심이 돈독한 불자도 〈법화경〉 전체를 읽기가 쉽지 않다. 젊은 이들은 더 그러하다. 때문에 그런 점을 보완해 법화경 28품 전체를 만화로 풀이했다.

만화부분 뒤쪽에 추가한 해설부분은 만화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렇다고 단순히 〈법화경〉의 내용에 대해 추가로 설명한 것은 아니다. 이 해설은 현대인의 사고 수준에 맞게 물리학, 천문학, 심리학, 해석학 등에 비춰 본 풀이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독자들은 〈법화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살펴 볼 수 있다. 특히 합리적인 세계관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들은 이런 해설에 친밀감을 느끼리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만화와 해설이라는 이중의 구성으로 돼 있다. 각각 나름대로의 완결성을 갖고 있으므로 만화부분과 해설부분을 따로 볼 수 있다. 물론 만화와 해설을 묶어서 각 품별로 보는 것이 기본이다. **김주일 기자**

주련, 짧은 글 속에 담긴 진리의 세계

마음을 쉬는 절집

글 사진 한민 | 청년정신 펴냄 | 1만4천원



많은 사람들이 절집을 찾는다. 불자는 물론이요 그렇지 않은 이들도 관광 삼아 찾는 곳이 절집이다. 하지만 기억에 남을 만큼 특별한 감동을 받는 절집 여행도 드물다. 그저 경내를 한 바퀴 둘러보고는 끝이다. “아는 것만큼 느낀다”고 했던 유홍준 교수의 말처럼 산 넘고 물 건너 명산대찰에 가더라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오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쉼도 경쟁력이다. 어떻게 쉬느냐에 따라 채워지는 에너지의 양이 달라진다. 삶의 질이 달라진다. 여행은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절집을 찾아보자. 그리고 절집 기둥에 달려 있는 주련을 읽어보자. 종교와 상관없이 부처님의 말씀이나 선지식들이 체득한 깨달음의 경지가 시의 형태로 적혀 있는 주련을 읽다보면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주련은 한시 형태로 쓰인 부처님의 말씀이나 큰스님들의 선시로 곱씹어 읽을수록 우리에게 무릎을 치게 깨달음과 살아가며 받은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는 힘을 주곤 한다. 절집에 갈 때마다 늘 거기에 있었지만 그냥 지나치고 말았던 진리의 일구 일구들이다.

주련은 가훈이나 좌우명처럼 수행자들로 하여금 늘 곁에 두고 자신을 돌아보도록 함이지만 한자, 그것도 행서나 초서로 쓰여진 것들이 많아 읽고 그 뜻을 짐작하기가 어려웠다. 이럴 때 ‘주련에 담긴 뜻과 유래를 알 수 있는 책 한 권’이 손에 들려 있다면 걱정 없다. 여유롭고 자신에 찬 표정으로 내 아이에게, 친구에게 주련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을 것이다. **김주일 기자**



금강경과 명심보감 ㊦

정대구 교수(전 영산대)

'현철' 총집합 명심보감, 불교에 방점 찍다

賢哲



정대구 교수는 … 경기도 화성에서 출생했으며 서울대 사범대 및 숭실대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2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시 〈나의 친구 우철동씨〉가 당선되며 시인으로 등단했다. 대표 시집으로 〈양산일기〉 등 10여 권이 있으며, 그 외 〈녹색평화〉, 〈구선생의 평화주의〉, 〈김삿갓 연구〉등을 펴냈다.

마음을 밝히는 보배로운 거울인
명심보감 책 이름에 이미 불교 깃들어있어
'명심(明心)' 은 무명 밝히는 마음 연등을,
'보감(寶鑑)' 은 불교경전을 연상시켜

명심보감은 다양한 책 속 격언, 속담 엮은 것
그 중에서도 석존의 가르침 중요시해
금강경과 스님 어록 싣고
불교와 관련 깊은 용어들 수록돼 있어

필자와 금강경

전통적인 유교가문에서 태어나 억불숭유의 유교이념으로 교육받으며 성장한 필자는 불교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 '불(佛)' 은 오륜삼강의 인지상도(人之常道)도 모르는, 글자 그대로 사람도 아닌 인불(人弗)로 치부되어 부모자식 사이의 관계마저도 부정하는 아주 해악적인 것으로 외면해 버렸지 싶다.

이러한 완고한 입지에 있는 나에게 처음으로 백천만겁난조우(百千萬劫難遭遇)의 '불' 이 필자에게 다가오는 연기(緣起)가 발생했다. 그것은 소위 "모든 부처님법과 무상정등각의 최고지혜가 이 경으로부터 나온다"-일체제불 급제불아뇩다라삼먁삼보리법이 개종차경이 출(一切諸佛及諸佛阿?多羅三?三菩提法이 皆從此經이 出)고 하는 경중의 경 금강경을 만난 것이다. 금강경독송회의 백성욱선생께서 펴내신 〈금강반야바라밀경〉이었다.

천재일우로 만난 금강경을 일품, 이품, 삼품 읽어 내려가는 동안 필자는, 보이는 현상계는 물론 삼천대천세계에 보이지 않는 티끌들(미진중微塵衆)까지 골고루 다 비추어내시는 그 섬세하고 아름다운 거울(경鏡)의 미묘한 그물 속에 푹 빠지게 되었다. 제 오품 여리실견분 "범소유상이 개시허망이라 약견제상이 비상이면 즉견여래(凡所有相이 皆是虛妄이라 若見諸相이 非相이면 卽見如來)"라고 하는 사구게는 읽는 이에게 가히 환희심을 불러일으킨다. 필자 또한 사구게를 접한 후 이 세계가 완전히 새롭게 보이면서 새로 태어나는 듯한 감동을 받았고, 투명하고 가벼운 존재로 환골탈태 하는 듯 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

금강경 공부하기

금강경의 알쏭달쏭한 어려운 글뜻은 초보자들의 접근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금강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는 부정적인 말인 부(不)나 비(非), 무(無)를 해석하는 부분에서 가로막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언사가 우리의 이해를 가로 막고 읽기를 방해할 수도 있지만, 한 부분에 마음이 머물러 너무 오래 머리 쓸 일은 아니다. 도연명 또한 "독서를 좋아해 글을 읽는 즐거움으로 식사를 잊어버릴 때도 있었지만, 어려운 부분을 만나면 굳이 깊게 해석하려 들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好讀書 不求深解 每有意會便欣然忘食)"며 독서의 즐거움을 말한 바 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자꾸 읽다보면 독서백편 의자현(讀書百遍 意自現)이라고, 어느 순간 문리가 터지는 법이다.

필자는 적당한 가락을 메겨 되도록 큰소리로 금강경을 읽는다. 그러다보면 금강경 읽는 목소리가 리듬을 타고 우주공간으로 울려 퍼져 우주와 공명을 일으키게 된다. 읽는 이의 정신이 부처님의 맑은 정신과 소통되어 금강경이 의도하는 바, 평정심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금강경을 체험하고 여래를 실견할 수 있다. 그리고 무조건 자꾸 읽다보니까 그 어렵다는 '아니다' 라는 부정적 언사도 차츰 감이 잡혔다.

예컨대, 제10품 장엄정토분에서 "보살이 불토를 장엄하게 했는냐 아니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토를 장엄하게 했다는 것은 장엄하게 함이 아니기에 장엄이라 이름할 수 있습니다.(菩薩 莊嚴佛土不 不也 世尊 何以故 莊嚴佛土者 卽非莊嚴 是名莊嚴)"라는 말을 살펴보자. 부야(不也)나 즉비(卽非)는 보살이 불토를 장엄하게 한다는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보살인 내가 불토를 장엄하게 했다는 아상을 부정하고, 선업을 했다는 생각 과 인식을 갖지 않아야 그 행위가 비로소 장엄이 되고 선행선업이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행(行)의 부정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했다는 생각 아상의 부정인 것이다. 금강경에서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제17품 구경무아분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내가 일체중생을 멸도한다 했으나 일체중생을 다 멸도하고 보니 실로 내가 멸도한 중생이 하 사람도 없었다.(我應滅度一切衆生 滅度衆生已 而無有一衆生 實滅道者)". 내가 많은 중생을 구원했다면서 구원받은 중생이 하나도 있지 않다는 언뜻 모순처럼 보이는 이 말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내가 중생을 구원했다하는 생각, 곧 아상(我相)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읽다 보면 금강경도 그렇게 접근하기 어렵지만은 않다는 대긍정의 결론에 이르게 된다. 요컨대 금강경은 '아인중생수자상' 이라고 하는 사상(四相)과 무엇을 무엇이라고 깨닫고 규정하는 법상과 그 반대쪽에 비법상까지 멸해야 아뇩다라삼보리의 무상정등각 최상최고의 보리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무아법(無我法)의 가르침이다. 제7품 무득무설분에서 '일체현성 개이무위법 이유차별(一切賢聖 皆以無爲法 而有差別)' 을 보면 일반 중생과 현성을 식별하는 척도로 등장한 무위법(無爲法)은 무아법(無我法)과 다르지 않다.

여기서 우리는 붓다의 무아법(無我法)과 노장의 무위자연의 무위법(無爲法), 양자의 상관성을 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붓다의 무아법(無我法)은 아(我)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내가 했다고 하는 아상, 나 잘났다고 하는 생각을 없이하라(無化)는 가르침으로 이를 잘 안다면 우리는 이미 부처님의 말씀을 터득한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노장의 무위법 역시 행위 자체를 다 부정하는 게 아니다. 무위(無爲)를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는 걸로 생각했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오해다. 무위자연의 무위는 유위(有爲)의 반대개념으로서의 무위(無爲), 즉 작위적으로 조작되고 인위적으로 지어서 함(僞)이 없는 무위(無僞)인 것이다. 붓다의 무아법(無我法)이든 노장의 무위법(無爲法)이든, 금강경에서 보았듯이 무아법이 무위법이고 무위법이 무아법이다, 이렇듯 대성현의 가르침은 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다.

명심보감

명심보감은 본래 중국 명나라 때 사람 범립본(范立本)에 의해 편찬된 책이지만 중국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보급되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책이다. 조선왕조 오백년간 훈몽교육과정의 하나로 천자문 계몽편 동몽선습과 함께 꼭 읽고 배워야할 국민필독서로서 명심보감은 유대인의 탈무드, 서구인의 성경과 같은 입지(立地)에서 수신제가 입신처세의 나침반이 되어주는 삶의 온갖 지혜와 삼세(전세, 현세, 내세)에 윤회하는 인과응보의 신념과 확신을 심어준 우리 선인들의 필수교양서였다.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이면 가훈으로도 많이 쓰는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같은 문구를 모르는 사람은 드물겠지만 그 말이 정작 명심보감에서 나온 줄은 잘 모르고 있다. 이와 같이 명심보감의 명언들이 21세기 오늘날까지도 인구에 많이 회자되고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명심보감은 금과옥조로 사랑을 받고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에서도 읽히고 스페인어로도 번역되었다.

명심보감과 불교

〈명심보감(明心寶鑑)〉이란 서명 자체가 불교 자체다. 명심보감(明心寶鑑)의 '명심' 이 그러하고 '보감' 또한 둘 다 불교용어다. '명심' 은 우리의 무명을 밝히는 마음의 연등(蓮燈)을 떠올리게 하고, '보감(寶鑑)' 은 불교경전 또는 사찰이나 스님을 연상하게 한다. '보' 는 금강경에도 칠보(11품) 칠보취(24품) 등에서 볼 수 있다. 절에 가면 '백년탐물일조진 삼일수심천재보(百年貪物一朝塵 三日修心千載寶)' 라고 쓴 주련도 쉽게 만날 수 있고 대웅전을 '대웅보전(大雄寶殿)' 이라고 쓴 현판도 많이 볼 수 있다. 한편 '감' 은 진감국사(眞鑑國師) 원감국사(圓鑑國師) 덕산선감(德山宣鑒) 등 대사들 법호로 많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명심보감 공부하기

명심보감이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것은 단종 2년(1454)에 청주에서였다. 하지만 불교적이고 도교적인 내용이 많다는 이유로 억불숭유를 국시로 삼은 조선초 사회에서 곧 잊혀지고 그 뒤 1550년에 담양에서 초략본(담양본)이 나왔다. 하지만 이 초략본은 불교적, 도교적 성향의 내용을 상당부분 제외한 글자 그대로 초략본이다.

논어는 공자의 말을, 성경은 예수의 말을 여러 제자들이 듣고 기록한 것들을 모아 만든 책이라면, 명심보감은 범립본이라는 한 사람이 실로 유불도선에 관한 수많은 서책에서 경구 명구 속담 격언 이어(俚語) 등등을 모아 엮은 책이다. 즉 현철의 총집합이다. 편자가 서문에서 "여러 책의 요긴한 말과 석존의 가르침(慈尊訓誨)을 모아, 명심보감이라 한다. (集其先輩 已知通俗諸書之要語 慈尊訓誨之善言 以爲一譜謂之明心寶鑑)"고 밝혔듯 선철들의 여러 책들 가운데서도 특히 석존의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명심보감은 상편에 계선 · 천명 · 순명 · 효행 · 정기 · 안분 · 존심 · 계성 · 근학 · 훈자, 하편에 성심 · 입교 · 치정 · 치가 · 안의 · 준례 · 존신 · 언어 · 교우 · 부행 등 총 20편 775조문의 글로 이루어져 있다. 이미 〈명심보감(明心寶鑑)〉이라는 책명에 불교색채가 암시되어 있듯, 편명 중에도 계선 천명 순명 안분 존심 계성 성심 등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고 실제로 본문에도 불경(금강경 32품 사구게) 이나 제전화상, 도청화상 같은 스님의 말씀이 나오고 불교와 관련 깊은 용어들이 수없이 보인다. 예컨대 염불 · 예불 · 불도 · 불경 · 불심 · 작불 · 성불 · 간경 · 무상 · 인연 · 삼악 · 참선 · 번뇌 · 윤회 · 보시 · 계율 · 방편 · 장경 · 경전 · 부생 · 인과응보 · 중생제도 · 지족안분 등이 그렇다. 우선 이들 용어들이 보이는 문장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불경운, 일체유위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佛經云, 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성심편」190조

-불경(금강경)에 이르기를 일체의 유위법(인연 따라 생긴 현상계)은 마치 꿈과 환상과 같고 물거품이나 그림자와 같으며 마치 이슬이나 번개와도 같으니 응당 세상사를 이와 같이 볼지니라. 〈계속〉

이 원고는 본각선교원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미리 간추려 소개한 것입니다. 본각선교원 (02)762-4848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값 30,800원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지구 환경을 해치는 종이컵 대신 이제부터 (법어가 담긴 에코컵) 을 사용하세요. 늘 곁에 두고 음미하고픈 대행스님의 법어!

도자기

법어가 담긴 에코컵



종 류	구 성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택배비 3,000)		

1. 마 음 법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법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몸에는 두려움과 고통이 많다. 어찌 믿을 만한 것이겠는가?
다만 엷은 가죽으로 그 위를 덮었을 뿐이니라. 너희는 꼭 알아야 한다.
그 몸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실로 잠시 동안 즐거움이 있을뿐, 그것은
어리석은 마음으로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므로 비록 몸에 병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은 병들지 않게 하라.

– 증일아함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2)588-4606
비룡정사 제행스님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최 면 전생 • 미래
빙의 • 퇴마
• 심리치료, 습관교정, 성격개조
• 최면요법 전과정 7회 완성
• 1회 무료강의 후 상담접수
• 교직경력 17년 스님 직강
(부산 현불사 최면센터)
010-9342-9794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지장기도를 통해 그 자리에서 영가천도
환자의 몸속에 숨어있는 빙의령 확인
빙의,우울증,신병,대인기피,암,원인불명,
질환,악성피부질환,아토피,인생상담
지장보살님의 빛이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낀다
스님,보살님,법사,일반인 치유 및 제자양성
인체전기파동의학원
010-9242-5259

범음범패 실전위주 학인모집
점안의식,천도49제,구병시식,
산신,수륙대제,안택,
산사음악회 등,천수,사다라니
사물 송주 북,바라,
나비작법,회심곡 등,여법하게
봉행하여 드립니다
사찰불공 접수 받습니다
010-8829-4578 성불사

(수강생 모집) 기문둔갑반 명리연구반
역학을 하였으나 상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기문둔갑) 비법을 전수합니다.
무료청강하신 후에 수강신청(무료강의)
매주 토요일 7시부터(2시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67-12번지
(천지암) 창원시청부근
010-6511-5958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영남소리,사물,바라,작법
무료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불교 범음범패 학인모집
실 전 교 육
– 사물(태징, 목탁, 송주북,
정근북, 법고)
– 천수바라, 작법(나비무),
49재, 천도재, 점안등
경남 양산시 주남동 금륜사 대진 합장
010-7579-8200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단체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불교문화강좌, 불교문화활동,
불교문화 수련사업 하실분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천도재 49재 사찰행사
바라무, 나비무,
회심곡, 점안식,
산사음악회, 위령제
010-8677-2861

법당화주겸 종무보살 모십니다
불심 신심이 돈독한 일천불
권선하실 화주보살을 모십니다.
불심으로 귀의 할
출가 여자행자 모집합니다.
(부산 금정구)
010-6390-1899

백발백중 귀장술 수강생 모집
초보자환영,
교재제공
쉽게보는 원판제공
(외울 필요 없음)
010-8558-2345

천상을 여는 지장 대사 원력으로
조상천도,빙의,퇴마,신병,천병,
우울증,병명없이 몸이 붓고 아프고,
가정우환으로 고생하시는 분 상담.
스님, 법사, 보살 상담환영
010-2418-6222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신토불이 천연 약초로 약을 짓습니다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향기도의 비밀
●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자비 미륵암 (청학동)
미륵암 자비도량에서
삼신불의 원력과 氣를 온 육신으로
받으시고 참선기도 하십시오.
(1일 만원)
미륵암에서 함께 수행하며
지내실 분 모십니다
011-759-0183
055)883-7385

악성 피부질환 해결
전통자연치유비법으로
무좀,종기,습진,골수염,
피부염,축농증,아토피염,
버거씨병 기타
등으로 병원에서 완치
어려운 분 무료해결 합니다.
010-3028-6579

부전
스님
모십니다
(영천 개원사)
010-2515-066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양구 사명산 상운사)
010-3764-3661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미륵존불 조성불사를 도와 주십시오
월하스님 글씨 병풍포함 3점. 서경보스님 글씨 병풍포함 4점. 일타스님 글씨 2점.
석주스님 글씨 1점. 수안스님 그림 3점. 석정스님 달마 병풍 1점. 경봉스님 글씨 1점.
청광선생 달마, 독수리 병풍 2점. 문화재 인도선생 달마 1점. 천경자 그림 1점.
중광스님 인불상 1점 위의 작품 21점을 미륵존불 조성불사에
큰 인연으로 도와주시고 설판하여 주시는 분께 드리겠습니다.
이밖에 그림과 글씨도 마음에 드시면 드리겠습니다.
경북 054)853-3855
시주보시금 : 국민은행 622-24-0064. 농협 729-02-117074 유명혜

주 지 소 임 원 합 니 다
기도하면서 불사와
포교에 전념하며
평생 살고 싶습니다.
무술년 3월 15일생
도공 합장
010-6216-4133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충남)
010-6266-4669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 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으로 장례전문인력의
맞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노후를 절에서 사실 분
1인 1실. 신축건물 청정지역
5천만원 시주하시면 평생 생활비 없이 지낼 수 있음
부처골 지장선원 WWW.jijangsw.com
다음카페 "연꽃마을 복지관" 검색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914번지
054) 383-8553 / 010-8585-4908
<혜봉스님 직통>

조용한 산사에서
기도 수행할 비구니스님과
초보자 남녀 행자스님
모심니다
(경주지역)
011-534-3345
010-4580-8394

빈 절이나 가난한 암자를
무보시로 운영
관리해 드립니다
스님이 안계신 절이나
어려운 사찰을 구합니다
(법납 40년 비구승, 탄성스님)
010-7534-4848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기원정사
● 주 지 : 송산 (송일성)
● 주 소 : 경북 경주시 산내면 우라리
산 126번지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6일
불교조계종 삼화불교 총무원장 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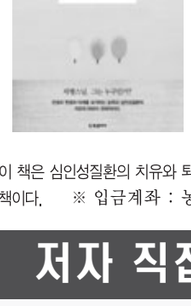
천비록 (하늘·땅·사람의 비밀)

값 15,000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이때 이시기에만 밝혀지는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天 秘 錄!"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도서구입문의 : ☎ 063)643-7285
(도서출판 대도대한)
교보문고/영풍문고/반디앤루니스/리브로/알라딘/예스24/
철도문고/불광문고/대한서림/대동문고/중앙출판/세원출판/
홍지서림/영광도서 등 전국 유명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인 비 록 (죽어서 가는 길)

값 15,000원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요,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도를 닦든, 착하든 나쁘든 그 누구도 사후세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 바르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웹진 인비록 : http://www.ddblog.co.kr

명리(영가찾는 법) 무료공개강좌
(연결카페ttp://cafe.naver.com/baikamsa.cafe)
영가천도는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간단하고 쉽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무료공개강좌
– 서울 : 11. 1(금) 오후 2시
– 대구 : 11. 2(토) 오후 2시 **[접수 053)944-3272]**
○ 대 상 – 명리 왕초보자, 철학관, 포교원운영자 등
○ 강의내용
– 기 초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1. 한 맺힌 조상 찾는 법, 조상(귀신)이 발동한 것을 아는 법
– 대.세운에서도 발동한 것을 찾는 법
2. 기도를 하더라도 묶여있거나 장애가 있는 곳에 가서 풀어야 된다.
3. 무속인의 주장신도 알 수가 있으며 영가를 정확하게 뽑아낸다.
4. 결혼하면 양가집 조상이 부딛히는 가정
5. 결혼이 안되거나 결혼을 해도 풍파가 많은 가정
통신반 모집
☞ 강의를 1번은 반드시 수강하여야 함 (교재로 동영상강의)
백암역리원 02)597-1101.010-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우리은행) 옆
대구출강 053)944-3272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빙의 퇴마사례 생생하게 전하고 그 해결방법 밝혀 !!!
빙의에 걸리면 정신질환인 우울, 불안, 공포증, 또는 조울증, 정신분열 등 심인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한다. 심지어 요즘엔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흔해졌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희망이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제행 지음 / 신국판 / 319페이지 / 13,000원
이 책은 심인성질환의 치유와 퇴마의 권위자인 제행스님이 그간 치유했던 사례들을 담은 책이다. ※ 입금계좌 : 농협 552-01-047918 대한불교비룡정사
저자 직접 상담. 개인지도
1. 최면요법, 빙의퇴마 과정
(우울, 불안, 공포증 치유 및 전생과 미래를 본다)
2. 빙의 퇴마 전문가 과정
3. 기문둔갑, 성명학 과정
4. 2명이상 지방출장 가능
예약상담 사주, 작명, 빙의퇴마, 심리상담
빙의(신병) 출장 퇴마합니다.
전화 011-772-4606
서울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출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 게재일 : 접수 다음주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원 / 가로 7cm 70,000원 / 가로 10cm 100,000원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집에 붙은 불을 물로 꺼 버리듯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슬픔이
일어나는 것을 재빨리 꺼 버린다. 바람이 솜을 멀리 날려보내듯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번뇌의 화살을 뽑아 버린다.
비탄과 고뇌와 불만에 찬 화살을.
- 숫타니파타 -

삼 보 사 찰 안 내

상보도량은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 위치 : 은평구
- 법당 : 20
- 요사 : 20
- 포교원 1000/80

- 위치 : 의령
- 대지 : 목조25
- 법당 : 30방4개
- 대지 : 200
- 가액 : 4억

- 위치 : 포항
- 대지 : 200평
- 법당 : 10평
- 요사 : 5채방5개
- 가액 : 1억

※서울 경기 경남 부근 매도사찰 급히 구합니다.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찾고있는분 많음, 전화 환영합니다.
법률, 세무, 무료상담. 매매, 전, 월세, 경매, 분양 등 매물 접수 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의령
- 법당기와단청52㎡
- 요사한옥99㎡리모델링했습 주차용이하고 전망좋음
- 시내부근 위치좋음
- 양도금액 3억 5천만원

010-7347-1010(사찰전문)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 3층 중 2층
- 약 60평
- 위치,시설, 환경 특 A급 (넓은법당, 넓은 공양간, 방3, 샤워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2700만원(조절불가)

010-5667-0577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진주 혁신도시 인근
- 총평수 400평 (전 300평, 대지 100평)
- 건물:슬라브 벽돌 요사채(방 5개) 법당, 산신각
- 가액: 2억 (대출금 6천만원 포함)
- 소임관계로 급 안내

010-3563-0108

전원주택 및 기도처

- 함양군 서하면 노을정 주변
- 대지 230평
- 건물 하우징 목조주택 20평
- 주변이 화려하고 계곡물이 흐르는 곳
- 전원주택 및 기도처로 적합
- 가액: 7천만원

010-8828-3718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
- 부지 : 1700평
- 법당 : 30평(전통)
- 요사 : 60평
- 가액 : 4억5천
- 위치 : 서울산사
- 부지 : 5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가액 : 4억5천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02)723-4082
불사 010-4586-4525

사 찰 (급) 안 내

아름다운 토굴 안내

- 총부지 970평 (칠보 삼존불 봉안)
- 법당 및 요사채, 산건각, 용왕각, 독성각
- 50년역사와 정원수 다량, 나비형 큰호수
- 양도가액 : 1억 8천만원

사찰(급)안내

- 아파트 8,000세대 신도시
- 총 1200평(대지 700평, 야임 500평)
- 대웅전, 삼선각(목조), 요사채 2층(방 6칸)
- 주차장 200평
- ※ 백화점, 법원 200M 거리내
- 총양도가 : 8억 5천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부산, 경남, 강원도 사찰, 토굴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직통 011-560-8522,051-863-66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 칠보산 아래
- 산세 수려한 사찰
- 대지 324평 인법당(40평), 창고(40평), 산신각
- 가액: 1억 5천만원(절충가능)
- 건강상 급 안내

010-2008-0377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 서구 대평리 시장인근
- 3층 건물중 2층 40평
- 시설: 최상급 삼존불 중 아미타 3자동불, 양대보살
- 후불, 신중, 산신탱화 지장불, 지장탱화 108인연불
- 일부집기 완비 바로 집회 가능
- 보증금 3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2천 5백만원(조절가능)

010-5742-5520

포교원안내

- 위치 : 양산시 평산동
- 2층 건물 중 1층
- 평수 130평
- 법당 시설완벽, 방3
- 상시 온수 제공, 주차시설완벽
- 전세 3천만원 월세 40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010-3574-3303
010-5667-5453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주택 독채
- 대지 80평, 포교원 월세
- 집2채, 방5개, 욕실, 거실, 화장실2, 입식부엌
- 마당에 정원석등 아주 넓음
- 법당시설완비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3900만원(청동불상)

010-2251-337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 총평수 : 임야 2천평
- 법당 16평, 요사채 30평
- 가액: 1억 5천만원

010-3755-9304

< 사찰안내 : 전문가 이박사에게 >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010-3426-9393(사찰전문)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도심속에서 큰 포교당 운영하실 분 큰 뜻으로 포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법제자 환영 인연자는 무량대복 받으소서

010-4071-3718
010-6328-6626

토 굴 안 내

- 위치: 충북 영동
- 평수 315평
- 가액: 5천만원
- 시설비 500만원 (삼존불 집기류 농기구 일체)
- 주위에 민가가 없고 아주 조용함
- 텃밭과 유실수 다량 있음

011-269-4168

포교원안내

- 위치: 대전시내 2층건물의 2층
- 약 60평
- 아마타불, 관세음, 대세지, 지장보살 호신불 72불, 신중단, 산신단, 영단, 각단탱화
- 큰법당, 스님방, 상담방, 공양간, 화장실
- 시설비 2500만원, 협의가능 보증금 1천만원 월 25만원
- 법당엠프시설, 에어컨 3대

010-6278-1488

포교원사찰안내

- 위치 : 청주 중심권
- 3층 건물 중 3층 평수 약 100평
- 법당 60평, 큰방 3개, 작은방2개, 거실, 주방, 욕실3개
- 삼존불, 후불, 신중 300등창고2, 차고
- 최시설, 집기 전세 5000만원, 옥상방수
- 최고시설집기 인연있는분께 싸게드림

010-5883-2255상담비람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포교원안내

- 위치 : 거제시 최요지 등산로입구
- 별장같은 아늑한 단독주택
- 약 40평, 1층 법당, 방2, 공양간
- 2층 방 1
- 전세 8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협의 주차 30대

010-6393-5352

사 찰 안 내

- 위치: 김해시 구산동산
- 현재 사찰하고 있음
- 평수 650평, 땅값만 받고 양도함
- 평당 40만원 협의 불가 (법당 조립식, 산신각, 용왕각, 요사채)
- 스님 건강문제로 급히 양도함

010-3800-6804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해운대구
- 아랫반송 대로변
- 4층건물의 3층 30평
- 시설완벽
- 시설비: 1천 9백만원 (절충)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010-4414-0309

사 찰 안 내

-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소재
- 법당, 목조기와, 30평 단청완료
- 산신각, 요사채, 종무소, 약 100평
- 총대지 370평
- 부산, 마산, 창원, 김해 50분거리
- 비구니 스님 적합

011-9528-402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 본사 소임관계로 급안내
- 평수 약 90평
-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상담
- 방2, 종무소1, 서재1, 공양간1
- 즉시 법회 가능

010-8606-7918

포 교 원 안 내

- 서울시 송파구 문정역에서 약 3분거리
- 4층건물 중 2층, 45평, 방3, 베란다에 주방
- 원목탁자, 닷집,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탱화
- 108불 모실불단, 영가단, 에어컨 2대, 냉장고, 불박이장농등
- 건물 주차장외(바로 앞에 대형주차장 있음)
- 주위에 가락시장 로데오거리, 포교, 철학 최적지(6년 이상 운영)
- (보)이천만원 월 140만원 (관리비 5만원)
- 시설비는 (답사후 보시고 절충) •입주는 항상가능(몸만 오셔도 법회가능)

전화 010-9259-0108번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창
- 산세 수려하고 600년된 소나무 경관이 좋은곳,천년 고찰자리로도 손색이 없음
- 부지 4400평, 종교부지 1000평
- 산신각 목조 9평
- 법당 30평, 요사 23평 중 불 때는 방 5평
- 양도가액: 3억 8천만원

010-8484-3917

사찰터안내

- 위치: 경남 창녕군 화왕산 군립공원 입구
- 총평수 : 약 2만평
- 고려 일미사지터로서 남향 양지 바르고 인터넷으로 검색 가능(산세수려)
- 건축 허가완료 건축가능
- 전기는 충분히 활용하기 위하여 동력으로 설치
- 가액: 2억 3천만원

010-5015-1022

사 찰 안 내

- 서울 근교 수도권 위치
- 총부지 200평위에
- 산세 수려하고 웅장한
- 아름다운 포교 30년된 사찰
- 가액: 9억

010-5466-3321

암자터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소천면 둔천리 1837번지
- 부지: 2800평
- 땅 앞과 옆으로 청정한 물이 흐르고 최고의 기도 암자터 컨테이너 1개
- 스님이 기도하다 지금은 비어 있음
- 양도가액: 4천만원

011-257-1601

사 찰 안 내

- 위치: 전북 고창
- 종교용지 140평, 대지 550평 기타 2766평
- 법당 20평 1동 본관, 산신각, 요사채 등
- 가액: 5억 5천만원

010-8933-9937

절 터 안 내

- 위치 : 싼땅 양도. 감악산 줄기
-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황둔 3분거리, 작은 야산
- 황둔리 대지, 산 합 945평
- 조용한 위치, 버스길 인접
- 양도가 : 9,000만원

010-3288-1317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시장 입구)
- 6층 건물 6층 85평(옥상 사용)
- 큰법당, 공양실 친견실 방 3개
- 시설 A급, 주차장완비
- 보증금 3000만원 , 월 100만원 시설비(답사 후 절충)

010-6575-1719

신축 사찰안내

- 전북 임실군 국립 회문산 천마봉 옥정호 섬진강 IC 입구
- 2012년 신축 한옥 법당 2동 (토지매입 3억, 건축비 2억 5천만원)
- 호남 8대 명당터, 전+토지 3천여평
-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5년 장기 임대 가능
- 종교시설완비, 부처님 3분 모셔져있음
- 추가법당 불사비 협의 인정해 드림

010-9647-072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 남구 용호동
- 시장통 사거리 ,위치 좋음 1층
- 법당, 삼존불, 산신, 신중, 후불탱화 다 맞춤
- 방1, 다락2개, 주방, 화장실 겸 샤워실
- 약 20평. 주차가능
- 보증금 2천 5백만원 월 15만원 시설비 500만원, 시설완벽, 답사후 절충가능

010-4747-8796

사 찰 안 내

- 위치 : 대전 동구 남월동 산 16-1
- 대지 400평
- 보증금 1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4000만원

010-8775-1677
042)273-1677

사찰(급)안내

- 위치: 충북 단양군 대강면 남천리31번지
- 건평23평. 대지: 100평외 과수원밭1.500평 (6년생사과나무250주있음)
- 예쁘고 아담하게 지어놓은황토집이며 법당. 효험있는 천연노천불(약사여래불)있음.
- 물좋고 공기좋고 전망좋은 단양온천진입로
- 가액 : 3억(꼭마음에있는분 가격조절)

010-5380-826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 대지 120여평 • 임법당 20평
- 요사 15평 • 창고 7평
- 차량 마당 진입 가능
- 집기 일체 양도
- 가액 : 9천만원(절충가능)

010-6308-732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해운대
- 대지 190평
- 법당 50평, 요사채, 공양간 85평
- 주차가능
- 도심속에서 조용하고 포교에 불편함이 없는곳
- 가액 : 8억

010-5346-4138

포교원(급)안내

- 위치: 안산 터미널 부근
- 대로변 2층 약 35평
- 삼존불 시설완벽
- 보증금1000만원 월세 70만원
- 시설비 1900만원

010-3111-9056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부안 내변산 입구
- 종교용지 130평
- 수목장 용지 10,000평
- 법당 20평, 요사채 30평
- 종각, 미륵석불, 저수지, 경관수려(소나무 숲)
- 가 액 : 2억 5천만원

010-6478-1569

포교원안내

- 위치 : 인천시 모래네 시장 내
- 4층건물의 4층
- 실내평수 70평, 앞마당 38평
- 법당1, 주방1, 방2, 화장실2, 베란다 창고1, 엘리베이터 有
- 아파트밀집지역
- 아미타불, 약사여래불, 지장보살, 지장보살소불 120불
- 전체양도도 가능, 답사후 결정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031)467-0317
010-4545-110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화왕산 군립공원 산밑에 위치
- 평수: 612평, 법당 30평(목조단청) / 산신각/ 칠성각
- 요사채 (50여평) 화장실 2, 주차장, 창고, 텃밭, 지하수 및 상수도
- 도로인접, 심야보일러, CCTV설치, 앞마당에 5층 석탑과 석불
- 가액: 3억 8천 5백만원(평당 50~70만원시세)
- 답사후, 꼭 마음에 있는 분 가격조절

010-8664-8259

포교원안내

- 위치 : 인천부평시장
- 약 100평, 방4개, 식당 큼
- 삼존불 각탱화, 연등 400개 에어컨 대형 2대
- 화장실 두개, 시설비 3천만원
- 보증금 1000만원 총 4천만원 월 80만원
- 유동인구 많음 시첼 최상급
-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8754-676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2층 건물
- 1층 요사채 35평, 2층 대법당 30평, 산신각 5평
- 법당, 산신각, 인등, 산신불, 관음불, 지장불, 영단 후불탱화(입체금탱화)
- 황토방 2, 주방 15평
- 조경시설, 과실수, 텃밭, 우물, 용궁
- 즉시법회가능, 집기 일절
- 가액: 4억 5천만원

010-4561-2149

청 평 한 옥

- 대지 199평
- 건평 30평
- 방 3, 욕실 2, 거실, 주방
- 현재 스님이 거주하고 있음
- 가액: 2억7 천 5백만원

010-9411-5302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 사하구. 큰도로변
- 2층건물에 2층 평수 60평
- 법당 30평, 공양간, 친견실, 침실 30평
- 보증금 1천만원 / 월 80만원
- 시설비 : 상담 후 절충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주세요
- 즉시법회가능

010-9396-7133

사 찰 안 내

- 위치 : 청도 (대구에서 30분거리)
- 평수 130평
- 건평 42평(인법당)
- 가액: 1억 2천만원(절충가능)
- 남향 교통편리
- 비구니 스님 적합

010-2501-3671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청역 옆
- 3층건물 중 3층 (30평)
- 상담실, 주방, 샤워실, 법당, 방
- 시설비 700만원(조정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 70만원

010-5472-592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밀양 I.c 2분거리 밀양시내10분거리 (약사도량임)
- 종교부지300평 임야300평
- 법당 23평 아미타 삼존불 후불탱화 및 칠성탱화
- 지장보살 원불 후불탱화 산신각5평 미륵.용왕
- 요사채 및 공양간33평1 주차시설완비
- 가액 3억2천7백만원 대출6천5백만원 포함
- 급양도 가격절충가능(꼭필요하신분만 열락주세요)

010-7183-0114

티베트의 즐거운 지혜

욘게이 밍규르 린포체 (티베트 승려)

〈1〉 초조 · 불안과 친구되기

마음을 1/10로 쪼개 관찰… "안녕 두려움! 잘 지내니"

〈티베트의 즐거운 지혜〉(문학의 숲 刊)는 삶의 변화무쌍함을 이해하고 그 변화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자유에 다다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꾸준한 명상을 바탕으로 누구든지 행복에 이를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한다.

저자인 욘게이 밍규르 린포체는 티베트 승려로, 일상의 삶에서 수시로 생겨나고 시공을 초월해 존재하는 불안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불교의 통찰과 수행을 바탕으로, 매일의 삶에서 일어나는 도전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 본지는 이 책의 내용을 3회에 걸쳐 발췌 · 요약해 싣는다. 〈편집자 주〉



"나는 왜 명상을 잘 할 수 없지?"
매우 자연스러운 의문
내마음 통과 하는 것이 명상의 대상
주의 기울이면 순수자각 공간 경험

터널 속 한 줄기 빛

나를 포함해 열다섯 명의 불교 수행자들이 미국 위스콘신 주 메디슨 대학의 와이즈먼 뇌신경 연구소가 주관한 신경과학 연구의 피실험자가 돼 뇌 영상 촬영의 일종인 자기공명영상(FMRI)장치에 벨트로 고정돼 실험을 했다. 이 연구는 장기간의 명상 수행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서 '장기간에 걸친 수행' 이란 보통 1만 시간에서 5만 시간 정도 명상 수행이 축적된 경우를 말한다. 젊은 지원자들은 대략 15년 정도, 나이 든 수행자들은 40년 이상 수행을 계속해 온 경우다.

우리 피실험자들은 일정 시간 명상 수행을 하고 난 뒤 평상시의 중립 상태에서 마음을 휴식하는 일을 번갈아 했다. 예컨대 3분 동안의 명상과 3분 동안의 휴식을 반복하는 것이다. 단, 명상 중에는 누가 들어도 매우 불쾌하게 여길 소리들, 이를테면 여성의 비명이나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려주었다. 실험 목표 중 하나는 귀에 거슬리는 이런 소리들이 숙련된 명상 수행자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내는 일이었다.

연구팀은 수행자들에게 그 괴로운 소리들을 들려주었을 때 모성애나 연민 같은 긍정적인 마음 상태와 연관 있는 뇌 영역의 활동이 실제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불쾌감이 오히려 깊은 고요와 투명함과 자비심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 발견은 불교 명상 수행이 가져다주는 주된 이점 중 하나를 아주 간단하게 포착한 것이다. 그 이점이란 고통스런 상황과 그것에 흔히 뒤따르는 혼란스런 감정들을 인간 마음이 가진 힘과 잠재 가능성을 여는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변화의 능력과 그것이 허용하는 내적 자유를 결코 발견하지 못한다. 날마다 등장하는 안팎의 도전들에 단순히 대처하느라 자기를 돌아볼 시간적 여유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1998년 서구 세계에서 처음 명상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들이 현대문명의 온갖 편리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에 훨씬 큰 자신감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으리라고 순진하게 추측했다. 하지만 형태와 원인은 비록 다를지라도 네팔에서 본 것만큼 많은 고통이 그곳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사람들이 물질이나 외적인 부를 축적하고 유지하느라 시간과 노력을 다 써버리기 때문에 자비, 인내, 너그러움, 평정 같은 내적인 부를 키울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러한 불균형은 사람들이 이혼이나 심각한 질병, 만성이 된 신체적 고통이나 감정적 고통의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특히 취약함을 드러낸다.

이 가운데 많은 이들은 몸과 영혼을 쇠약하게 하는 감정 패턴을 극복하기 위해, 혹은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대처할 길을 찾기 위해 이미 많은 방법을 시도해 봤다. 그들이 불교에 끌리는 이유는 불교가 고통을 해결하고 어느 정도의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참신한 방법을 제시해 준다고 어디선가 읽거나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500년 전 붓다가 펼친 가르침과 수행들은 우리의 나날의 삶에 늘 따라다니는 외로움, 불안, 두려움을 제거하거나 문제들을 정복하는 일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종종 충격을 받는다. 정반대로 붓다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조건들을 단지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자유를 발견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이 메시지가 절망적으로 느껴질 사람들의 기분을 나는 충분히 이해한다. 나의 유년기와 청소년기 역시 불안과 두려움으로 깊이 얼룩져 있어서 그 무렵의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달아나는 일뿐이었다.

달아날 곳은 없다

나는 훌륭한 명상지도교사인 나의 아버지 툴쿠 우르겐 린포체가 제자들과 함께 명상할 때 취하는 자세를 본떠 동굴 안에서 혼자 명상하는 흉내를 내곤 했다.

아버지 밑에서 정식으로 명상을 배우기 시작한 열살 무렵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 하지만, 명상을 가르치며 세계를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고백하기 어려운 사실이긴 한데, 나는 명상이라는 생각과 그것이 약속하는 희망적인 결과들을 좋아하긴 했지만 정작 명상 수행 그 자체는 무척 싫어했다. 몸이 근질거리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왔다. 마음속에서 너무 많은 잡념들이 떠들어 대 도무지 집중이 불가능했다. '이 순간, 만일 지진이나 폭풍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하는 불길한 의문들로 주의가 흐트러지곤 했다. 나는 그 지역을 휩쓸고 지나가는 폭풍우를 특히 겁나 했다.

나는 마음속이 너무도 산만해 눈에 보이는 사물에 집중하는 것 같은 간단한 명상법조차 따르기 힘들다고 고백했는데 나의 이 고백에 아버지가 보여 준 친절한 방식에 평생 감사드린다. 먼저 아버지는 내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마음이 산만해지는 것은 특히 초보자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처음 명상 수행을 시작할 때는 마음속에 온갖 종류의 사념들이 갑자기 출몰하며 그것은 마치 세찬 강물에 떠내려오는 나뭇가지들과 같다. 그 나뭇가지들이란 바로 신체적인 느낌, 감정, 기억, 계획, 심지어 '난 명상을 잘 못해.' 같은 사념들이다. 따라서 그런 것들에 휩쓸리고, '나는 왜 명상을 잘할 수 없지?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이 방의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아버지는 설명했다. 어느 순간에라도 내 마음속을 통과하는 것들이야말로 내가 명상의 초점으로 삼아야 하는 바로 그 대상들이라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내 주의력이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말했다. 주의를 기울이는 바로 그 행위가 세찬 강물을 서서히 느리게 하고, 나아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과 그것을 바라보는 순수 자각 사이에 작은 공간을 경험하게 해 준다고. 명상이 깊어질수록 그 공간은 점점 더 넓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차츰 내 안의 생각과 감정과 신체적인 느낌들을 나 자신과 동일시 하는 습관을 중단하게 되고 그 순수 자각과 내가 하나가 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 가르침들로 인해 내 삶이 그 즉시 변화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나는 그것들 속에서 큰 위안을 발견했다. 산만한 마음으로부터 달아날 필요가 없었으며 산만한 생각들이 나를 데리고 달아나게 둘 필요도 없었다. 나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든, 그것이 생각이든 느낌이든 감각작용이든 나의 마음과 친해지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

마음과 친해지기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의 가장 강렬한 측면에만 주의를 고정시킨다. 신체적 고통, 약속 시간에 늦을 것이라는 두려움, 시험에 떨어진 낭패감, 친구를 잃은 슬픔 등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마음은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대개 두 방향 중 하나에서만 맴돈다. 즉 달아나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압도당해 버린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적으로 보이거나 혹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고 우리의 반응까지도 조종하는 주인이 돼 버린다.

아버지에게 명상 수행의 어려움을 고백했을 때 아버지는 내게 그 두 극단 사이의 중간 길을 제시했다. 나는 산만한 생각들을 막으려 노력하거나 그것에 굴복하는 대신 그것들을 친구로 환영할 수 있었다. "안녕 두려움! 안녕 초조함! 잘지내니? 잠시 머물면서 우리 서로를 알아 가는 게 어때?"

생각과 감정과 신체적인 느낌들을 다정하게 맞아들이는 이 수행을 흔히 '마음챙김' 이라고 일컫는다. 여기에 해당하는 티베트어는 '드렌파' 인데, 간단히 말해 '자각하다' 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자각하는 것인가? 우리의 주의를 가로채고 압도하고 우리를 달아나도록 충동질하는 경험의 주된 측면 즉 '큰 그림' 에 집중하는 바람에 우리의 주의에서 벗어나 버리는 몸과 마음의 모든 미묘한 과정들을 자각하는 것이다. 마음 챙김에의 접근은 큰 그림을 더 작고 더 다루기 쉬운 조각들로 점차 쪼개어 나가는 것인데, 그 작은 조각들은 놀라운 속도로 자각 속으로 반짝 떠올랐다가 금세 사라져 버린다.

마음을 자각하는 수행을 처음 시작한 많은 사람들처럼 나는 내 마음을 통과하는 것들 중 10분의 1조차 제대로 관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럼에도 여러 인상들의 돌진이 아주 자연스럽게 서서히 느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는 몇 가지를 알아차렸다. 먼저 그때까지 나는 혼란스런 감정과 산만한 기분들이 견고한 실체를 가진 영원한 것이라 여겼었는데 그런 생각이 실제로는 환상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불안감이 아주 잠깐 머물다 사라지면 좀이 쑤시기 시작했다. 그 근질근질함은 창문 밖에 날아온 한 마리 새가 나의 주의를 끌기 전까지 아주 잠깐 동안만 유지됐다. 그 다음엔 누군가가 기침을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점심엔 뭘 먹지?' 하는 의문이 불쑥 들었다. 1초 후에는 불안감이 되돌아왔다. 근질근질함은 더 심해지고 내 앞에 앉아서 명상하는 사람이 자세를 바꾸었다. 이러한 인상들과 생각들과 신체적인 느낌들이 오고 가는 것을 지켜보는 게 거의 놀이처럼 되고, 그 놀이가 진행됨에 따라 나는 더 차분해지고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 의식적으로 의도하지 않고도 생각과 느낌들에 덜 겁내게 되고 산만함 때문에 덜 고통 받게 됐다. 나의 마음은 음울하고 조종하려 드는 낯선 주인이기 보다는 정확히는 아직은 친구가 아니지만 적어도 흥미 있는 동반자로 발전돼 갔다.

하지만 여기서도 마음을 단순히 관찰하라는 가르침은 놀라운 깨달음을 가져다주었다. 나를 괴롭히는 것들 대부분은 자신의 경험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들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것은 좋은 생각이야. 이것은 나쁜 생각이야. 아, 이 기분은 맘에 들어. 이런, 이 기분은 정말 싫어.' 하는 것들이다.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두려움 자체보다 더 강력했다. 나는 한동안 마치 내 마음속에 분리된 두 개의 방이 있는 것처럼 느꼈다. 하나는 내가 서서히 알아차리기 시작한 생각과 감정과 신체적인 느낌들로 가득 찬 방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들에 대해 수다를 떠는 유령들이 점령한 비밀의 뒷방이었다.

얼마 안 있어 나는 그 두 개의 방이 실제로는 분리된 게 아님을 깨달았다. 그 수다들은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들 바로 옆에서 늘 진행되고 있었지만 너무나 미약해서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다. 마음속의 이 연속적인 해설에 대해서도 나는 그것들을 부드럽게 관찰하면 그 생각과 느낌들 역시 단명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들이 그렇게 왔다가 감으로써 뒤에서 판단하는 목소리들도 힘을 잃어 갔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문학의 숲' 에서 펴낸 〈티베트의 즐거운 지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욘게이 밍규르 린포체는



1975년 네팔 누브리 계곡에서 태어났다. 티베트 밖에서 교육받은 티베트 불교의 떠오르는 별이다. 어렸을 때 그는, 위대한 명상 수행자였던 욘게이 밍규르 도르제와 캬브제 캉규르의 환생으로 인정됐다. 1998년부터 세계를 여행하면서 마음의 문제로 번민하는 이들에게 명상을 가르치는 동시에 달라이 라마와 함께 마음생명협회를 이끌어 왔다. 이 과정에서 신경과학자들이 그의 뇌를 MRI로 촬영한 결과 그는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육체의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깊은 지혜의 아우라를 지닌 이 티베트의 명상 스승은 현재 인도, 네팔, 북미 지역을 여행하며 명상 강의를 이어 가고 있다.

965호 | 불자정보
TEL 02) 2004-8215(直)
FAX 02) 737-0696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리니다.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남해안 소재
• 토지 : 총 10,953평 (종교용지 430평, 임야/전 :10,523평)
• 시설 : 총 6동(납골추모관, 무량수전, 종무소, 요사체, 공양간, 창고, 일반주택 등), 주차장 완비, 현재 추모관 성업중
• 가액 : 4억 8천만원(전세는 협의)
• 양도 또는 반전세 협의 가능
• 꼭 하실 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5155-1948

포교원안내
• 위치 : 강원도 속초시
• 평수 90평
• 3층, 방3개, 친견실1, 시설완벽
• 삼존불, 아미타, 관음, 지장, 대세지(새로 조성)
• 전세금 2천만원 월세 無
• 시설비 3천만원
• 스님 사정상 급 양도함
010-3750-5424

포교원안내
• 위치 : 일산
• 평수 약 90평
• 보증금 5천만원 월 40만원
• 별도 쑥뜸시설로
• 비구니 스님 적합
010-5351-3409
소임자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북 영천
• 법당: 약사여래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 대지: 100평, 건평 20평
• 1년 집세: 100만원, 시설비 500만원
• 마당에 텃밭있음
010-7170-2133

사찰안내
• 위치 : 영천시 북영천 IC 3분거리
• 부지: 1740㎡(527평)
• 법당: 109㎡(33평), 철근콘크리트조 단청, 삼존불(정동불) 후불탱화, 신중, 칠성, 산신, 용왕, 약사, 지장, 십대왕
• 요사채: 132㎡(40평) 방3, 거실1, 다용도실2, 차고, 창고, 야외화장실
• 가액: 2억 6천만원 (답사 후 조절가능)
010-2544-4848

사찰안내
• 위치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 달맞이길, 바닷가 전망 좋음
• 평수 약 50평
• 삼존불 모셔있음
•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약간, 보시고 결정
051)747-6602
011-676-5367

사찰안내
• 위치: 경북 김천 소재(남김천 대로변 김천역에서 차편 약 20분)
• 건물 : 기와형 32평, 개인등기 법정보장
• 관련대지 : 약 360평.도지료 연 35만원
• 내용 : 법당, 방2, 주방, 세면장
• 여건: 큰길변 교통좋은요지 남향 법당 넓고, 현대식 시설, 생활 편리함
• 가액 : 6천 5백만원 시설비 절충
010-7295-1259

도심속의 작은 암자
• 위치 : 부산 시내 (북구) 주차용이
• 1층 와가, 방2칸, 약 26~30평 정도
• 법당(삼존불) 신중, 영가단, 산신, 용왕 별도
• 현 법회중. 시설 집기 완벽 (몸만 오세요)
• 국유기(철도부지) 사용료 내고 있음 (약 25년 이상)
• 가액: 6천 3백 (조절가) 사정상 급 매
011-575-9707

좋은인연 대출안내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싼이자를 물고 계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33년 역사의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으로 늘 불교와 함께하는 은행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010-7314-2522
대출기간 기본5년(연기가능) / 근저당설정비 면제
제주도 포함 전국, 단체명의, 종단사찰 모두 가능 !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계의 덕은 3악도를 멀리 한다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44)

나찰이 된 병사왕

옛날 병사왕에게 한 대신이 있었는데, 잘못이 있어 왕은 그 대신을 남쪽으로 귀양을 보냈다. 천 리나 떨어진 그곳은 본래부터 사람이 살지 않아서 곡식도 자라지 않는 땅이었다. 그런데 그 대신이 이르자 샘물이 흘렀고 곡식이 저절로 익었다.

사방의 여러 나라에서 굶주리고 추위에 떨던 이들이 이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대신은 오는 이들에게 논밭을 나누어 주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다. 얼마 되지 않아 그 땅은 한 나라를 이룰 만큼의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 하지만 그 땅에는아직 왕이 없었다.

어느 날, 장로들이 모여 의논을 했다. 한 장로가 말했다.

"나라에 임금이 없는 것은 몸에 머리가 없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다른 장로들도 같은 마음이었다. 그래서 장로들은 대신을 왕으로 모시자고 의견을 모았다. 장로들이 대신에게로 가서 대신을 왕으로 모시려 하자 대신이 장로들에게 말했다.

"만약 나를 왕으로 삼는다면 다른 여러 나라의 왕법과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좌우에 문무 대신과 장사가 옹위하고 상하가 조공하며 여인들을 징발하고 궁전을 짓고 세금과 곡식과 비단을 거두는 등, 백성 또한 옛 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장로들이 말했다.

"왕의 명을 받들 것이며 한 결 같이 왕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그리하여 대신은 왕이 되었고, 여러 문무 대신과 신하를 두게 되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서 거둔 세금으로 성을 쌓고 집과 궁전을 지었다. 백성들은 점점 힘들어졌고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모두가 역모를 생각하게 되었다.

여러 간신배들이 왕을 모시고 사냥을 나갔다가 성에서 30, 40리 쯤 떨어진 넓은 들판 가운데서 왕을 죽이려 하자, 왕은 신하들에게 물었다.

"무엇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하느냐?"

신하들이 말했다.

"백성들은 풍년과 즐거움이 그리워서 왕을 예로써 받들었으나, 백성들이 고생되므로 반란을 생각하여 집을 부수고 나라를 도모하려 합니다."

왕이 말했다.

"그대들은 스스로가 한 것이었고, 내가 본래 하자고 한 것이 아니었소. 그릇되게 나를 죽인다면 신기(神祇)가 알 것이오. 나에게 서원을 하나 세울 것을 허락한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소."

그리고는 즉시 서원을 했다.

"저는 본래 황무지를 개간하여 땅을 만들어 백성들을 길렀으며, 오는 이들은 모두 지극히 부유하게 되어 즐겁게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저를 왕으로 삼았으니, 모든 나라의 법에 따라 자기들이 함께 이를 하여 놓고서 이제는 도리어 저를 죽이려 합니다. 저는 실로 이 백성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죽으면 나찰이 되어 원수를 갚게 하소서."

왕이 서원을 마치자 신하들이 왕을 죽이고 떠났다.

3일 뒤에 왕의 혼이 몸 안으로 돌아와 스스로 아라파라고 이름 짓고 이내 일어나 궁중으로 들어가서 새 왕과 후궁과 채녀들과 간신들을 죽이고 궁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 했다. 그러자 나라 안의 세 장로들이 새끼줄로 자신들을 포박하고 와서 나찰을 향하여 말했다.

"이는 바로 간신들의 소행이었으며, 이 평민들은 모르는 일이오니 부디 용서해 주시고 나라를 다스려주십시오."

나찰이 대답했다.

"나는 나찰이오. 사람들과 함께 일하려면 먹고



삽화 · 강병호

마시는 것은 사람 고기라야 하며, 나는 성질이 조급해서 분을 내면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소."

장로들이 말했다.

"나라는 바로 왕의 것이므로 예전대로 하십시오. 잡수실 것은 서로 차례대로 보내겠습니다."

그리하여 나라의 장로들은 함께 나와서 백성들에게 널리 알렸다.

"이제부터 차례가 되면 집집마다 어린아이와 한 사람씩을 차출하여 왕이 먹게 할 것이다."

백성들은 몸을 희생하여 나찰 왕을 먹여주었다. 이때에 어느 집에 부처님의 제자가 될 아이가 있었는데, 집에 있으면서도 정진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부처님의 5계를 지니고 있었다. 현자들 모두가 괴로워하고 슬피 울면서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자신들을 책망했다.

부처님께서 도안으로 그들이 몹시 괴로워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어린아이로 인하여 수없는 사람이 제도되겠구나."

그 아이는 바로 부처님의 5계를 지닌 그 아이였다. 부처님은 이내 혼자서 날아와 나찰의 문에 닿으신 후 광명의 모양으로 나투시어 궁전 안을 비추셨다. 나찰은 광명을 보고, 이는 이인(異人)이라 의심하면서 곧 나왔다. 부처님이 보이므로 나쁜 마음을 일으켜 부처님을 잡아먹으려 했다. 그러자 광명이 그의 눈을 찌르므로 산을 어깨에 메고 불을 내뿜어 모두 티끌로 변하게 했다. 지쳐버린 나찰이 항복을 하고 부처님을 청하여 들어와 앉게 하고 머리를 조아려 예배했다. 부처님께서 그를 위하여 설법하시자, 일심으로 법을 듣고는 이내 5계를 받고 우바새가 되었다.

이때 마을에서는 벼슬아치가 부처님의 제자가 될 그 아이를 빼앗아 데리고 갔으므로 그 집안사람들은 통곡하면서 그 뒤를 따라갔는데, 구경하던 수많은 사람들도 그들을 위하여 슬퍼했다. 벼슬아치가 아이를 안아다 먹을 수 있도록 나찰의 앞에 가져다 놓자, 나찰은 손으로 아이를 들고서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저는 이제 부처님의 5계를 받았으므로 다시는 사람을 먹지 않겠습니다. 어린아이를 부처님께 보시하니 부처님을 시봉하게 하여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아이를 받으시고 설법과 축원을 하시자, 나찰은 기뻐하면서 수다원의 도를 얻었다. 부처님께서 어린아이를 발우 안에 넣어 들고 나찰의 문을 나와서 그의 부모에게 돌려주면서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를 잘 키워라.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부처님의 모습을 처음 본 사람들은 신이하게 여기며 말했다.

"이는 어떤 신이며, 저 아이는 무슨 복이 있기에 혼자만 구제 받아 나찰의 먹이가 되지 않고 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부처님이 이내 게송으로 말씀하셨다.

"계의 덕은 믿고 의지할 만하여서 / 복의 과보가 언제나 몸을 따르며 / 법을 보아야 사람들의 어른이 되고 / 마침내 3악도를 멀리 한다. // 계율은 괴로움과 두려움을 없애고 / 복의 과보로 삼계의 어른이 되며 / 귀신과 용은 삿된 해독으로도 / 계율 지닌 사람은 범하지 못하리."

부처님의 빛나는 형상을 보고 모두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으며, 게송을 듣고 기뻐하면서 모두가 도의 자취를 얻었다. (〈법구비유경〉제5권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㊹



존경과 고마움

스님의 광목 법복

부부동반 모임에서 가을 나들이로 경산 반룡사에 다녀오기로 했다. 반룡사에 도착 했을 때였다. 한 여인이 취재팀과 함께 원효대사에 관한 다큐를 촬영하고 있었다. 이 여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교민으로 우리 한국의 불교와 문화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불교를 홍포하거나 문화를 알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 늘 아쉬워했는데, 이런 서원을 가진 사람이 있다니 놀랍기도 하고 고마움의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

불교가 없었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역사를 말 할 수 있으며 문화라고 할 수 있을까. 아름다운 골짝마다 절이 있고 그곳엔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있다. 좀 더 가까이 피부로 느끼며 아껴야 할 자랑스러운 유산임을 인식하고 알려야 할 것이다.

또한 부처님의 말씀을 받들어 세상에 많은 가르침을 남긴 선지식들의 업적들도 종교를 떠난 우리의 자부심이며 유산임을 알리고 싶다.

이곳 경산은 원효 스님의 삶이 묻어있는 스님의 고향이다. 그녀는 설종이 자랐다는 반룡사의 전설을 바탕으로 홍보 다큐를 제작하여 미국사회에 한국을 알리려고 한다고 했다. 불자로서 너무나 반가웠다. 앞으로도 더 많이 한국의 문화와 불교를 세계 만방에 알리어 큰 스승이 계셨던 나라, 또 큰 스승님이 계시는 나라로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광목천 법복만 평생 입은 스님
자연의 고마움 늘 생각해야

우리 일행은 다음 행선지인 은해사로 향했다. 법당 참배와 각단 예배를 마친 후 주지, 돈관 스님을 찾았더니 출타중이라 만날 수가 없었다. 자주 뵙지는 못해도 나는 스님의 지극한 효심을 보고 존경하게 되었다. 일타 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신 스님은 그 큰 키에 언제나 광목천으로 승복을 고집하셨는데, 그것은 은사 스님을 기리는 마음에서 라고 했다. 사미계를 받게 되었을 때 큰 스님께서 손수 광목천을 떠와서 먹물을 들이고 또 직접 재단하여 보름동안을 연비한 손가락 하나로 밤낮으로 기워서 옷을 만들어 입혀 보냈다고 한다. 옷은 아무래도 행자였던 스님의 맘에 들지 않았고 할 수 없이 그 옷을 입고 갔을 때 같이 수계를 받는 도반들은 모두가 기름이 흐르는 기지 천으로 너무나 잘 차려 입고 와서 자랑하니 부끄럽기까지 했다고 했다. 그렇게 별로인 기분으로 지족암 가는 길에서 어느 스님이 "그 옷보다 이 옷으로 바꿔 입으라"는 말을 듣고 냅다 기분이 좋아져 바꿔 입고 큰 스님께 자랑했다가 그 인자하시던 큰 스님이 크게 노하여 하마터면 그날로 쫓겨나 중노릇도 못 할 뻔 했다고 술회하던 일이 떠올랐다. 당연한 일이 아니었을까 아직 절집 생활이 몸에 배지도 않고 겉멋만 들어 어떻게 수행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스님은 그때야 그 뜻을 알고 그날부터 바로 입을 꼭 다물고 "내 평생 기지 옷을 입지 않을 것이며 스승님이 해 주셨던 광목천으로만 옷으로 입을 것이다."라고 맹세했다는 이 말을 듣고부터 그 추운 겨울날에도 풀이 빳빳한 광목옷을 입고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자기와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스님이기에 나는 스님을 존경하게 되었던 것이다.

부산 불꽃 축제에서

부산에는 '부산국제영화제', '팔관회', '자갈치 축제' 등 알려진 축제들이 여럿 있다. 이맘때면 불꽃축제가 열리는데 화려한 볼거리가 있어 좋다. 이번엔 더욱 다양하고 화려한 불꽃으로 축제가 진행될 것이라는 광고를 보고 도반들과 축제가 열리는 광안리를 찾았다.

일찍 가야만 좋은 자리를 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김밥과 과일 등 음식을 잔뜩 준비하여 이른 시간부터 자리를 깔고 앉아 수다를 떨며 밤이 되길 기다렸다.

오늘따라 따뜻한 날씨에 파도도 얌전하게 밀려왔다. 해가 질 무렵 바다는 은빛으로 눈이 부시도록 반짝이고 있었다. 우리는 폭신한 모래위에 누워 하늘을 봤다. 너무도 맑고 깨끗한 하늘에는 흰 구름이 유유히 떠가고 있었다. 즐겨 흥얼거리는 시 한 구절 읊었다. "마음은 하늘이고 생각은 구름이어라. 마음은 바다이고 생각은 파도여라." 사람의 본시 마음은 저 하늘처럼 맑고 깨끗 할진데 구름이 하늘을 가릴 뿐이고 마음은 언제나 여여한 바다와 같은데 파도와 같은 생각이 마음을 흐리게 한다는 뜻으로, 오늘 이 장소에 딱 어울리는 시다.

점점 시간이 가까워지니 사람들이 모여들어 해변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 여러 해 동안 해오던 행사로 알려져 외국인 관광객들도 꽤 많이 왔다. 여기저기서 밀려들어오는 사람들로 불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더니 안전 요원들이 더욱 분주하게 움직여야 했다. 우린 "일찍 잘 왔지?" 하면서 마주보고 행복한 미소를 짓기도 했다. 밤 8시가 되어서야 불꽃놀이가 시작 되었다. 팡팡 불꽃이 터지는 소리와 함께 하늘에는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환호소리와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다.

너무도 아름답고 황홀한 저 불꽃들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신기하만 했다. 그러나 이곳 물고기들은 또 얼마나 놀랐을까 걱정도 되었다. 나의 말을 들은 도반들은 "이곳의 물고기들은 해마다 이맘때에 하는 행사인줄 다 알고 있을 거야"고 했지만 나는 왠지 먼 곳으로 도망쳐 버렸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해변 위에 가득 찬 인파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흥겨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은 것이 모두 자연의 덕분이란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늘 자연의 고마움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았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연의 고마움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가 많았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대행 스님

마음의 중심에서 이탈이 되면 안 됩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1(남):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주인공 관(觀)하는 법을 듣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 나름대로 느낀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을 믿고 계속 관을 하다 보니까 물론 몸에 병이라든지 어려운 일이 해결되는 예를 저로서는 수차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나고 나서 제 마음 상태가 항상 욕심을 내는지, 화를 내는지, 미워하는 마음을 내는지,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내고 있는지를 거의 알게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경계이기 때문에 이 미혹한 경계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밝은 쪽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마음 상태를 밝은 상황으로 끌고 가면서 나쁜 삿된 길로 가지 않게 올바로 끌고 가는 것이 주인공을 관해서 견성하여 올바로 가는 수행법인지 한 번 알고 싶습니다.

큰스님: '내가 끊어지지 않게 잘 놔야지.' 하는 것까지도 거기 놔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로 믿는다면, 이걸 놓는다 안 놓는다, 뭐 안되는 것도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도 붙지 않습니다. 24시간 생각이 안 났었어도 끊어진 게 아닙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말입니다. 한 달 후에 생각이 났다 하더라도 끊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거는 마음과 마음이 삼천 년 전 마음이나 지금 마음이나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탄지탄 끊어뜨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이거를 붙들고 극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극매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제자리에다 돌려놓는 공부, 또는 제자리에다 놓되 앉으나 서나 생각나면은 거기다 돌려놓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 안되면은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깐 되게 하는 것도 거기지.' 하고 거기다 돌려놓는 법, 또는 견성을 했다 하더라도 나를 발견하고 나서가 더 어렵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때부터 공부기 때문입니다.

둘 아닌 도리를 공부하려면 이것 저것이 전부 나타납니다. 말이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온통 안에서 일어나고 바깥에서 들어오고 하는 그 경계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둘이 아닌 도리를 알게끔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나를 테스트해보려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나 그걸 보느라고 그렇게 나오고, 보이고 '나는 아무개다.' 하고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는 거를 속아서 안 됩니다. 그것마저도 제자리에다가 다시 돌려놓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질문자2(남): 먼저 삼보님 전에 지성으로 귀의하옵고 시방제불 보살마하살님들과 대행 큰스님과 인연지어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찾기 위해서 지난 5년 동안 나름대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쭉 생활 속에서 행주좌와 중에 24시간 무심의 생활을 하려고 하고 마음을 관하고 놓고 무심, 관하고 놓고 무심, 이런 식으로 한 2년, 3년을 계속하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반야심경이 5년째 되던 작년에 탁 터지는 한 소식, 한 소식을 하면서 터진 다음에 대행 큰스님의 죽비 소리에 홀연히 뭔가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처처에 부처님 나투심 아닌 곳이 없고 이곳이 불국토고 제 있는 곳이 도량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생활 속에서 그냥 항상 무심의 생활 속에서 인제, 염불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공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쭉 찾아온 것이, 제가 그 소를 찾아 마음을 찾아보니까 소 자체도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소잔등에 타가지고 소를 부리면서 제가 처처에 나투신 부처님들과 함께 시방세계를 놀다가 갈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이 들어지고 일체 삼라만상이 유심조(唯心造)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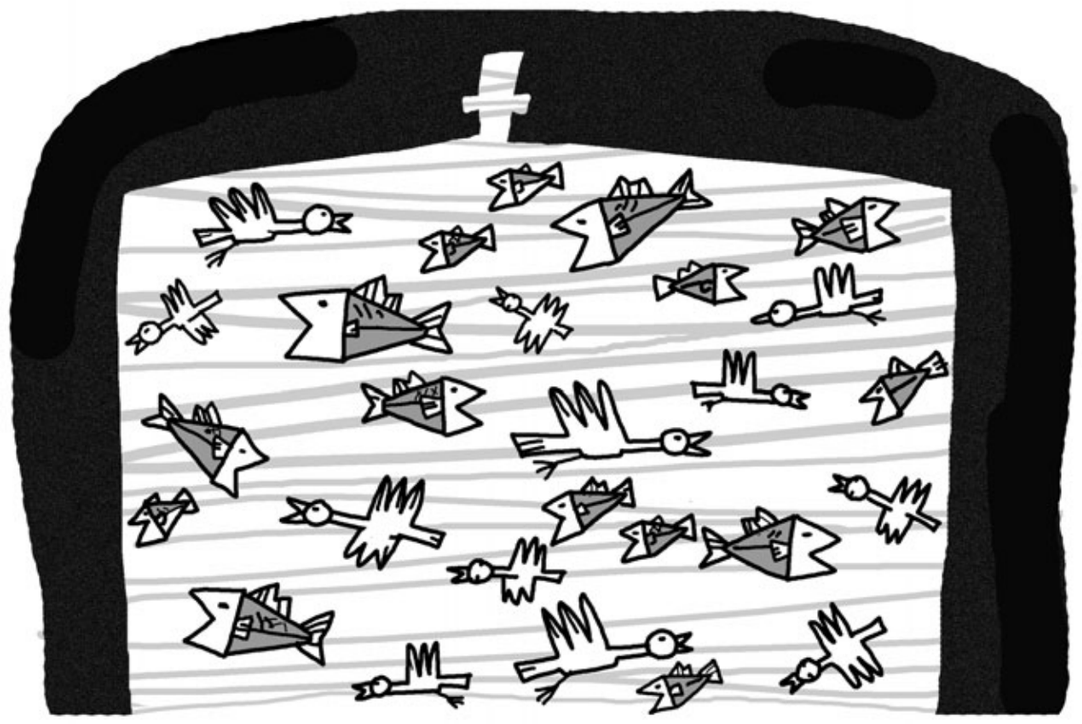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래서 희노애락 모든 슬픔, 기쁨, 고통과 모든 것에 한생각을 일으키고 그 마음을 일으킨 것에 의해서 사람들은 그 대상과 경계가 실체가 있는 걸로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큰스님의 그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와 불이관(不二觀)에 의해서 하다가 큰스님 죽비 소리에 홀연히 뭔가 터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고기가 물을 벗어나서 물속을 자유롭게 헤엄을 치고 노닐 순 있지만 그 물 자체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듯이, 우리가 불법이라는 부처님 손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불법에조차도 걸리지 않는, 고기가 물속조차도 넘어선 경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가? 색(色) 공(空)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중도(中道)의 길을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큰스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번째 여쭙고 싶은 것은 이 깨침에도 초지(初地)에서 십지(十地)까지 십 단계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야심경에 보면은 반야바라밀다라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나면 그 배 자체도 버려라 하고 강을 건너기까지만 가르쳐주시고 있고 강을 건너고 나서 가야 할 길도 없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어떠한 수행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서 가야 할지 큰스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큰스님: 다 터진 것처럼 말하면서, 하하하. 우리가 아까 말한 거나 지금 말씀한 거나 같습니다. 같은데 이 선법에는 물도 없고 배도 없고, 청산도 없고 돛대도 없습니다. 그 도리를 안다면 더 가고 덜함도 없는 색(色) 공(空)이, 색 공이 둘이 아닌 까닭을 아십니까?

질문자2(남): 예.

큰스님: 그럼 내놔보시죠. 귀신 방귀씨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까닭은 아십니까? 우리는 느끼는 걸로만 알아서 안 되고 실천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법은 실천이 문제입니다. 또 귀신 방귀털을 더 먹이지도 않고 덜 먹이지도 않고 그렇게 기르는 까닭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 세 가지, 이 자체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그거를 안간힘을 쓰고 할 양으로 무심(無心) 무심 무심 무심 하시는데 그 무심조차 놔야 되죠. 이거를 굴리면서 이거를 무심 무심, 이건 무심으로 살아야지, 무심으로 살아야지 그러면 무심으로 살지 않는 게 됩니다. 그 모두 일체를 다 놓고 제자리에다 놓고 그 제자리에다 놓는 데서 그것이 다 녹아서 그릇이 홀랑 빈 연에 자기라는 것이 홀연히 고개를 들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둘이 아닌 도리를 가르치려면 그 귀신 방귀털을 더 먹이지도 않고 덜 먹이지도 않게 그렇게 먹여서 키우는 것이 둘 아닌 도리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에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죽어야 하고 두 번째는 둘이 아닌 까닭을 알기 위해서 죽어야 하고 세 번째는 둘이 아닌 나툼을 알기 위해서 또 죽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뜻이 발현이 됐으면 나를 발견했다고 해서, 어린앨 낳았다고 그래서 사회에 그냥 내보내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현대불교 현불샵**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제자리에 돌려놓으세요

☞ 29면에서 계속

는 게 아닙니다. 어린애를 낳았으면 키워서 공부시킬 거 다 공부시켜서 사회에 나갈 만해야 나가는 겁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둘이 아닌 도리를, 상대성 원리를 완전히 파악하고 완전히 실천했을 때, 또 자기가 실천하고 체험을 했을 때 그때에 한마디를 해도 한데로 떨어지지 않고 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질문자2(남): 큰스님 법문 속에서 인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에 모두 놓으면 된다. '일념돈탕진(一念頓蕩盡)'이라고 해서 한마음에 죄 지었던 마음조차도 멸(滅)해버리면은, 그 마음 자체를 멸해버리면 죄 자체도 곧 멸해진다. 그래서 주인공한테 맡기면은 인과 자체도 다 멸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옛선사들께서 불락인과(不落因果)와 불매인과(不昧因果) 이거에 대해서 불락인과라고 저는 종전에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큰스님들, 법력 높으신 도인들께서는 인과는 오되 인과를 받지 않는다.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고 어떠한 경계와 대상에 끄달리지 않기 때문에 인과는 오되 인과에 걸리지 않는다. 불락인과를 이렇게 저는 알았는데 어느 옛 선사의 법문집에서 보니까 그것이 틀린 거다. 불매인과다. 도인이나 법력이 높으신 분들도 인과를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상시에 큰스님께서 주인공한테 맡기면은 모든 인과가 다 녹는다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의문점을 가졌었습니다.

큰스님: 의심이 그렇게 갑니까?

질문자2(남): 네.

큰스님: 하하하.

질문자2(남): 가르침을 주옵소서.

큰스님: 물론 불락(不落)이다 하면 불매(不昧)가 올 거고, 불매가 있다 하면 불락이 올 겁니다. 이건 아니다 할 수도 없고 그렇다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것이 바로 색공(色空)입니다. 색공이 둘이 아니다 하는 소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양면이 다 붙지 않느냐, 왜 불매(不昧)라고 했느냐 하면은 모두가, 하나하나가 떼고 놓고, 떼고 놓고 쉴 사이 없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도 쉬는 게 없습니다. 쉬는 게 없으니 이것이 다가오는 대로 네가 나와 둘이 아닌 까닭에 그것은 온다, 안 온다, 불락이다, 불매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생활 자체 여여함이 그대로 불매입니다. 그냥 그대로 우리가 돌아가면서 싫다, 죽는다, 산다 이런 생사도 그냥 뛰어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불매라고 하겠죠. 그래서 불락이라고 한마디 잘못해 가지고 여우의 몸을 쓰고 오백 년을 살았다이거죠? 그러니까 그 오백 년도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은 오백 년이 일 초라고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또 여우 몸으로 살든지, 늑대 몸으로 살든지, 구더기의 몸으로 살든지 선지식들은 그거를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 '천상천하(天上天下) 유아독존(唯我獨尊)'이라고 한 뜻이 뭐냐 하면은 그것에도 해당됩니다. 왜냐하면은 높고 낮음이 없이 전부 나 아님이 없느니라 했거든요. 지렁이 발도 내 발이요, 허허허, 하다못해 메뚜기 발도 내 발이요, 인간의 발들도 전부 내 발이고, 내 아픔이고, 내 몸이고, 내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평발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가정에서든지 자기 가정에서 자기 남편이 제일 높죠? 자기 가정에서는 자기네들이 제일 높은 겁니다. 그런데 또 나가서 본다면 뱃사공은 뱃사공대로 높고, 농사꾼은 농사꾼대로 높고, 또 기술자는 기술자대로 높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높고요, 이 산과 들을 보십시오. 전부 자기가 이 세상에 제일 높다고 합니다. 호박꽃도 꽃이라고 자기는 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그 범위내에선 다 높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이 전부 나 아님이 없느니라 해서 천상천하에 유아독존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거 그 불매(不昧)다 불락(不落)이다 이런 것도 다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색공(色空)이 둘이 아닌 까닭에 그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깃줄과 전깃줄이 한데 합쳐져야 불이 들어오지요. 불이 들어왔으면 불만 들어왔지 그 양면의 전깃줄이 가설이 된 거는 생각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설이 됐어도 불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건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을 가지고 얘기한 거지, 선이라는 건 불을 가지고 얘기한 거지 가설된 그 전깃줄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전깃줄과 이 불이 둘이 아닌 까닭에 불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색(色)과 공(空)이 둘이 아닌 데서 불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또는 불매와 불락이 둘이 아닌 까닭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회자: 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질문할 게 있으면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큰스님: 허허허. 그럼 한마디만 더 해볼까요? 시간이 아직 조금 있으니까.

아까 우리가 공기주머니에서 산다고 그랬죠? 우리는 이 공기주머니를 이탈하면은 아주 어려움이 닥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기도 물에서 이탈이 되면은 어렵듯이 사람도 공기주머니에서 이탈이 되면 어렵습니다. 그와 동시에 마음도 내 내면에서 이탈이 되면은 어렵습니다. 이 공기라는 자체는 지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공기는 지구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춥다, 덥다 이 자체도 바로 공기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오존선 만법에 의해서 나옵니다. 오존선 만법이라 함은 전부 허공 이 자체 이 둘레를 말하고 또 지금 지구다 하면은 지구 속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혹성이 있고, 유성이 있고, 항성이 있고 다 이렇게 다르게 돼 있는 것은 장관이다 무슨, 뭐 대통령으로부터 쭉 이름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오존선이 중심이라고 합니다. 오존선은 중심에서, 이 지구의 중심에서 모든 거를, 즉 비도 오게 하고 눈도 오게 하고 그렇게 소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구름도 일게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통신도 하게 하고, 이 모두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도 조절하고요.

그런데 공기는 이게 이탈이 되면은, 더 올라간다면 그 태양열로서 재료를 다 흡수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안양에서 시장이라면 딴데 시장을 범할 수 없듯이. 그러니깐 그렇게 해서 이탈이 되면은 모든 것이 조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냥 이탈이 돼서 그냥 돌아가죠. 공기가 없으니까요. 공기를 흡수를 하지 못하니까요. 공기를 흡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태양열을 이렇게 흡수하기 때문에 살고 있고, 흡수를 하되 이 물속 밑바닥까지 이 태양열이 거기에 닿지 않기 때문에 항상 파도를 일으켜서 물을 돌려야 생명들이 죽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마음의 중심에서 이탈이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뜻이나 똑같습니다. 그냥 막 돌아가죠. 그리고 또 따뜻하지가 못하고 춥고 그러니까 생명체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모두가 이러한 이치로써 이 진리가 모두 돼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마음에서 이탈이 되면은 안 된다.

역대에 그 부모들 존전에서 나오는 그 씨도, 내 씨나 삼천 년 전 부처님 씨나 똑같은 씨입니다. 즉 불씨죠. 불(佛)이라는 건 생명의 근본이 불이니까요. 또 교(敎)라는 것은 모두가 참, 태양열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 파도로 인해서 모든 게 돌아가면서 생명이 살고 존재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존재하고 그렇게 돌아가야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중심에서 심봉이 꿋꿋하게 서질 못하면은 맷돌이 돌아가지 않듯이, 심봉이 있는데도 이탈이 되면은, 즉 이 심봉이 없다면 그냥 맷돌이 건성 돌아가게끔 돼 있죠. 그리고 돌아가지도 않고요.

이러는 까닭에 우리 이 마음 자체, 지구 이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안양 한 변두리에 이렇게 한 혹성이 있어서 그 혹성을 기준해서 살고 있는 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그 혹성의 이 세포 하나하나가, 우리 인간에게 세포가 있듯이 이 세포가 모든 사대(四大)에 피를 조달하고 통신을 조달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탁 치면 벌써 두뇌로 해서 사대로 아픔이 탁, 신호가 가는 겁니다.

이렇듯이 지구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우리 몸 하나가 지구 하나나 똑같습니다. 지구에도 세포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통신 조달은 바로 오존선에서 조달을 할 수 있고, 일으킬 수 있고, 오게 할 수 있고, 춥게 할 수 있고, 덥게 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막상 알고 보면 우리 몸체 하나가 육근(六根)·육진(六塵)·육식(六識)이 더불어 같이 한생각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죠.

"누가 오늘 법회날인데 비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법(禪法)이라는 거는 그렇게 남의 말만 듣고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 선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얕은 소견으로 그냥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하나에서 이것이 해당이 돼야 됩니다. 개별적인 하나가 아닙니다. 포괄적인 하나로서 이것이 해당이 되고 이 생각 자체가 그냥 법으로 들어가야만이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지 오늘 법회에 뭐 비가 와서 그렇게 걱정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허허.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부를 여러분이 모두 철저히 하고 또 포교를 해서 그런 장애자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되고, 또 장애자가 나온 것은 바로 과거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과거로부터, 즉 말하자면 유전성이니 인과성이니 영계성이니 세균성이니 해서 지금 현실에 이게 모두 포함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온 자리에다가 되놓으면 그것도 좀 유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또 이 공부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얼마나 모두 고생들을 합니까.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쓰는 대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교가 중요하다. 또 사람들 생활 속에서 생각을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자식들이, 남편이 술을 먹고 그냥 차를 몰고 저 죽을 줄 모르고 한다 하더라도, 또는 어떠한 문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거는 말로서 몸뚱이를 잡으려고 해서는 잡혀지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고장난 건 마음으로 고쳐야 된단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대중: 대중 예.

큰스님: 이 마음은 어떠한 거라도 부드러운 행동과 부드러운 말을 해주면서 거기다 맡겨야 이것이 따뜻한 감을 갖고 따뜻한 데로 고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데로 고이게 돼 있고요. 그러니 모든 것은 어떠한 잘못이 있더라도 그 타의에다 원망을 하지 마세요. '저놈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 저것이 왜 저렇게 못됐어? 누굴 닮아서 그래?' 이럭하고는 그런 마음을 내고 욕을 하고 그러면 그 마음낸 대로 욕하는 대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입력이 돼서 그대로 반영이 되니까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세요. 여러분 얼굴 고대로 보이죠? 하하하.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행동하고 말하고 그 마음 쓰고 하는 대로 입력이 되니까 그것이 그대로 선법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좀 더 편안하게 살면서 자유스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이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열심히 해서 그 아픈 고해에서 벗어나십시다.

※위 법문은 1992년 11월 15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말로써 몸뚱이를 잡으려 해서는 잡혀지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고장난 건 마음으로 고쳐야 됩니다.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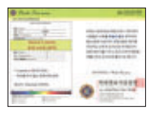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 취 목 걸 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 – 중(흰옥) 가액 ₩6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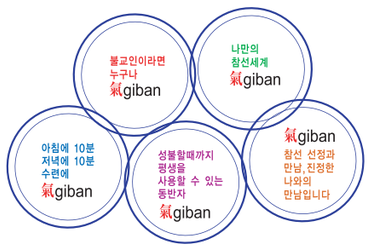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불자 세상보기

목숨을 걸고 예뻐지려는 이들에게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성형공화국이 되어버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2011년 한 해 동안 무려 65만 건의 성형수술이 이루어졌다고 하니 그런 소리를 들을 만도 하다. 사정이 이렇게 되고 보니 성형수술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크고 작은 각종 후유증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사망사고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며칠 전에는 부산에서 이른바 양악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여대생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유사한 사고가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라고 한다.

이 외에도 안면이 마비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거나 드물긴 하지만 시력을 상실하는 경우까지 생긴다. 결과적으로 원래 모습보다 보기흉한 얼굴이 되기 십상인 것이다. 이를 비관한 나머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생겨날 정도다. 이 뿐만이 아니다. 성형수술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증가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만들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성형수술을 부추기는 우리사회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에 육두문자로 욕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 된다.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집짓는 데나 사용해야 할 공구들이 자기 얼굴 위에서 멋대로 춤추도록 하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

얼굴에는 눈, 귀, 코, 입 등을 연결하는 미세한 혈관과 신경세포들이 거미줄처럼 분포되어 있다. 사정이 이럴진대 얼굴을 마치 기계부품처럼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는 양악수술이 얼마나 위험한 작업인가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오죽했으면 수술을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수술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미리 보게 한 다음 최종결정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을까? 그 광경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아무튼 예쁘게 보이고 싶은 세속적 욕망을 끊임없이 확대재생산하면서 죽음도 개의치 않는 이기심을 조장하는 사회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또 다른 민낯이 되고 말았다. 부끄럽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을 탓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본다. 이 모든 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은 공업(共業)의 결과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쯤에서 우리는 새삼스럽지만 〈효경〉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지 않을 수 없다. "신체발부수지부모 불감훼상 효지시야(身體髮膚受之父母 不敢毁傷 孝之始也)" 글자의 뜻 그대로 모든 덕의 근본인 '효'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과 터럭과 살갗을 함부로 훼손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는 가르침이다. 자신의 몸은 결코 자기 혼자만의 것일 수 없다. 가깝게는 부모와 그리고 멀리는 선대조상과 뿌리를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생명연속체이다. 그런 만큼 마음 내키는 대로 처분할 수 있는 가벼운 물건이 결코 아니다. 참으로 소중하게 가꾸고 지켜야 할 일종의 공동재산에 해당한다.

그런데 성형수술은 이와 같은 공자의 도덕명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회현상이다. 하긴 공자가 성형수술이 요즘처럼 유행하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경책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말이다. 그래도 성현의 말씀은 곱씹을수록 깊은 맛이 나는 법, 여기서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되돌아보면 우리는 남들보다 더 많은 재화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것이 사실이다. 어쩌면 성형수술의 만연도 그와 같은 삶의 연장선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눈물겨운 노력의 산물일지도 모른다. 소위 말하는 외모지상주의와 성의 상품화가 어디 한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있는 일이던가?

그러나 너무 지나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더 이상 성형수술을 바라는 자식을 위해 부모가 빚을 내서라도 병원에 데려가는 사회분위기는 제발 자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부처님의 말씀은 아니더라도 과도한 욕심은 언제나 재앙을 불러들이게 마련임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사부대중 칼럼

연임 장점 살려 종단 변화 이끌어 주십시오



성 태 용
건국대 철학과 교수

조계종 제34대 집행부가 출범하였다. 자승 스님의 연임을 두고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상당한 표 차이로 연임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일정한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이를 바탕으로 약속한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또한 있다.

새로운 집행부에 바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가장 단순하게 말한다면 연임의 효과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극대화되도록 해 달라는 것이겠다. 전 집행부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부족했던 점을 최대한 보완하는 것이다. 문제는 '전 집행부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가' 겠다.

여러 시각이 있겠지만, 전 집행부에 이루어진 가장 긍정적인 변화는 조계종이 사회적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그 사회적 위상을 높였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양극화의 문제, 종교 갈등의 문제 등을 비롯하여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현장에 뛰어들어 사회의 문제를 불교의 품안으로 끌어안은 점은 상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아픔을 함께하려 노력했던 점들은 매우 발전적인 변화였다.

이런 사업들을 통하여 불교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선도적 종교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늘 정권에 이끌려가던 모습을 탈피하고 정권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정책에 불교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전향적인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이러한 흐름이 정말 불교의 발전에 올바른 방향으로 수렴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조계종의 행보가 치밀한 계획과 그를 뒷받침하는 조직적 역량이 없이 졸속하게 결정되거나 총무원장의 돌출성 행보로 이루어진 듯하다는 비판도 있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이제는 진정 조계종의 행보 자체가 철저한 계획 아래, 또 조직적인 지원 아래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전 집행부에서 뿌려놓았던 씨앗을 성실한 노력을 통해 거두어야 한다는 말이다. 사부대중의 힘을 모아서 조직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종책사업을 수행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한다.

여러 가지 아쉬웠던 점 가운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승단의 청정성과 승가의 위상을 정립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 문제에 있어서 자승 총무원장을 위시한 전 집행부의 태도는 대체적으로 온건 타협의 노선 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노선 덕분에 극단적인 찢어짐이 없이 무사히 여러 문제들이 봉합된 측면도 있다. 그러나 그 반면의 역효과 또한 매우 크다. 승단 내부에서는 적당한 타협과 봉합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으나, 종도들과 일반 국민들의 시각은 오히려 의구심이 증폭된 점이 있으며, 승단 내에서도 자괴와 자조의 분위기가 만연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종교는 그 청정성을 바탕으로 하여 권위가 생기는 것이며, 그 권위를 바탕으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화합이라는 명분이 잘못되면 미봉이 된다. 주로 봉합을 위주로 하다보면 오히려 바탕이 무너져 버리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권위는 자체의 역량에 의해서 자켜져야 하는 것이며, 그 권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요소에 대하여는 밖에서 힘이 작용하기 전에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만 한다.

스스로 엄하게 단속하고 정화하는 모습이 바로 종교적 권위의 근원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여러 여건상 피치 못한 이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전 집행부는 스스로 엄하게 단속하고 정화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부족하였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당에서는 한걸음 크게 나아가 자산의 곪은 곳을 과감하게 도려내는 의지가 필요할 것이며, 그런 의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분명한 선언과 그를 밑받침하는 규정, 조직의 쇄신을 보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연임이라는 것은 단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관성 있고 연속성 있는 종책을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한 장점이 최대한 발휘되어 조계종의 변화와 발전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는 종도들의 소망이 뜨겁다. 큰 성원이기에 그만큼 어깨가 무겁다. 올바른 길에는 모든 종도들의 성원을 통하여 불보살의 가피가 내린다는 확신 아래 당당한 행보를 보이는 집행부가 되기를 기원한다.

社說

신도회 체질 개선이 불교 발전 원동력

사찰 운영에 있어서 신도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느때보다 높다. 이런 가운데 일반 신도들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신도회 권한이 커져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신도회가 할 수 있는 기능이나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아 일할 수 없는 현실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중앙신도회 수장인 이기흥 회장도 사찰 신도회가 교구 신도회로 이어져 중앙신도회의 토대가 돼야 하는 데 연결고리가 없다며 축사만 하러 다니는 회장이 되는 것은 사양하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계종은 1995년 조계종 신도등록을 시작하며 신도법을 정비해왔다. 1994년 중앙신도회 관련 신도법이 공포되고 1997년 중앙신도회가 창립됐다.

문제는 하위조직에 대한 권한이 없는 조직으로 중앙신도회가 운영되는 점이다. 종단에서도 꾸준히 신도 조직화를 외쳤지만 행정단위와 교구단위의 불일치 등의 이유로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 실제로 현재 교구신도회가 구성된 사찰은 15곳. 전체 24개 본사 중 아직까지 신도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도 무려 9개에 달한다. 하지만 일선 사찰의 신도회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이란게 주 이유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구성된 사찰 중에서도 교구 신도회로서 제 역할을 하는 곳이 소수라는 점이다.

중앙신도회 한해 예산이 1억 2000만원에 불과해 이 예산으로는 교구신도회를 지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다.

물론 일부에서는 스님들이 신도들 역량이 강화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다.

하지만 승가와 재가는 불교를 구성하는 양축이다. 그러므로 서로의 의식 개혁을 통해 배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각 사찰서 신도회를 건강한 체질로 바꾸는 것도 그 개혁의 출발이다. 재가자가 출가자의 단순 보조자로만 머무른다면 불교 발전의 원동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조계종 장학제도는 인재 불사 밑거름

장학제도는 인재 양성에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지원책이다. 사회에 적지 않은 단체들이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조계종 역시 마찬가지다.

조계종 장학승 제도가 확립된 것은 2010년 6월 '장학금 지급 및 관리에 관한 령'이 제정되면서 부터다. 이전에는 조계종 차원의 장학승 선발은 해외에서 수학하는 스님들에게만 한정돼 있었고, 지급인원과 금액이 불규칙해 일회성 지원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하지만 '장학금 지급 및 관리에 관한 령'의 제정은 종단 인재양성에 새 전기를 맞게 됐다.

또한 학업을 마치고 나서 일정 시간을 종단에서 활동하게 해 인재 활용의 기회도 열어 놓게 했다.

종단 장학승에 선발된 스님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 또한 종단 장학승이라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만 봐도 장학제도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내년도 조계종 장학승은 사찰승가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있는 스님까지 포함해 30명의 인원을 선발한다. 종단 장학승 선발 분야는 응용불교학, 불교문화, 불교사, 언어학이 새롭게 추가됐으며, 종단 내 연구가 부족한 계율과 근현대 한국불교사, 종교법무에 대한 연구자를 우대한다.

'다다익선(多多益善)'이라고 했듯이 이 같은 장학제도는 더욱 확대돼야 한다. 지원대상 분야를 확대하고 선발 인원도 늘려야 한다. 특히 연구 취약 분야와 미래지향적 연구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인재가 숲을 이뤄야 그 단체의 비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제 안착 일로를 걷고 있는 조계종 장학승 제도가 더욱 발전해 불교 인재 발굴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www.shcandle.com

2014

삼 환 양 초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상담문의 031)766-0242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팩스 031)766-0233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 원기둥 연꽃나비-7.4Φ x29cm

•원기둥 금나비-7.4Φ x29cm
•밀납 원기둥 연꽃나비-7.4Φ x29cm

•원기둥 108나비-7.4Φ x29cm



• 원기둥 나비-7.4Φ x29cm



•돈타레 나비-5.6Φ x 27cm



•밀대 나비-4.7Φ x 25cm
(밀납, 약쑥, 식물성)



•육각초 나비-7.5Φ x 45cm



•3X6 꽃과 나비-7.4Φ x 14.5cm

신제품



•원기둥 사군자 반야-7.4Φ x29cm



•3X6 사군자 반야-7.4Φ x 14.5cm



•무궁화 반야 원기둥 양초-7.4Φ x29cm
•무궁화 반야 돈타레 양초-5.6Φ x 27cm
•무궁화 반야 밀대 양초-4.7Φ x 25cm (밀납, 약쑥, 식물성)
•무궁화 반야 1호 양초-5.9Φ x 18cm



• 밀납 / 약쑥 야광 연봉 연꽃 양초-7.0Φ x 33cm
• 야광연꽃1호-5.9Φ x 18cm



•한봉 밀납 금강경 세트-5.9Φ x 18cm



•입체 연꽃 원기둥 양초(밀납,약쑥)-7.0Φ x33cm
•입체 연꽃 돈타레 양초(밀납,약쑥)-5.6Φ x 27cm
•연꽃 1호 입체 양초(밀납,약쑥)-5.9Φ x 18cm

국산향



•우리향, 미연향, 무향, 설죽매, 인삼향, 대발향, 쑥향, 백목향, 목향

수입향



•와까바 •향수림 •후리지아 •라일락향 •영원향 장,단 (소바라)

신제품



•원기둥 12지-4.7Φ x 25cm



• 원기둥 흑룡, 봉황-7.4Φ x 29cm





•도자기 인등 小 가로 13cm 세로 17cm
大 가로 15cm 세로 19cm



•파라핀 오일 (국내산 원액, 제조 삼환양초)



• 크리스탈 받침 밀납PC컵초
9.5Φ x 4cm(연소시간 약 12~18시간)